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중구향토사자료 제20집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역사적 현장과 인물을 찾아서

서울 중구문화원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자료집 목록

제01집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 중구 관련 논문 모음집
제02집 중구사화(史話) - 중구의 문화유적에 얽힌 이야기
제0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제04집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제05집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제06집 중구의 구전설화
제07집 명동 변천사
제08집 중구의 축제
제0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
제11집 정동, 역사의 뒤안길
제12집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제13집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제14집 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
제15집 한류의 중심 서울 중구, 그 뿌리를 찾아서
제16집 서울 번영의 상징, 을지로
제17집 서울 중구의 문화예술인을 찾아서
제18집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제19집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제20집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특별호

1998 사진으로 본 중구의 어제와 오늘
2015 서울중구문화원 20년 발자취 맥(脈)
2018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刻字城石)

발간사

서울 중구 향토사자료 20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3·1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이에 발맞춰 중구문화관광해설사회와 함께 '중구 관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서'라는 기획으로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및 주변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향토사연구위원회에서는 중구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고 2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쳐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치욕적인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열들께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의 활동에서 중구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한말 군대해산 때 우리 시위대와 일제 군인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남대문 지역, 3·1만세운동의 중심 무대였던 덕수궁 앞 광장, 그리고 강우규 의사, 나석주 의사, 이재명 의사의 의거 터, 중구 출신 독립운동 명문가인 이회영·이시형 6형제 집터, 남산과 장충단 지역의 독립운동가 동상을 비롯하여 중구 곳곳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자취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책의 발간을 맞아 중구 향토사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서양호 구청장님, 조영훈 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집을 발간하기까지 수고해 주신 집필자 분과 향토사 연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서울 중구문화원장

축하의 글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의 향토사자료 제20집 발간에 애써주신 중구문화원 임직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조선시대 한양 정도 이후 수도 서울로 발 닿는 곳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지역향토사는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특유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구향토사 자료집은 귀중한 자료로 지역 발전과 애향심 고취 등 많은 효과를 수반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치욕적인 을사늑약 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중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유적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구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이회영·이시형 6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지사께서 고난의 시절 일제에 대하여 항거를 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이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어온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수집·보존을 통하여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구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중구문화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 중구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께 우리 중구를 이해하는 향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축하의 글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장 조영훈입니다.

서울 중구 향토사자료 제20집『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생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신 중구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여러 언론 매체에서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젊은 세대들도 역사를 다시 배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하나씩 소개하는 향토사 자료집의 발간이 더욱 뜻깊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점차 멀어져가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애국의 현장들이 우리 중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발간을 통해 숭고한 희생의 정신과 흔적들을 우리 후세들이 아로새기며 자랑스러워 할 날이 무궁히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중구 곳곳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내며 중구 향토사 자료집이 구민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속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조 영 훈

대한제국 시위대(侍衛隊)의 훈련 모습. 시위대는 1895년 궁궐 호위대로 창설되었다가 1906년 정미7조약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해산 당일 시위 제1연대 1대 대장 박승환 참령의 자결을 계기로 봉기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며 후일 정미의병에 합류하였다.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지의 종군기자 프레드릭 맥켄지(Frederick A. Mackenzie)가 경기도 양근에서 촬영한 '항일 의병부대'

1918년 덕수궁 석조전에서의 황실 가족(왼쪽부터 영친왕, 순종, 고종, 순정효황후, 덕혜옹주)

〈고종 황제의 국장 사진첩〉 중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는 대여 행렬(고궁박물관 소장)

중구의 독립운동 유적 · 인물

1. 대한제국군 시위대 남대문 전투지 / 시위 제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 순국 장소
2. 독립운동에 헌신한 많은 인재를 길러낸 상동교회 / 전덕기 목사
3. 전 재산을 처분하고 독립운동에 진력한 이회영 · 이시형 6형제 집터
4. 매국적(賣國賊) 이완용을 응징한 이재명 의사 거사 장소
5.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태화관 /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선언식이 진행된 탑골공원
6. 기독교계 3 · 1운동을 주도한 이필주 목사 / 정동교회
7. 민족대표의 한 사람이자 학생들의 3 · 1운동 참여를 이끈 이갑성 / 세브란스병원
8. 기독교계의 합동을 주도한 함태영 전도사 사택 / 남대문교회
9.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3 · 1운동에 참여한 신석구 목사 사택 / 수표교교회
10. 학생 대표들이 모여 3월 5일의 2차 만세시위를 계획한 배재학당 기숙사
11.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역 학생단 만세시위지 / 1919년 9월 신임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져 응징한 강우규 의사 거사 장소
12. 유관순열사기념관 / 이화학당
13. 덕수궁 대한문 앞 만세시위지
14. 선은전 광장 만세시위지
15. 의열 투쟁의 주 타격 대상이자 일제 식민통치의 핵심 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 / 김익상 의사 거사 장소
16. 노동자들이 주도한 봉래정 만세시위지
17. 임시의정원 의원이었던 신석우 선생 집터(수표동)
18. 임시정부 서울연통부 역할을 한 동화약방 / 독립운동가이자 동화약방 1대 사장이었던 은포 민강
19. 경성부민관 /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강윤국, 조문기, 유만수 거사 장소
20. 동양척식주식회사 / 일제의 경제 침탈 기구를 공격한 나석주 의사 거사 장소

태화관
승동교회
탑골공원
광화문 방면
종로동
종로경찰서
종루
청계천
경성부청
대한문
환구단
동양척식회사
명동성당
태평통
조선은행
선은전광장
본정
남대문
남대문시장
조선총독부

1919년 3월 1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이 진행된 탑골공원 팔각정

관람객들에게 덕수궁 중명전에 대해 설명하는 중구문화원 문화해설사

정동 미국영사관을 향해 행진하는 만세시위대(서울역사박물관 소장)

2019년 9월 2일 이북5도청에서 열린 강우규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9호, 문화재청 소장). 70여 명의 광복군 대원들의 염원을 담은 글과 서명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1919년 4월 말경 상해 조계지의 프랑스공원에서 찍은 임시정부 단체 사진(2019년 KBS 탐사보도부 발굴)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국가기록원 소장)

차 례

발간사 | 서울 중구문화원장 _ 이종철 · 5

축하의 글 | 서울 중구청장 _ 서양호 · 6

축하의 글 | 서울 중구의회의장 _ 조영훈 · 7

들어가는 글 | 일상에서 만나는 독립운동의 역사 · 20

1부 만세전(前) : 망국과 항거

1장 스러져가는 대한제국의 꿈 · 27

1.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 30
   - 장충단에 배향한 순국열사 이한응 · 35
2. 헤이그 밀사와 고종의 퇴위 · 38
   -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 · 42
3. 군대해산과 남대문 전투 · 45
   - 박승환, 남대문 전투의 불을 붙이다 · 50
   - 대한제국군 서울시가 전투지 · 53
   - 대한제국군 시위병영 터 · 58
   - 대한제국 최후의 군인 이충순 · 61
   - 한국 최초 여성전문병원 '보구여관' · 63

2장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 · 67

1. 정미의병의 서울진공작전 · 70
   - 13도창의군의 타격 목표였던 통감부 · 74
2. 비밀결사 신민회 · 77
   -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명문가' · 82
   - 독립운동에 앞장선 전덕기 목사 · 86
   - 독립운동가의 산실 상동교회 · 90
3. 경술국치 그리고 의열투쟁 · 93
   - 안중근 의사 기념관 · 98
   - 이재명, 매국노 이완용을 응징하다 · 102
   - 독립운동을 지원한 의친왕 이강 · 107

2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3장 3·1운동 직전의 상황 · 113

1. 2·8독립선언, 도쿄를 뒤흔들다 · 115
2. 신한청년당, 임시정부를 예비하다 · 123

4장 3·1운동의 전개와 중구 · 130

1. 2월 28일, 의암 손병희 자택 · 133
2. 3월 1일, 태화관과 탑골공원 · 137
   - 민족대표와 학생대표를 연결한 이필주 · 142
   - 함태영, 자기를 낮춰 후사를 도모하다 · 145

• 학생들의 참여를 이끈 이갑성 · 149
• “나의 믿음은 조선의 독립”, 신석구 · 153

3. 시대의 부름에 답한 청년들 · 156
• 2차 시위가 기획된 배재학당 기숙사 · 167
• 남대문역전 학생단 만세시위 · 171
• 3·1정신의 상징, 유관순 열사 · 174

4. 뜨거웠던 만세시위 현장, 중구 · 179
• 덕수궁 대한문 앞 만세시위 · 188
• 치열한 시위가 전개된 ‘선은전’ 광장 · 192
• 시위대의 목적지, 남산 조선총독부 · 196
• 일제 헌병경찰제의 중추, 경무총감부 · 200
• 만세운동의 불씨를 이어간 봉래정 시위 · 203
• 기독교계 독립운동의 중심 세브란스병원 · 208

5. 기미독립선언에 담긴 정신 · 211
• 독립정신을 상징화한 3·1독립운동기념탑 · 218
• 유림의 독립의지를 모은 ‘파리장서’ · 221

5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의열투쟁 · 224

1.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 228
• 신석우, ‘대한민국’ 국호를 발안하다 · 234
•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 · 236

2. 단일대오를 이룬 임시정부 · 240
• 독립운동의 거인, 백범을 기리다 · 248
•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조병옥 · 252
• 한국인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 · 255

3. 의열투쟁의 현장, 중구 · 260
-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노익장 · 264
- “2천만 민중아, 분투하라!” 외친 나석주 · 269
- 광복의 신호탄, 부민관 폭파 의거 · 273
- 반민특위와 못다 이룬 친일청산 · 276

나오는 글 | “오직 바라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 · 283

후주(後註) · 288

들어가는 글

일상에서 만나는 독립운동의 역사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전 세계 청소년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재미있는 드라마와 영화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팬덤을 일으키는 나라,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감염병 방역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는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와 치안력으로 일상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는 나라, IT 강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최첨단 디지털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그 나라는 불과 백여 년 전만 해도 동아시아의 자그마한 변방에 불과하였다. 너무도 존재감이 없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밋밋한 표현조차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그만 나라를 빼앗기고 35년의 세월 동안 이름은 물론 모국어마저 빼앗긴 채 굴욕의 삶을 감내해야 했던 불행한 역사의 나라였다. 광복을 맞았으면서도 서구 열강에 의해 남북이 갈라져 서로에게 총칼을 겨눠야 했으니, 문자 그대로 망국의 울분과 고통, 동족상잔의 쓰라림으로 갈기갈기 찢긴 상처투성이의 나라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확고한 실력을 갖춘 나라로 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효자동 사진관)

돋움했다. 경제적 발전에 뒤이은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 발전의 토대를 한층 공고히 하였고, 공정과 정의, 자율과 평등의 아젠다가 사회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어느새 세계 여러 나라가 공감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성취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망국의 모진 수렁과 분단의 핸디캡마저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일구어낸 힘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분명 역사 속에 있다. 역사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할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형성기에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쓰라린 경험과 함께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혁명적 저항의 역사 또한 경험하였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었지만, 그 역사로 인해 우리는 자주적 독립과 세계 평화에의 기여라는 민족적 지향점을 세울 수 있었다. 그것은 3·1독립선언서를 통해 명석한 사상과 문장으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민중의 참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실천 방도가 강구되었다. 근대사 백 년의 기틀을 세웠으며 앞으로의 또 다른 백 년의 향방을 인도할 이정표인 그것은 바로 3·1만세운동이다.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국민 모두가 확인한 바와 같이, 3·1만세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근대적 열망의 분출이자 민족사의 결절점이었다. 1941년 11월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대강」에 담긴 삼균주의(三均主義)의 비전은 명실공이 3·1정신의 계승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특히 3·1만세운동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백범 김구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지향 또한 3·1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광복 이후 첫 번째 맞는 1946년 3·1절 경축사에서 백범은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직도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문장을 잠시 읽어보자.

> 인류 혁명사에 빛나는 3·1운동의 위대한 의의는 통일성에 있습니다. 지역의 동서와 계급의 상하가 없었고, 종교와 사상을 비롯한 모든 국한된 입장과 태도를 버리고 오로지 나라와 겨레의 독립과 자유를 찾자는 불덩어리 같은 일념에서 이 운동을 일관했다는 점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통하여 임시정부라는 영도 기관을 탄생시켰고, 또 이 임시정부는 이역만리에서 파란곡절을 겪으면서도 3·1운동에 참여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며 수난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던 것입니다.[1)]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 녹아 있는 독립운동 백 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살리려내는 것이다. 3·1만세운동에 참여한 당대 민중은 세련된 이념과 강철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일어선 곳은 자신들이 걷고 일하던, 혹은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거나 술 한 잔을 걸치던 일상의 공간이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탑골공원, 학생 주도의 2차 만세시위가 이루어진 남대문역(서울역),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각종 지하신문이 등사된 하숙집과 교회, 끊임없이 이어진 거리 곳곳의 시위를 비롯해 의열단 열사들이 포탄을 투척, 일제의 침탈에 저항했던 모든 곳들은 하나같이 일상의 땀내 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 뜨거웠던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고자 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구문화원 회원들이 이재명 의사 의거터를 답사하였다.

1부에서 우리는 3·1운동 직전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500년 역사를 이어온 조선 왕조의 마지막 모습이라 할 대한제국의 최후를 일별하고, 그 과정에서 순국한 열사들의 발자취를 소묘할 것이다. 정미7조약 직후 자행된 군대해산에 맞선 시위대 군인들의 남대문 전투 현장을 답사할 것이며, 대한제국 최후의 군인들의 죽음에 깃든 독립 국가를 향한 염원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미의병과 자강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경술국치에 맞서 떨쳐 일어난 피 끓는 청년들의 독립전쟁을 돌아볼 것이다. 신민회와 이회영·이시형 6형제 집터,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이재명 의사의 의거터를 답사할 것이다.

2부에서 본격적으로 3·1만세운동과 그 이후의 독립운동을 다룬다. 그리고 그 적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의열투쟁의 현장들을 서울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시위대의 피와 눈물이 흩뿌려진 중구의 거리 곳곳을 방문할 것이다. 이필주 목사의 사택이 있던 '정동교회'를 시작으로 함태영 전도사의 집이 있던 '남대문교회', 이갑성 사택터인 '세브

란스병원', 신석구 목사의 사택이 있던 '수표교교회', '배재학당 기숙사터', '남대문 역전 학생단 만세시위지', '유관순 열사 기념관', '덕수궁 대한문 앞 만세시위지', '선은전 광장 만세시위지', '봉래정 만세시위지', '장충동 3·1독립운동기념탑' 등을 답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한 역사적 전개와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남산에 자리한 '백범 광장'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 '조병옥 집터', 최초의 한국인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 여사의 집터를 방문할 것이다. 또한 의열투쟁의 자취가 생생히 남아 있는 중구의 여러 현장도 돌아볼 것이다. '강우규 의사 동상', '나석주 의사 의거터', '경성부민관 폭파 의거터' 등을 돌아 '반민특위 터'에 이르러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서울 한복판인 중구 곳곳에 산재한 독립운동 유적지와 관련 인물들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를 향한 행위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와 미래상을 지향할 것인지 되묻는 뜻깊은 작업이다.

1부

만세전(前) : 망국과 항거

1장 스러져가는 대한제국의 꿈

대원군 섭정(攝政) 이후 쇄국(鎖國) 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은 1876년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강화도조약을 맺고 개항을 해야 했다. 이후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들에도 차례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개항 초기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세력 다툼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고종은 삼국간섭(1895)을 계기로 청과 조선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러시아에 접근한다. 조선이 배일·친러 정책으로 돌아서자 일본은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을 준비한다. 한 나라의 황후를 궁에서 살해한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이 그것이다.

1897년 음력 2월 20일, 창졸간에 황후를 잃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아관파천, 1896) 고종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경운궁은 러시아 공사관과도 가깝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 공사관들에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 해 음력 10월 12일 고종은 환구단에서 제를 올리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한다. 황제가 된 고종은 광무개혁(光武改革)을 통해 경제, 산업, 군사 부문에서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황실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이 갖는 한계와,

외세에 의존한 외형적인 신체제에 불과하여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일제는 1903년 12월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 한국의 식민화 방침을 확정짓는 이른바 '대한방침(對韓方針)'을 결정한다. 러일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일제는 1904년 2월 한국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냈다. 고종과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관철시킨 일제는 이로써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을 한국에 강요하고 많은 토지와 인력을 징발할 수 있게 되었다.[2)]

1904년 7월부터 일제는 '치안 담당'을 명목으로 군사경찰제도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로써 한국민의 항일투쟁을 탄압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한성과 지방을 막론하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일제는 제1차 한일협약(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두도록 하여 재정권과 외교권에도 깊숙이 침탈하였다.

또한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서구 열강의 승인을 얻는 작업에 힘을 기울여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영국과는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음으로써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승인받기에 이른다. 러일전쟁에서의 우세한 전황 속에서 9월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결과로 한국 내에서의 러시아 세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3)]

대한제국의 마지막 안간힘도 망국의 길을 되돌릴 수 없었다. 고종의 광무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외교권과 재정권을 비롯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근간이 되는 정치, 군사, 경제 영역들에 대한 일제의 침탈은 더욱 노골화하였다. 압도적인 일제의 무력 앞에 조선 왕조는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일제를 향한 백성의 투쟁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양반과 상민, 여자와 남자,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떨쳐 일어났다. 고문과 투옥, 총살과 교수대가 빤히 보이는 고난의 길을 나선 사람들…. 왕조는 사라져도 항거는 이어졌다.

1.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러일전쟁,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을사보호조약'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전쟁은 이듬해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종결되었다. 11월 초 메이지 천황을 알현하고 특파대사로 대한제국에 부임하라는 명을 받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8일 오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나 9일 저녁 경성 남대문역에 도착, 손탁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고종 황제와 이토 히로부미는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3월에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2월 23일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토가 특임대사의 자격으로 내한한 것이었다. 8월에 이루어진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재정, 외교, 군사, 치안 등은 일본인 고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메가타 다네타로가 탁지부 고문으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외부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스티븐스는 20여 년간 일본 정부에 고용되어 활동한 친일파 미국인이었다.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바로 이 메가타와 스티븐스였다. 탁지부대신이 재정 고문의 강압에 못 이겨 사직할 정도로 고문의 힘은 대신을 능가했다.[4)]

을사늑약 체결 뒤 일본과 대한제국 관료들이 찍은 기념사진

1905년 11월 15일 이토의 고종 '알현'이 있은 후 11월 17일 밤에서 18일 새벽 사이에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사이에 을사조약이 조인되었다. 고종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지만 결국 공포되고 말았다. 일본은 고종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을사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제국 정부를 대표하고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는" 1인의 통감을 두어 한일의정서 이후 이미 간섭받고 있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통감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게 되었다. 또한 통감은 한성에 주재하도록 하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는 이사관을 두어 통감 지휘 하에 일체의 직권 및 협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1905년 11월 22일에는 후속 조치로서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이 발포되었다. 을사조약에는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일제는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의 조약은 을사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외교 이외에도 통감의 직권을 확장하였다.[5)]

을사늑약의 현장인 덕수궁 중명전

결국 이후의 관제에 따라 통감은 한국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로써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정부에 꾸준히 파견된 고문관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고문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천황 직속 기관으로서 통감 유고시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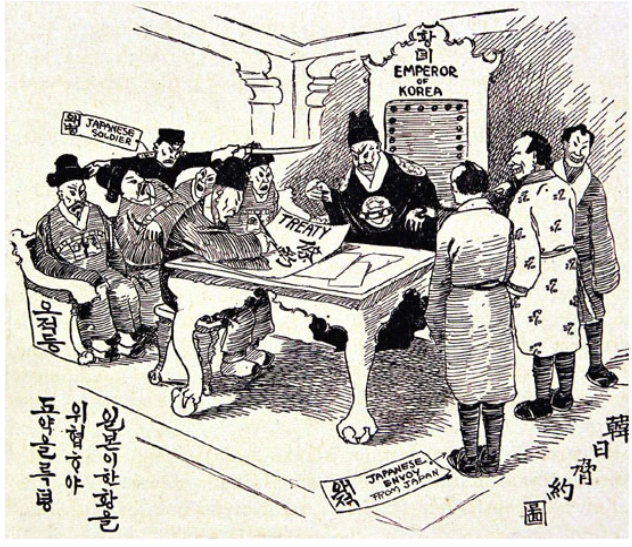
1905년 12월 21일 이토가 초대 통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2월 1일에는 통감부 건물이 남산 자락에 설치되었다. 일본에 머물다가 3월 2일 한국통감에 정식 부임한 이토는 1910년 5월 4일까지 4년 남짓 ‘시정 개선 협의회’라는 형식으로 대한

제국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대한제국의 통치자는 사실상 고종이 아니라 이토 통감이었다.

조약 폐기 상소와 자결로 항거한 지식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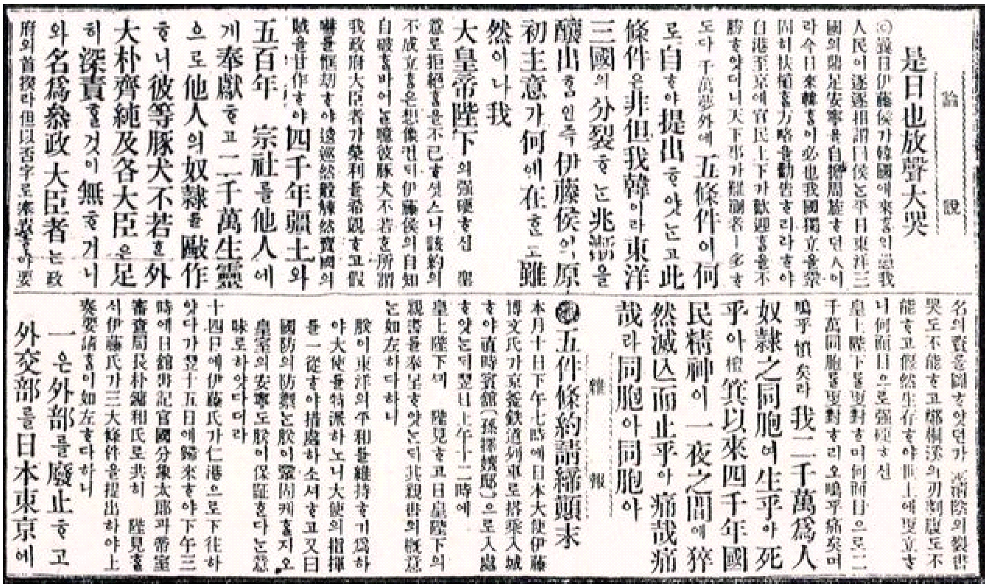
을사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 안은 온통 충격에 휩싸였다. 국권 침탈의 현실을 개탄한 지식인들은 조약 폐기 상소를 통해 저항하거나 순국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가장 먼저 조약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선 이들은 전·현직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상소를 통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상소문의 내용은 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상소 투쟁은 언론계 활동과 함께 을사조약 반대운동의 선봉이 되었다. 조약의 무효와 매국노에 대한 규탄을 부르짖는 내용의 상소문은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였다.[7]

한편 주영공사 서리 이한응은 제2차 영일동맹 체결과 일제의 외교권 침탈에 절망하여 자결하였다. 대한제국 대신이었던 조병세, 민영환 등도 을사오적의 처단과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결하여 의병전쟁 등의 항일운동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흐름은 1910년 경술국치 직후에도 이어져 매천 황현, 정재건, 장태수 등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끊었다. 일제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살지 않겠다는 열사들의 순국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거부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이자 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항일투쟁의 일환이었다.[8]



《신한민보》 287호에 실린 '한일협약도'(1913. 8. 29)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시키면서 일제가 내세운 명목은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일본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던 상대에게 당한 일이


論說

是日也放聲大哭

雜報

五件條約請締顚末

'시일야방성대곡' 논설이 실린 《황성신문》

라 더욱 상처가 컸다.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은 1905년 11월 20일자 신문에 이렇게 썼다.

> 아아, 원통하며 아아, 분하도다. 우리 이천만, 다른 이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사천 년 국민 정신이 한 밤 사이 홀연히 멸망할 것인가. 원통,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9]

을사년(乙巳年)의 이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 준 그날의 상처는 신조어(新造語)로 남아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스산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 바로 '을씨년스럽다'는 말로 사전적으로는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스산하고 쓸쓸하다는 뜻이다. '을사년스럽다'에서 유래한 이 말은 한일외교권위탁조약,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1905년 11월 이 땅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상처와 아픔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장충단에 배향한 순국열사 이한응

1905년 5월 12일 주영(駐英) 대리공사 이한응(李漢應, 1874~1905) 열사가 자결 순국하였다. 1901년 주영국 대학제국공사관 참서관(參書官)으로 임명된 이한응 대리공사는 영국 런던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1904년 러시아와 일본 간에 한반도를 두고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영국 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운 후에도 영국 정부에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침탈을 막아줄 것을 다양한 경로로 호소하였다.

이한응은 1874년 10월 30일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에서 군수인 이경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다섯 살 때부터 한학을 배웠고 1889년 서울로 상경해 관립 육영공원에서 2년간 영어를 비롯하여 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학 등을 공부하고 1891년 졸업하였다. 1894년 특별 과거에 응시하여 성균관 진사로 합격했다. 1899년에는 관립 영어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었고 1901년 런던 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의 참서관으로 임명되었다.

1901년 4월 15일 한국을 출발해 6월 24일 런던에 도착한 이한응은 같은 해 8

영국으로 떠나기 전의 이한응과 장충단 공원에 세워진 순국기념비

월 9일 대한제국공사관이 준비되자 그곳에 거주하면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1904년 2월에 민영돈 주영공사가 해임되어 귀국한 후부터는 대리공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10]

이한응 공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럽의 세력 균형과 연관된다는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영국이 대한제국을 지원해줄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기에 이르자 이한응 공사는 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졌다.

이한응 대리공사가 순국한 후 영국 신문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그의 죽음에 대해 보도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순국한 장소는 대한제국 공사관 내 침실이며, 시신은 창문 끈을 문 뒤의 핀에 걸어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유해는 고종 황제의 특별지시로 당시 런던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 모건의 노력으로 그해 7월 고국에 반장되어 고향인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 금현(金峴)에 모셔졌다.

국가는 주권이 없고
인민은 평등을 잃었구나
진실로 혈기가 있는 인간이라면
어찌 참아내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 1905년 런던에서 자결 순국하며 남긴 유서 중에서

이한응 열사가 영국에서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그의 순국을 기리는 추도회가 열렸다. 추도회는 상동청년회에서 주도하였다. 1905년 7월 31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는 "이한응씨 추도회 처소(處所)는 돈화문외(敦化門外) 전의정부(前議政府) 조방(朝房)으로 이정(移定)함"이라고 전하며 추도회 주최는 "의법회(懿法會) 고백(告白)"이라고 하였다. 의법회는 당시 정동교회에 속해 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이다.

이한응 대리공사가 순국한 이후 일제에 의한 국권 강탈이 진행되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인해 끝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순국하기 직전까지 조국의 외교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한응 공사에 대해 고종 황제는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內部協辦)에 추서하였다. 그리고 장충단에 배향하여 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였다.[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2. 헤이그 밀사와 고종의 퇴위

고종 황제의 헤이그 밀사 파견

을사조약 이전부터 고종 황제는 일제의 노골적인 침탈을 서구 열강에 호소함으로써 막아보려고 했다.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다가 외국 공사관으로 둘러싸인 경운궁으로 이어한 것도 서구 열강의 힘에 의탁하려는 기대 때문이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경운궁을 확장하는 한편, 개혁의 일환으로 서구의 근대적 기술과 문물을 도입하는 데 힘썼다. 또한 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 공사관을 설치하는 등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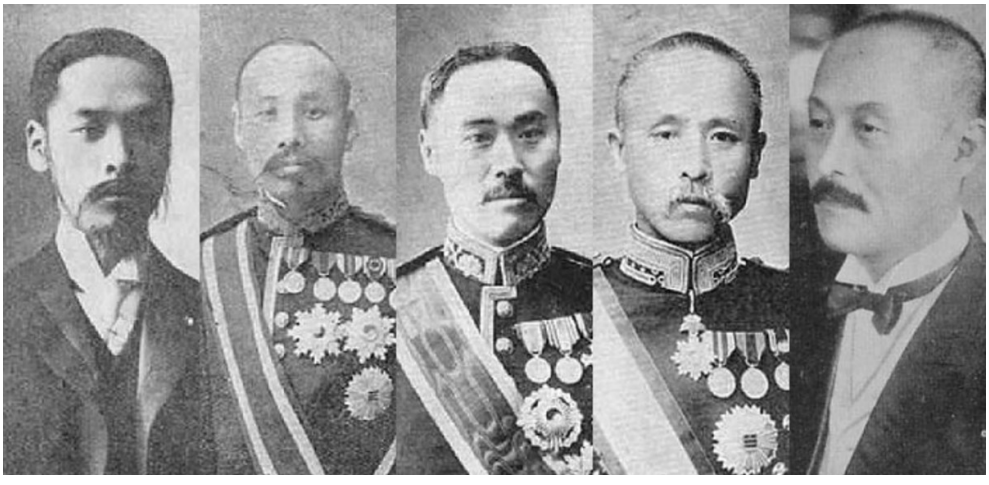
1904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약으로 재정권과 외교권을 잃자 고종 황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해 12월 고종은 주일공사 조민희에게 밀서를 주어 미국에 보냈다. 이듬해 2월 20일에도 이승만을 밀사로 파견하여 미국 워싱턴에서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러시아에도 밀사를 보내 일본에 대한 견제를 요청했지만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외교적 수사만 돌아왔을 뿐 실질적인 도움이나 행동은 전무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러시아는 일본에 연전연패 중이었다.

마지막으로 고종이 보낸 밀사는 이른바 헤이그 밀사였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이상설과 이준, 이위종 세 명의 특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려 했지만 참석 자체도 거부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고종은 8월에 강제 양위(讓位)를 당하게 된다. 7월 18일 황태자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키겠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 결국 8월 24일 양위하고 순종이 즉위했다. 고종은 태황제로 물러났다.[12)]

고종의 퇴위를 강압한 이토 히로부미

1906년 3월 초대 통감으로 취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1907년 5월 22일 을사늑약에 공을 세운 이른바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새 내각을 조각한 것도 이토였다.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궁내부대신으로 삼은 이 내각은 총리대신 이완용, 탁지부대신 고영희, 법무부대신 권중현,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내부대신 임선준, 군부대신 이병무, 학부대신 이재곤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와중에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전문(電文)은 한국 황실과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고종 황제의 밀사를 자처하는



을사오적(왼쪽부터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박제순)

한국인 세 명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헤이그 주재 일본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긴급 전문을 다시 이토 통감에게 전달한 것이다.

7월 3일 이토는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관저로 불러 고종이 밀사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의 초고라는 문서를 흔들며 이완용을 추궁하였다. 이완용은 한때 정동구락부에서 활동하여 친러파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이 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 행위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다.

고종 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도 이토는 문제의 초고라는 것을 들이밀며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토는 고종에게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선전을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에게 통고했다."고 협박했다.

일본 신문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감독을 소홀히 한 이토의 책임론까지 거론하였다. 그러나 실은 이토와 일본은 이 사건을 고종을 퇴위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7월 19일 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내각 대신들은 고종에게 순종의 대리청정을 제안하였고, 고종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받아들인다.[13]

영친왕, 볼모로 일본 유학을 떠나다

고종이 물러선 것은 전례에 따라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과 대신들은 이튿날 곧바로 황제와 황태자도 없는 가운데 내관이 이를 대신하는 양위식을 경운궁 중화전에서 거행하고 이를 외국에 알려 고종의 퇴위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고종에 대한 퇴위 압박 소식이 알려지자 7월 18일부터 대한문 앞과 종로 등지에

이토 히로부미(왼쪽)의 손에 이끌려 일본유학을 떠난 영친왕(오른쪽).

서 군중이 모여 고종의 양위 반대운동을 펼쳤다. 19일에는 반일 단체인 동우회 회원들이 당시 남대문 밖 중림동(약현)에 있었던 이완용의 집으로 몰려가 집을 불살라버렸다. 이 사건으로 가재도구는 물론 고서적 등이 전소하여 이완용은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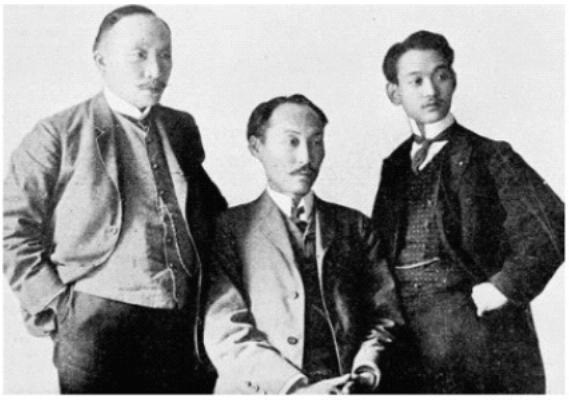
순종이 즉위한 후 십여 일이 지난 9월 7일에는 영친왕이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당시 영친왕은 열한 살이었다. 연장자인 의친왕이 있었지만 순종과 나이가 비슷하여 어린 영친왕이 황태자의 자리에 올랐다. 생모인 엄귀비가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영친왕의 태자 책봉을 강하게 바랐던 것도 한 배경이었다. 황태자에 책봉된 영친왕은 11월 13일 순종을 따라 창덕궁으로 옮겨갔다. 이토는 황태자를 볼모로 삼아 고종과 황귀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스스로 태자태사가 된 이토는 12월 초 황태자를 일본에 데려가 여러 해 동안 유학시켰다.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통해 영친왕을 고분고분한 우호 세력으로 키워낼 속셈도 있었다.[14]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

일성(一醒) 이준(李儁, 1859~1907) 열사는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중산리 발영동에서 부친 이병관(李秉瓘)과 모친 청주 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성장해서는 고향에 북청 학원을 설립, 교육 사업에 종사하다가 상경하여 박영효 등 개화파 인물과 교유하였다. 36세에 법관양성소를 1회로 졸업하였고 한성재판소 검사보로 일하였다. 검사 5년차에 법무대신 이하영을 탄핵할 정도로 올곧고 강직한 성품이었다고 한다.

1895년에는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가담해 활동했으며, 김홍집 내각이 붕괴하자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독립협회와 상동교회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상동교회는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개화파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1902년에는 민영환의 비밀결사인 개혁당에 가담했으며, 1904년 공진회 회장을 지냈다. 공진회 활동으로 유배 생활을 한 뒤, 1905년 국민교육회 회장에 취임하고 보광학교, 오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운동에도 힘썼다.

1906년 4월 고종 황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로부터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초청장을 받았다. 고종은 일제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날 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장충단공원의 이준 동상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이준 등을 특사로 파견한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이 합류하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인 이위종까지 합류하였다. 이위종은 러시아어를 비롯한 서양어에 능통하였다. 헤이그 밀사들은 1907년 6월 25일경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여 숙소 호텔에 태극기를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평화회의 본회의 참석은 봉쇄되었다.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측의 방해로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당시 회의를 취재하던 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 기자들에 의해 보도되었고, 특히 기자단협회 회장인 영국인 스테드(William T. Stead)의 지지로 《평화회의보》에 호소문이 게재되기에 이른다.

7월 9일에는 기자협회에 초청되어 이위종이 '한국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열정적인 연설을 하여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처럼 특사들은 일제에 의해 강요된 을사늑약이 무효임과 함께 일제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했지만,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 급기야 7월 14일에 이준은 순국하고 말았다. 이준의 사인에

서울중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장충단 추모 문화제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위종, 장지연, 박은식 등이 기록한 여러 자료에는 '분사(憤死)'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이위종은 7월 17일 이준의 유해를 헤이그 교외에 자리한 공동묘지에 임시 매장했다가 9월 6일 영구임대 형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3년 이준 열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옮겨와 서울 수유리에 안장하였다. 1964년에는 사단법인 일성회(一醒會)가 이준 열사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장충단공원에 동상을 건립하였다.[15]

본래 장충단은 을미사변과 임오군란으로 순직한 충신과 열사를 제사지내기 위해 1900년 고종 황제가 건립한 현충시설이다.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폐사되었고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는 이곳 일대를 장충단공원이라 이름을 붙이고 공원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상해사변 당시 일본군 결사대로 전사한 일본군 동상과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당인 박문사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 현재의 모습으로 단장하여 지금에 이어져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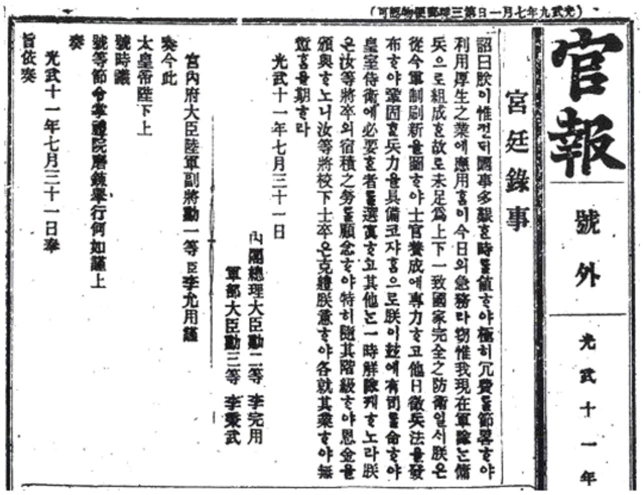
3. 군대해산과 남대문 전투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

일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의 양위를 강제하였다. 이에 앞서 일제는 한국주차군 보병 51연대를 동원하여 경운궁 동쪽 궁문인 포덕문을 장악하고 남산 왜성대에 포병 17연대의 야포를 배치하였다. 또한 대한제국 군부의 화약고와 용산의 육군 화약고를 접수했다. 막강한 무력을 동원하여 고종의 양위 반대 시위를 진압한 일제는 일부 군인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기 위한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제한다.

'한일신협약'이라 불리는 이 조약은 법령권 제정 · 관리 임명권 · 행정권 위임 및 일본인 차관(次官) 채용 등을 강제하는 7개안을 핵심으로 하였으며, 일제가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일본은 이완용 등의 도움으로 이 조약안에 대한 황제의 재가를 받아내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하여 7월 24일 밤 이토의 사저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과 관련한 부속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한국 군대의 해산 · 사법권 · 경찰권의 위임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이로써 대한제국 정부는


(光武九年七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官報 號外 光武十一年

宮廷錄事

詔曰朕이惟컨대國事多艱ᄒᆞᆫ時를値ᄒᆞ야極히冗費를節略ᄒᆞ야利用厚生之業에應用ᄒᆞᆷ이今日의急務라竊惟我現在軍隊는傭兵으로組成ᄒᆞᆫ故로未足爲上下一致國家完全之防衛일ᄉᆡ朕은從今軍制刷新을圖ᄒᆞ야士官養成에專力ᄒᆞ고他日徵兵法을發布ᄒᆞ야鞏固ᄒᆞᆫ兵力을具備코자ᄒᆞᆷ으로朕이玆에有司를命ᄒᆞ야皇室侍衛에必要ᄒᆞᆫ者를選寘ᄒᆞ고其他는一時解隊케ᄒᆞ노라朕은汝等將卒의宿積之勞를顧念ᄒᆞ야特히隨其階級ᄒᆞ야恩金을頒與ᄒᆞ노니汝等將校下士卒은克體朕意ᄒᆞ야各就其業ᄒᆞ야無愆ᄒᆞᆷ을期ᄒᆞ라

光武十一年七月三十一日

內閣總理大臣勳二等 李完用

軍部大臣勳三等 李秉武

宮內府大臣陸軍副將勳一等 臣李允用謹

奏今此

太皇帝陛下上

號時議

號等節令掌禮院磨鍊擧行何如謹上

奏

光武十一年七月三十一日奉

旨依奏

이완용과 이병무의 이름으로 발표된 군대해산 조칙

통감부의 통제 아래 있는 차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군대해산에 따라 국가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져 버렸다.

1907년 7월 31일 일제는 군대해산을 명하는 순종 황제의 조칙을 받아내 이를 총리대신 이완용과 군부대신 이병무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날 밤, 군대해산의 칙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일제는 이완용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회문'을 이토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 병제개혁을 위해서 선포할 조칙을 받들어 군대를 해산할 때에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울러 왕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진압할 것을 각하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대한국 황제폐하의 칙지를 삼가 받은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허수아비 내각의 수반인 이완용을 앞세움으로써 한국 황실이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후일 순종 황제의 조칙 또한 이토와 이완용에 의해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16]

대한제국군은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군대해산 당시의 병력 규모는 채 1만 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산된 병사와 간부에게는 이른바 황제의 하사금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었다. 실은 병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 측이 준비한 것이었다. 하사에게는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졸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병졸에게는 25원 씩 지불되었다.

군대해산은 8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을미사변 직후의 시위대(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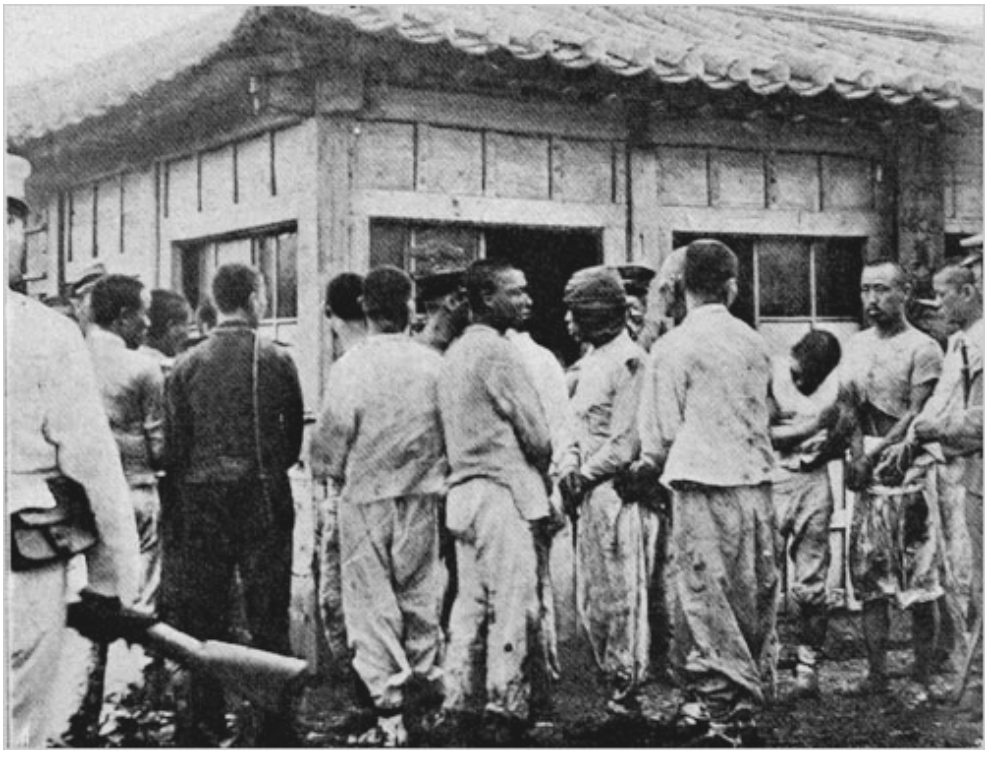
과정에서 황성을 지키는 시위대(侍衛隊) 제1연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이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격분한 시위대 2개 대대가 일본군과 남대문 일대에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군대해산과 한국군의 항전

1907년 8월 1일 오전 10시, 동대문 훈련원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면서 병사와 장교를 소집해 놓고 군부협판 한진창이 순종의 군대해산 칙서를 낭독하였다. 그 후 즉석에서 한 사람씩 계급장을 떼어냈다. 중무장한 일본군 헌병들이 도열하여 병사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날 해산식에 참가한 인원은 근위대로 남아 해산 대상에서 제외된 시위 제2연대 2대대를 뺀 총 1,800여 명으로 상당수 병사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일 아침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 참령이 군대해산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 장병들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해산식이 거행되는 훈련원으로 출발하려고 할 즈음이었다. 지휘관의 죽음에 격분한 장병들은 탄약과 무기를 탈취해 무장하고 병영 주위에 초병을 배치한 뒤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서소문 일대에서 총성이 울리자 남대문 인근에 있던 시위보병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도 호응하여 무장을 되찾았고 육군보병 참위 남상덕의 지휘 하에 일본군과 교전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일본군은 9시 30분경 보병 제51연대 제3대대 전체 병력과 제1, 2대대의 응원 병력을 투입하는 한편, 남대문 성벽 위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구한말 주요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생생하고 깊이 있는 기록을 남긴 매천 황현은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남대문 전투 직후 체포된 대한제국 해산 군인

숭례문에서 쏜 기관포가 천둥처럼 진동하고 성 안팎의 수백 집이 불탔다. … 여학교 간호부 몇 명이 탄환을 무릅쓰고 인력거에 아군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옮겼다. … 장안 백성이 돈을 거둬 전사 장병의 장례를 지내고 곡을 한 뒤 돌아갔다.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과 수적 우위를 견디지 못한 한국군은 10시 50분경 남대문 병영을 점령당한 데 이어 11시 40분경 서소문 병영마저 점령당하고 말았다.

퇴각한 한국군의 일부는 서소문밖 고지 일대를 거점으로 저항을 계속하다가 각지로 흩어져 의병대에 합류함으로써 정미의병의 기초를 놓았다. 황현은 『매천야록』에 "성외로 달아난 자는 모두 의병에 합류했다"고 기록했으며, 송상도는 『기려수필』에 "남은 군대는 각자 흩어졌으며 팔도에 정미의병이 재기하게 되는 것은 이로써이다"라고 썼다.[17]

박승환, 남대문 전투의 불을 붙이다

대한제국 육군 참령(參領, 오늘날의 소령)이자 1907년 일제의 군대해산에 항거하여 자결한 운파(雲坡) 박승환(朴昇煥, 1869~1907)은 1869년 9월 7일 한성부 반촌(泮村)에서 부친 박주표(朴周杓)와 모친 남양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7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896년 9월 28일 무관학교에 입학, 1897년 3월 21일 졸업하고 육군 보병 참위(參尉, 소위)로 임관하였다. 1904년 2월 15일 육군 참령으로 진급하여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을 맡았다.

그는 대한제국군 참령으로 시위연대 제1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07년 7월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 당한 고종 황제를 위해 궁중에 돌입하여 복위 운동을 펴려다가 고종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 중단했다고 한다. 같은 해 8월 1일 군대해산을 위해 대대장 이상의 장교를 일본군 사령부에 집합시키자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고 서소문 병영에 머물러 있다가 군대 해산령이 내려지자 다음의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 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

— 박승환 유서 중에서

대한제국 육군 박승환 참령

1907년 8월 1일 새벽, 정미7조약의 부속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를 일사천리로 해산하기로 계획한 일제는 대대장 이상의 장교를 당시 통감관저로 쓰이고 있던 대관정(大觀亭)으로 집합시켰다. 병을 핑계로 중대장 중 고참인 김재흡을 대리 참석시켰던 박승환은 10시경 부대로 돌아온 김재흡의 보고를 통해 군대해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군인은 국가를 위해 경비함이 직책이어늘 이제 외국이 침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연히 군대를 해산하니, 이는 황제의 뜻이 아니요. 적신이 황명을 위조함이니 내 죽을지언정 명을 받을 수 없다"며 대성통곡을 한 뒤 집무실에서 유서를 쓰고 "대한제국 만세!"를 외친 후 차고 있던 권총으로 자결하였다.[18]

박승환 대대장의 죽음은 부대원들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대대장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고함소리와 함께 제1소대의 위관과 사병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총기와 탄환을 꺼내 일본군에 맞섰다. 이웃한 시위보병대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참위 남상덕은 "대장이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어찌 살아 있을 수 있겠느냐. 적과 한 번 죽기 살기로 싸워 나라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면서 병사들을 이끌고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이 시위대 병영을 향해 포위해 들어올 때도 남상덕은 칼을 빼들고 호령하며 격전을 펼쳤다. 나중에 탄환이 떨어져 많은 장병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남상덕은 끝까지 싸우다가 적의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영빌딩 화단 앞에 설치된 정미의병 발원터 표석

구식 총으로 무장한 한국군 700여 명은 기관총 3문으로 무장한 2개 대대 병력의 일본군에 맞서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처절하게 싸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탄약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능해졌다. 약 3시간 동안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중대장 가지하라를 비롯하여 4명의 전사자와 10여 명의 전상자를 냈으며, 한국군은 참위 남상덕·이충순 등 장교 13명과 준사관, 하사, 병사 57명이 전사하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500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 이날의 전투에 대해 일본군 측에서도 적어도 며칠 동안은 경의를 가지고 한국인들을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평가할 만큼 치열한 전투였다.[19]

박승환 대대장은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2003년 8월 호국인물로 선정되었다. 서울상공회의소 부근 부영빌딩은 박승환 참령이 순국한 곳이자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빌딩 앞에 정미의병 발원터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대한제국군 서울시가 전투지

대한제국군 서울시가 전투지(大韓帝國軍 서울市街 戰鬪地)는 1907년 6월 일제가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대한제국군 시위대 군인들이 무장 봉기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곳이다. 현재의 서울 남대문로 서울상공회의소 일대이다. 대한제국군은 수적 열세와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영을 빼앗긴 뒤 각지로 흩어졌으며, 이후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전쟁으로 발전한 정미의병(丁未義兵)의 초석이 되었다.

통감부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기 위한 조치로 1907년 8월 1일 시위대 병력 전체를 비무장 상태로 훈련원에 모이라고 공지하였다. 이날 아침 일제에 의해 군대 해산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시위대 제1연대 1대대장인 박승환 참령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선택한다. 그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유서를 남겼다.

대대장의 죽음을 목격하고 분격한 1대대 장교와 병사들은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꺼내 일본군과 교전을 시작하였다. 1907년 8월 9일자 《경향신문》은 당시 남대문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20]

1907년경(위)과 1910년경(아래)의 남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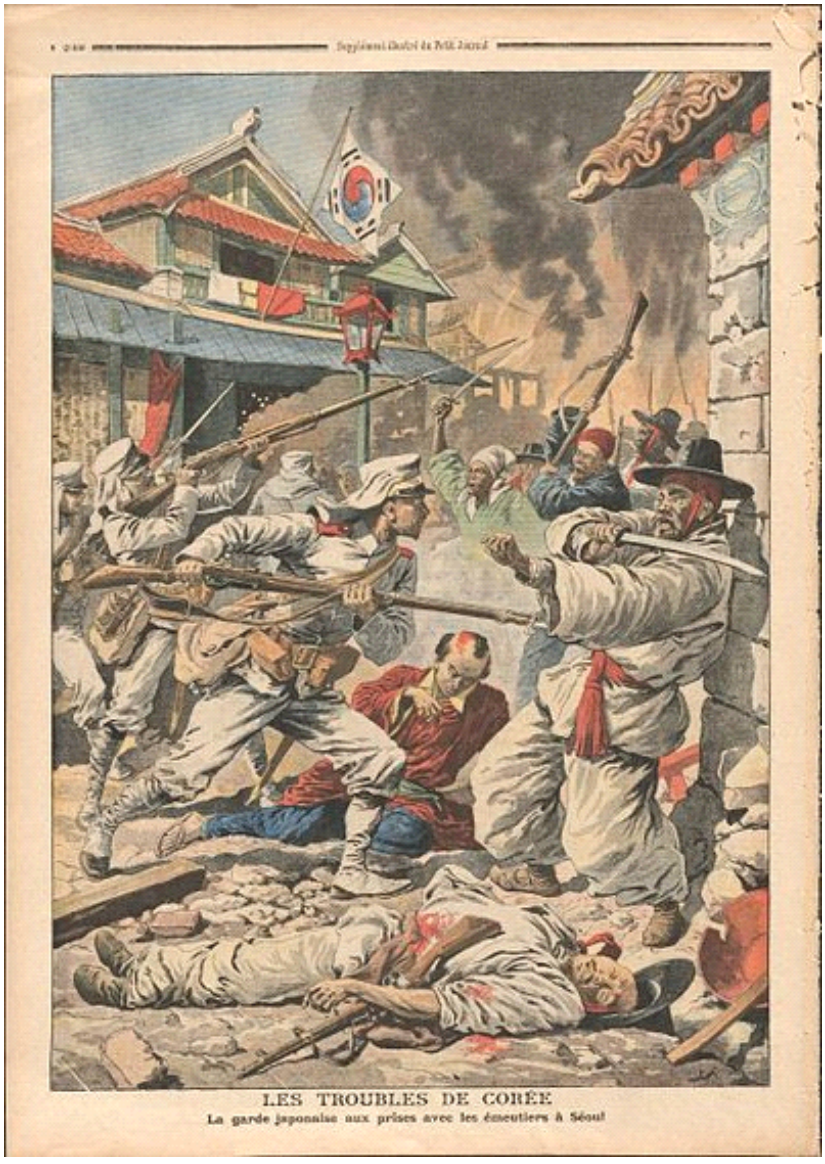
제1연대 1대대가 봉기한 시점에 바로 옆 병영에 있던 제2연대 1대대는 무기를 반납하고 막 해산식장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이때 옆 대대에서 총성과 함성이 들리더니 병사 세 명이 총을 쏘며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제2연대 1대대 병사들도 무기고를 파괴하고 무기를 되찾은 후 일본군과의 격전에 대비하였다. 이때부터 제1연대 1대대와 제2연대 1대대는 일본군과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300여 명의 타 부대원들도 항전에 참여하여 남대문에서 소의문에 이르는 곳곳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시가전이 벌어졌다.

일본군 측은 한국군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병력을 배치했지만 한국군 1개 대대에 1개 중대 정도를 할당한 상황이었다. 제1연대 1대대와 제2연대 1대대에 각각 일본군 보병 제51연대 제3대대 10중대와 9중대가 배치되었다. 여기에 공병대와 기관총 부대가 더해졌다. 전황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자 일본군은 증원군을 요청하였고, 9시 30분경 대기 중이던 10중대 전 병력이 추가 투입되었다.

일본군은 남대문 문루 위에 2정의 기관총을 설치하고 시위대 병영에 대한 제압 사격을 가하였다. 당시 서울에서 남대문과 동대문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시위대 병영은 남대문 근처에 있었는데, 성루에 설치한 기관총의 사정거리 안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서울상공회의소 앞 화단에 설치된 안내문

일본군 9중대는 10시 20분경부터 기관총을 앞세워 제2연대 1대대 병영 뒷문을 향해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이에 한국군은 벽과 철문을 이용해 방어하면서 응전하였다. 한국군의 완강한 저항에 고전이 계속되자 일본군 지도부는 증원부대로 12중대와 7중대 병력을 추가 투입하였다. 12중대는 9중대와 함께 한국군 제2연대 1대대를 공격했다. 이때 가지와라 중대장의 지휘에 따라 병영에 진입하던 9중대는 집



프랑스 언론 《르 프티 주르날》에 실린 남대문 전투 삽화

중 사격에 노출되었고 한국군의 총에 맞아 가지와라가 절명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벽 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다. 일본 공병대가 설치한 폭약이 폭발한 것이다. 화염과 연기에 한국군이 당황하는 틈을 타 일본군 7중대와 12중대가 잇따라 병영 안으로 돌진하였고 한국군은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지만 10시 50분경 결국 함락당하

고 말았다.

남은 것은 이제 제1연대 1대대뿐이었다. 앞서 제2연대 1대대를 상대했던 일본군 제7, 9, 12중대와 공병대가 연합하여 한국군 제1연대 1대대로 총부리를 돌렸다. 이에 기세가 오른 일본군 10중대가 총공세를 시도하였다. 한국군 병사들은 최후까지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적 열세에다 탄약도 모두 떨어져 11시 50분경 병영을 점령당하고 말았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화력이었다. 대한제국군이 가지고 있던 중화기들은 모두 일본군이 점령한 타 병영에 있어 사용할 수 없었고, 소총도 단발소총이라 5연발 소총을 사용하는 일본군에 비해 현격한 열세였다.

전투의 결과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본 측의 기록을 따르면 일본군은 확실한 전사자 4명을 포함해 30~40명의 부상자를 기록한 반면, 대한제국군은 68명의 전사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 516명의 포로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시위대 2개 대대의 전체 인원이 장교와 사병을 합쳐 1,220명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최대 550명가량이 탈출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미의병으로 항일전선에 나섰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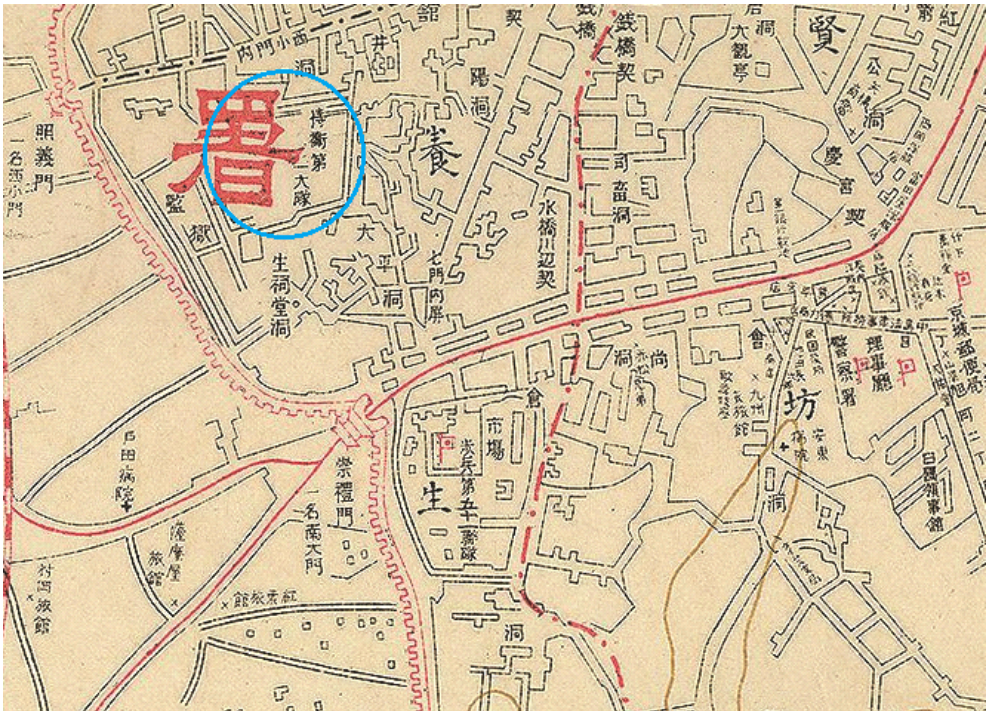
대한제국군 시위병영 터

시위병영(侍衛兵營) 터는 조선 말기 군부대신의 지휘 아래 국왕과 궁궐을 호위하는 시위대(侍衛隊)가 주둔했던 병영이 있던 곳이다.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시위대는 1895년(고종 32) 5월 25일 칙령 제120호에 따라 편성되었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을 때 이에 반발하여 무기를 들고 저항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인 의병 봉기에 합류함으로써 정미의병의 정예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위대는 대한제국 시기 황성인 경운궁을 수비하던 중앙군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개화파 정부는 종래의 여러 군영을 군무아문에 소속시켜 일원화하였다가, 이듬해 모두 해산하고 일본식 신식군대인 훈련대로 재편성하였다. 그러나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군부대신의 감독 하에 왕궁 시위를 담당하는 시위대 2개 대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들 시위대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일본 세력에 의해 동원된 훈련대와 충돌한 일로 해산되어 훈련대에 편입되었다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한 직후인 1897년 9월 30일 재조직되었다.

남대문 전투 직후 일본군에 점령된 시위대 병영



대한제국군 시위 1대대 병영 위치

시위대는 훈련대의 후신으로 조직된 친위대에서 정병을 선발해 5개 중대로 편성하고 러시아식 신병 훈련을 실시하였다. 1899년에는 1개 대대가 증설되어 보병 2개 연대, 기병 1개 중대, 포병 1개 중대와 군악대를 합쳐 총병력 5,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05년 4월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의 압력으로 꾸준히 감축되다가 1907년 8월 강제 해산을 당하였다.[22]

대한제국 최후의 군인 이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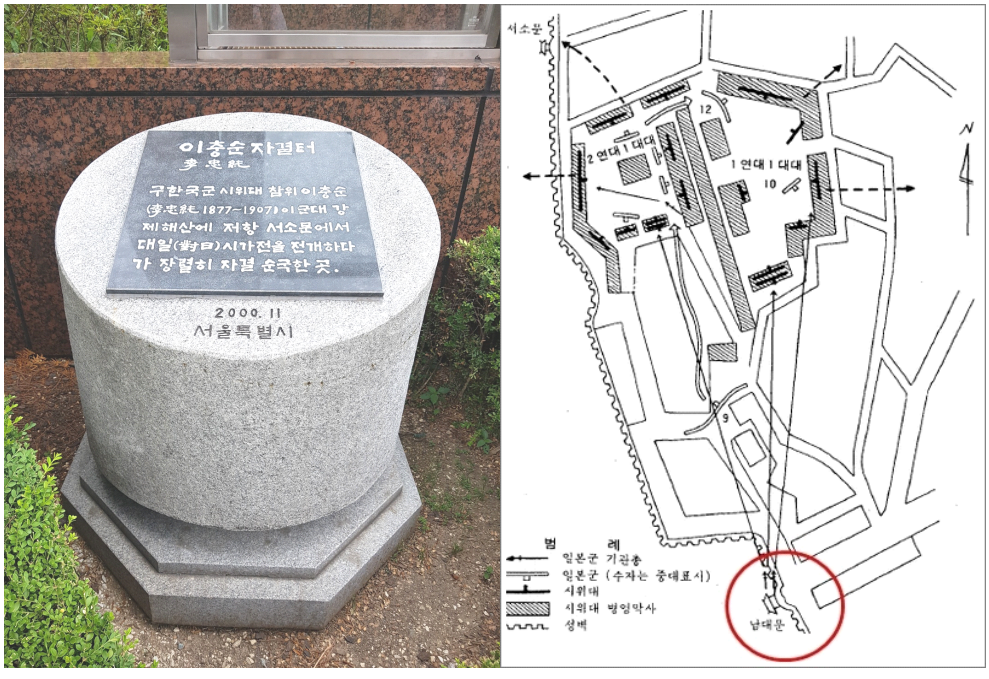
이충순(李忠純, 1877~1907) 자결터는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 군대에 대한 강제 해산령이 내려지자 이에 저항한 한국군 시위대 2개 대대의 무장 봉기에 참여했던 위관 이충순이 자결 순국한 곳이다.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8 중앙일보 빌딩 앞 근처이다.

이충순은 한말의 의병이자 애국지사로 충청남도 홍성 출신이다. 일찍부터 군문(軍門)에 들어가 1902년 7월에 육군 보병 참위(參尉, 대한제국 시기 위관 계급 중 하나)로 임관되었으며 왕과 궁성을 호위하는 시위대에서 복무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에는 뜻이 통하는 동료들과 함께 군인구락부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1907년 8월 1일 정미7조약에 부속하는 각서에 따라 군대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이충순 참위는 이에 불복하여 무장 봉기하고 일본군과 싸웠다.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가 합세하여 일본군과 남대문과 서소문 곳곳에서 교전하던 중 부상을 입었으며, 적에게 사로잡히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충순은 자결함으로써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피하였다.

약 세 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병영을 빼앗기고 퇴각한 시위대 군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태평동, 축동 쪽으로 피신하여 군복을 벗고 민가에 숨었고, 일부 병사들은 서소문 밖으로 달아나 약현성당 인근인 중림동에 은신하였다. 일본군은 민가로 숨어든 한국군 병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전을 펼쳤는데, 당시 이들이 수색과정에서 보인 잔학성에 대해 《대한매일신보》는 '혈탐성(血貪性)'이라 보도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충순의 공훈을 기려 1977년 건국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중앙일보 빌딩 앞 화단에는 2000년 11월 서울시에서 설치한 표지석이 자리하고 있다.[23]



이충순 자결터 표석과 남대문 전투 상황도(출처: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의병항쟁사 9》)

한국 최초 여성전문병원 '보구여관'

보구여관(普救女館) 터는 1887년 미국 북감리회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 있던 곳이다. 보구여관은 한국 여성 의료사업의 시초가 되었고, 많은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였다. 보구여관 간호원들은 군대해산 때 시가전을 벌인 대한제국군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것으로도 역사에 기록되었다.

보구여관은 1885년부터 '시병원(施病院)'을 개설하여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스크랜튼(Scranton, W.B. 1856~1922)의 요청에 따라 세워진 병원이다. 그는 남녀 구분이 엄격한 풍속 때문에 남녀가 한 공간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조선 사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국 북감리회 여성해외선교회에 여의사 파견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따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887년 10월 메타 하워드(Miss Meta Howard)가 파견되었고 시병원과 가까운 곳에 보구여관이 설립되었다. 이것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모체가 되었다.

하워드 여사는 한국에 처음 부임한 후 10개월 동안 1,137명, 이듬해 1,423명의 환자를 진료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결국 과로로 건강을 잃은 하워드 여사는 1889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워드 여사의 후임이 오기까지는

보구여관 터 안내판

스크랜튼이 1년여 남짓 보구여관을 맡아 돌보았다. 마침내 1890년 10월 셔우드(Sherwood, R.) 여사가 새로 부임하였고 첫 10개월 동안 2,3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82 차례의 왕진을 실시하는 등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정열적으로 활동하였다.

1892년부터는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여성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이화학당 학생 4명과 일본인 여인 1명으로 이루어진 의학 훈련반을 만들어 이들에게 기초 의학훈련을 시켰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김 에스더(결혼 후 박 에스더라고 불림)는 1896년 10월 미국 유학을 떠나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의학 수업을 받았으며, 1900년 의학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귀국 후 김 에스더는 보구여관과 평양의 감리교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한국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1902년 내한하여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에드먼즈(Edmunds, M. J.) 여사는 1903년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여 간호원 교육에 힘썼다. 이 양성소는 뒤에 동대문병원으로 이전하였고 1906년 설립된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양성학교에 통합되었는데, 그때까지 보구여관 내 간호원양성학교에서 60여 명의 간호원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근대 초기 의료인 양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후 정동에 있던 이화학당이 커지고 보구여관도 현대식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1909년 동대문 위쪽에 현대식 부인병원 건물을 착공하여 1912년 준공하였다. 병원의 이름은 '해리스 기념병원(The Lillian Harris Memorial Hospital)'이라 불렸는데, 1897년 10월 내한하여 5년간 서울과 평양에서 한국 여성들을 진료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의 에드먼즈 교장과 학생들(1906년)

하는 일을 하다가 1902년 5월 사망한 해리스 여사를 기념한 것이었다. 정동 보구여관 건물은 1921년 이화유치원을 건축하면서 사라졌다.[24]

한편 군대해산과 관련하여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4일자(국문판)에는 당시 보구여관 간호원들의 활약상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은 1907년 8월 1일 단행된 군대해산에 맞서 대한제국군 병사들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남대문 일대에서 시가전을 벌였던 때의 일이다.

"〈여학도 의리〉 삼작일에 한일병이 접전할 때에 부상한 한국병정들을 남문밖 제중원에서 데려다가 치료한단 말은 이왕에 게재하였거니와 해원에 있는 남녀간호원과 보구여관에 있는 간호원들이 지성으로 구호함은 다 말할 수 없거니와 연동여중학교에 있는 여학도들이 모여 서로 의론 왈 저 동포들은 나라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있는데 우리는 비록 여자나 어찌 의리가 없으리오 하고 그날 밤부터 제중원에 일제히 가서 부상한 장졸을 열심으로 간호하매 그 장졸들도 여학도의 의리를 감복하야

눈물을 흘리며 치하하고 또 그날에 반양복한 여자 하나가 능히 영어와 일어를 통하며 탄환을 무릅쓰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동포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누가 구하리 하고 친히 좇아다니며 상한 병정을 사면으로 찾아서 병원으로 메어갔고 또 한국 간호부 하나는 전장 속에서 상한 병정을 구호하기로 온몸에 피가 묻었으매 보는 자들이 감동하야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더라."[25]

2장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는 동안 일제의 침탈을 저지하고 국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이 나라 안팎에서 전개되었다. 스스로 목숨을 던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순국열사들도 많았으며, 가산을 처분하여 만주 등지로 망명을 떠나거나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직접적인 독립전쟁을 벌인 명문가들도 많았다. 신민회와 같은 비밀결사를 만들어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침략의 원흉들을 공격하거나 일제에 협력하여 나라를 팔아넘긴 민족 반역자들을 응징하는 의열투쟁도 잇달았다. 1907년에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등 을사늑약의 체결에 찬성한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이 조직되는가 하면, 멀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08년 장인환, 전명운 의사가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었던 친일파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의거를 감행, 성공하기도 하였다.

1909년 국권 침탈이 더욱 노골화하는 상황 속에서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에서 대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여 대한 청년의 의

기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2일 이재명 의사는 일제의 한국 침략에 적극 부역한 이완용을 향해 응징의 칼을 빼들어 부패하고 무능한 매국 관료들에 대한 민초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었다.

1907년 7월 31일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조칙을 발표하고 이튿날 곧바로 해산식을 진행하였다. 해산당한 군인들의 일부가 봉기하여 의병운동에 합류, 의병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된 의병전쟁은 대일(對日) 전면전으로 격화되었다.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의병 항전은 1909년 9월,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에 밀려 기세가 꺾인다.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이 어려워지자 상당수는 지속적인 항일 활동을 위해 만주나 시베리아로 이주, 망명하게 되었다.

한편 자발적인 시민 단체를 조직하여 애국계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1907년 안창호의 발기로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이동녕 등이 창립위원이 되고 신채호, 이회영, 이시영, 이상재, 윤치호 김구, 박은식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신민회(新民會)가 대표적이다.

신민회는 의병운동을 지지했지만 일본군과 싸울 만한 현대적 무기와 군사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신민회가 국외의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의병운동이 한풀 꺾여 퇴조기에 들어간 1909년 초 무렵이었다. 신민회는 총감독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기지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1910년 3월, 신민회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독립전쟁전략'을 채택하고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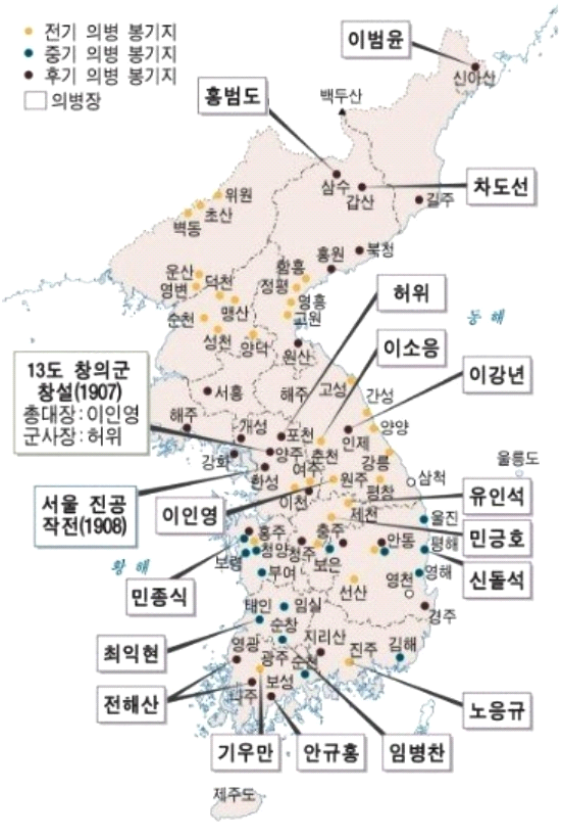
1. 정미의병의 서울진공작전

정미의병의 특징

정미의병(丁未義兵, 1907)이라 함은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의병 활동으로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의 체결, 군대해산 등을 계기로 일어난 일련의 항일 무장투쟁의 총칭이다. 일제는 한국 식민화의 최대 걸림돌이던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을 8월 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단행하였다. 이때 상당수의 한국 군인은 군대해산에 반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뒤 의병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의병전쟁은 대일 전면전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우리나라 의병운동은 크게 을미의병(1895)과 을사의병(1905), 그리고 정미의병으로 나뉜다.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단발령, 변복령 등이 주요 원인이었고,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정미의병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지방의 명문가를 비롯하여 민간에서 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의병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무기가 좋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인원이 여러 곳에서 봉기하였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정미의병은 군



정미의병의 활동 지역과 의병대장

대해산에 대한 반발로 상당수 군인들이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신식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해산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의병 항쟁은 더욱 체계화되었다. 또한 분산되어 있던 의병 부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제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연합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관동 의병대장 이인영(李麟榮, 1868~1909)이 중심이 되어 전라, 충청, 경기, 경상, 강원, 평안, 함경도 등 13도 의병 부대가 양주에 결집하였다. 이들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삼고 13도창의군을 조직하기에 이르렀고, 의병연합군은 서울로 진격하여 일제 침략의 중심 기관인 통감부를 타격하고 일본과 맺은 조약 파기, 친일 정부의 축출 등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26]

13도 연합군의 서울진공작전

이인영은 원주를 거점으로 하는 관동 창의대장에 오른 뒤 격문을 띄워 의병들을 모집하는 한편, 김세영을 서울로 잠입시켜 격문을 등사해 각국 영사관에 전달하여 항일의병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호소한 인물이다. 원주를 떠난 이인영은 의병 규합에 진력하면서 각 도의 의병부대에 격문을 띄워 11월 경기도 양주에 함께 집결토록 하였다. 이에 호응한 각 도의 의병대는 '13도창의대진소'를 설치하고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였다.

13도창의대진소는 다음과 같이 편제되었다. 13도 연합군 총대장 이인영, 전라 창의대장 문태수, 호서 창의대장 이강년, 교남 창의대장 신돌석, 진동 창의대장 허위, 아장 박정빈, 관동 창의대장 민긍호, 관서 창의대장 방인관, 관북 창의대장 정봉준.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육박하였고 그중에는 군사훈련은 물론 실전 경험을 갖춘 해산 군인 3,0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뒤 원수부 13도창의대진소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 창의대장 민긍호, 호서 창의대장 이강년, 교남 창의대장 박정빈, 진동 창의대장 권중희, 관서 창의대장 방인관, 관북창의대장 정봉준으로 개편되었다. 개편 후의 의병장들은 모두 양반 유생 신분으로서 천민 출신의 용장인 신돌석 등이 배제되었다. 또한 홍범도·김수민 등 평민 출신 의병장도 연합전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들의 한계가 드러난 뼈아픈 결정이었다.

이들은 11월부터 서울 진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기 일대에서 활발한 의병 활

서울시 중랑구 망우리공원 입구의 13도창의군 탑

동을 전개하여 동대문 밖 30리 지점인 망우리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1908년 1월 말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의 부음을 듣고 군사장이자 진동 창의대장인 허위(許蔿, 1854~1908)에게 군사 지휘권을 넘기고 고향인 문경으로 떠나고 말았다. 2대 총대장이 된 허위는 제2차 서울탈환작전을 펼쳐 서울 근교까지 접근했지만 패퇴하고 말았다.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의병을 일으킨 허위는 조인환, 권준 등과 연합하여 지속적인 유격전을 펼치며 저항했고 거듭되는 회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의병장 허위는 1908년 6월 11일 양평 유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0월 21일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고초를 겪은 서대문형무소, 당시 경성감옥의 1호 사형수로 교형이 집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62년 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서울 동대문구의 왕산로는 의병장 허위의 호를 따서 지은 것이다. 한편 1909년 6월에는 이인영도 일본군에게 잡혀 동년 9월에 순국하였다.[27)]

13도 연합군의 서울 진공 작전은 분산되어 있던 의병 부대가 전국적인 연합 작전을 펼친 최초의 사건이었으나 유교적인 충효 관념과 신분제에 얽매이는 등 여러 한계를 보이며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의병 투쟁은 계속되었다.

13도창의군의 타격 목표였던 통감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에 있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일대는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1906년에 설치한 한국통감부가 있던 곳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이곳에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좌지우지하고 끝내는 국권을 빼앗았던 치욕의 장소이다.

통감부(統監府, Resident-General)는 일제가 을사조약을 체결한 뒤 대한제국 한성부에 설치했던 정치와 군사 관련 업무를 보는 관청이다. 형태는 대한제국 정부에 자문 또는 섭정을 하는 형식이었고 한국통감부 또는 조선통감부라고도 불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한국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고스란히 전환되어 청사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1926년 신청사를 건립한 후에야 조선총독부는 남산 자락을 떠나 경복궁 내로 옮겨갔다.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한국 병탄의 예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 박탈을 노골화하였다. 일제는 을사조약의 내용 중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

남산 북쪽 자락에 있던 한국통감부

하를 내알하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조항에 의거 1906년 1월 31일자로 일본 공사관을 폐쇄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의 직속 기관으로서,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감은 일본 천황에 의해 임명되며 대한제국과 황실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직급 상으로는 천황에 버금가는 원수급 예우를 받았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조약 내용에 따르면 통감부는 외교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결국에는 한국의 내정 전반을 마음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되었다.

역대 한국통감과 재임 기간

1대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906년 3월 2일~1909년 6월 14일

2대 :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1909년 6월 14일~1910년 5월 30일

3대 :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910년 5월 30일~1910년 8월 29일

통감부를 예비 작업으로 삼아 후일 일제는 고문정치와 차관정치의 형태를 이용해 결국 한국 정부에 깊이 침탈하였다. 정미의병 연합군인 13도창의군이 서울로 진격하여 통감부를 타격하고 일본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28]

2. 비밀결사 신민회

신민회의 창설과 지향

을사늑약 이후 국내에서는 항일 활동은 물론 합법적인 정치 활동조차 점점 더 어려워졌다. 통감부를 정점으로 하는 일제 경찰과 군대의 일상적인 탄압과 함께 신문법, 보안법 등에 의한 규제와 감시가 한층 노골화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운동가들 사이에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구국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회영 등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운동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독립협회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활동하던 도산 안창호는 1905년 귀국하여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등의《대한매일신보》계열과 윤치호, 이상재, 전덕기 등의 YMCA와 상동교회 계열, 이동휘, 유동열 등 무관 계열 등을 한데 묶어 신민회라는 단일한 전국 조직을 규합해냈다.

1907년경 결성된 신민회는 처음에는 실력 양성 운동에 힘을 쏟았다. 비밀결사를 표방하고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동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 4대 행동 강령을 보면, 첫째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둘째 동지를 발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 역량을 축적할 것, 셋째

창립총회를 기념하여 찍은 신민회 회원들의 사진

상공업 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富力)을 증진할 것, 넷째 교육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을 진흥할 것 등으로 신민회 활동이 애국계몽운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간회는 국권 회복을 통해 건설해야 할 국가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신간회가 채택한 취지문을 살펴보자.

> 슬프다, 동포여! 아는가 모르는가. 꿈을 깨였는가. 수 평의 초가집도 나의 집이 아니며, 수 무의 산소도 나의 땅이 아니며, 문전의 뽕나무와 석류도 나의 초목이 아니며, 동구 밖의 시냇물도 나의 물이 아니다. 오호라!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내가 죽고자 하면 이 나라를 어디다 버려두며, 내가 숨고자 할진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찌 일시적 비분으로써 분연히 자결을 기도하며, 또한 염세적 비판으로써 호연 은거함으로 돌아갈 바이랴. 신민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남이요?
>
> 민습의 완고 부패에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미에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의 냉

각에 신제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쇠퇴에 신수양이 시급하며, 도덕의 타락에 신윤리가 시급하며, 문화의 쇠퇴에 신학술이 시급하며, 실업의 조췌에 신모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신개혁이 시급이라. 천만 가지 일에 신(新)을 기다리지 않는 바 없도다.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가 원하는 바이며 신민회가 품어 생각하는 소이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한을 사랑하며, 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한을 보호하겠는가.

과거 4천년, 구한국의 말년에 망국혼을 지으려는가. 장래 억만년 신한국의 초년의 흥국민(興國民)을 지으려는가. 오라! 우리 대한신민이여![29]

이상에서 보듯 신간회는 공화정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그 방법으로는 개인의 행동 개조와 사상 개혁을 가장 먼저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8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세를 확장한 신민회는 교육, 언론 및 출판, 민족 산업 육성, 독립군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신민회는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통감부의 눈을 피해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신민회 활동의 1차적 목표는 민족의 자주적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국민 역량을 기르는 데 있었기 때문에 민족 교육의 추진, 민족 산업의 육성, 민족 문화의 계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을 설립하였고, 다양한 회사와 태극서관을 운영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사 등을 운영하여 국민 계몽에 앞장섰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와 무장투쟁 준비

그렇다고 신민회가 의병운동을 비롯한 무장투쟁을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일본군과 싸울 현대식 훈련과 무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 회의적이었을 뿐이다. 1909년 초부터 신민회는 장기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압송되는 신민회 회원들

세워 이듬해 4월 '청도회의'를 열어 국외 독립군기지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1910년 12월에는 양기탁의 집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서간도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한인을 집단 이주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독립운동에 뜻을 둔 사람들을 만주 삼원보에 이주시켜 한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고, 이곳에 농장을 가꾸어 경제력을 기르는 한편, 신흥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에도 힘썼으며, 군사학교를 세워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등 독립을 위한 힘과 역량을 기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신민회의 이러한 활동은 이후 전개된 국외 무장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105인 사건과 신민회의 해체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일제는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창호, 윤치호, 양기탁, 이동휘 등 신민회 주요 인사들이 검거되었다. 일제 당국이 신민회의 존재를 감지한 것은 1909년 3월경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에 일본은 신민회

를 애국계몽운동 단체로만 인식하였다. 교육을 통해 실력 양성을 주창하는 안창호를 비롯한 교육운동가들이 암살과 무장투쟁을 목적으로 단체로 결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과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응징 시도 등의 사건에 서북 지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배후 비밀조직의 존재를 추측하고 '105인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다. 105인 사건이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 105인이라 하여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했으나 일본은 이 사건을 명목으로 많은 신민회 회원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앞서 1910년 11월 황해도 신천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던 안명근이 체포되는 '안악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민회의 실체를 포착하였다. 심문과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국외 독립군기지 건설과 무장 암살 계획을 구상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신민회가 1910년대 이후 간도, 상해 및 밀산 등지에서 독립군 양성을 위해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여 신흥무관학교, 동림무관학교 등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살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따라서 이는 105인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이다.[30]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명문가'

서울 중구 명동11길 20번지 서울YWCA 마당은 이회영·이시영 6형제의 집터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이 만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이회영은 조선시대의 명신(名臣)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후손으로 형제들과 함께 전 재산을 정리하여 독립운동에 쾌척하고 만주로 망명, 평생을 독립을 위해 싸운 인물이다.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1867~1932)은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넷째 아들로 서울 명동에서 태어났다. 위로 건영, 석영, 철영 등 세 형이 있었고, 아래로 시영과 호영 두 동생이 있었다. 이회영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이갑·전덕기·양기탁·이동녕·신채호 등과 함께 조직한 비밀결사 신민회의 중앙위원으로 활약하였고 만주에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할 것을 협의하여 간도 용정촌에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된 이후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자 이회영은 형제들과 함께 논의하여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여섯 대가족의 망명 준비는 쉽지 않았다.

우당 이회영 선생과 명동에 조성된 '우당 이회영 길'

1908년 상동교회에서 우당과 재혼한 부인 이은숙(李恩淑) 여사는 남편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서전 『서간도 시종기』로 남겼는데 당시의 갑작스런 망명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였다.

> 여러 형제분이 일시에 합력하여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부동산을 방매(放賣)하는데 여러 집이 일시에 방매를 하느라 이 얼마나 극난하리오. 그 때만 해도 여러 형제 집이 예전 대가(大家)의 범절로 남종 여비가 무수하여 하속(下屬)의 입을 막을 수 없는 데다 한편 조사는 심했다.

촉박한 시일에 급히 처분하다 보니 제값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일가가 전 가산을 정리해 마련한 자금은 40여만 원으로 당시 3원 정도이던 쌀 한 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현재 돈으론 대략 600억 원이 넘는 거금이라고 한다.[31]

명동 서울YWCA 입구에 설치된 이회영 선생 집터 표석과 흉상

1907년 우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을사늑약 체결의 불법성과 강압성을 폭로하려는 계획을 관여하기도 하였다. 고종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헤이그로 밀사를 보내지만 통감부 측에 적발되면서 이는 고종 퇴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상설이 특사로 파견되자 우당은 서전서숙의 경영을 위해 여준을 만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자금난과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1907년 10월경 문을 닫고 말았다.

그 뒤 우당은 헤이그 특사로 다녀온 이상설을 만나기 위해 비밀리에 만주에 다녀왔다. 1908년 이상설과 운동 방책을 협의하여 이상설은 국외에서 활동하고 국내 활동은 자신이 담당하기로 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교육진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 동지들을 평양 대성학교, 안동 협동학교, 정주 오산학교 등 각 학교에 파견하고, 자신도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의 학감으로 취임, 교육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후 독립군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고, 오세창·한용

운·이상재 등과 고종의 국외 망명을 계획, 시종 이교영을 통하여 고종에게 상주하여 승낙을 얻었으나, 1919년 1월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3·1만세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었으나 이회영은 의견 차이로 상해에 머무르지 않고 북경에 체류하며 활동을 계속하였다. 1932년 상해사변이 일어나자 행동강령으로 일본 군기관 및 수송기관 파괴, 일본 요인 및 친일파 숙청, 일본 외교기관 폭파 등을 결정하고, 중국 국민당과 교섭하여 자금과 무기 지원을 확약받았다. 그해 11월 만주에 연락 근거지를 확보하고 지하 공작망을 조직, 만주 주둔 일본 군사령관 암살을 목적으로 상해에서 대련으로 향하던 중, 대련의 일본 수상경찰에 잡혀 악독한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32]

한편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광복 후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전횡에 반대하여 1951년 5월 9일 국회에 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승만 정부를 떠났다. 이어 1952년 8월 5일 시행된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민주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33]

독립운동에 앞장선 전덕기 목사

전덕기(全德基, 1875~1914)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요람으로서 크게 공헌한 상동교회에서 시무한 목사이자 독립운동가다. 아홉 살 때 부모를 여의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전덕기는 1892년 선교사 스크랜튼 목사에게 감화를 받아 1896년 세례를 받고 상동교회에 입교하였다.

종교인으로서 전덕기는 그 자신이 고아이자 서민 출신이었고 남대문 인근에서 생활하면서 민중의 애환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였다. 그 결과 그가 일하는 상동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이 몰려들면서 서울 내에서 영향력이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1896년에는 서재필 박사가 조직한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이 협회의 핵심 간부로 독립운동가들과 친교를 나누었다. 독립협회 해산 뒤에는 상동교회에서 스크랜튼을 도와 목회에 전념했는데, 1900년 상동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에서 '유사(有司)'로서 재정 업무를 맡았으며, 1901년에는 '권사(勸師)'에 임명되었다. 1902년 미국 감리교선교회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고 본격적인

전덕기 목사(출처: 상동교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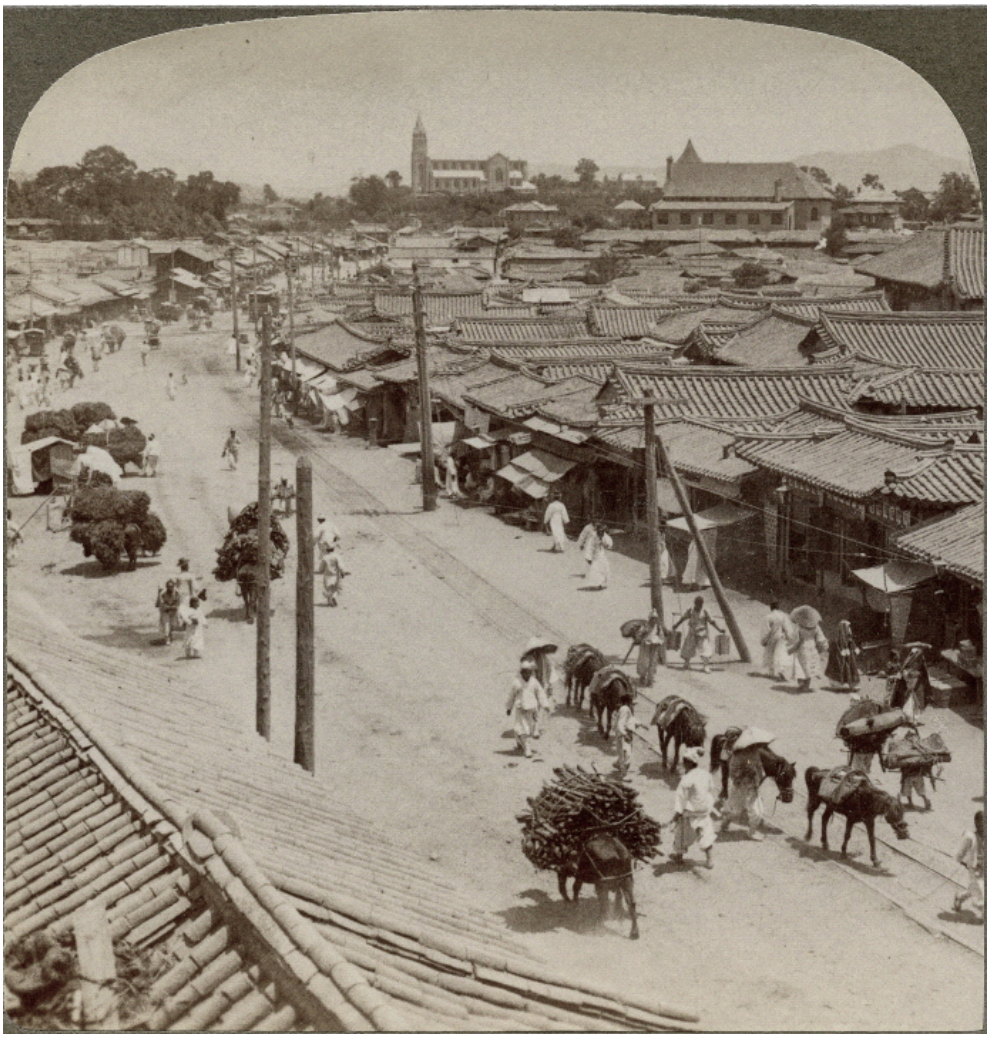
목회 활동에 나섰다. 1907년 감리교 연회(年會)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목사가 되면서 상동교회를 '민족운동의 요람'으로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덕기 전도사는 전국감리교청년회연합회(당시의 '엡웰 청년회')를 소집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을사조약 무효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어깨에 도끼를 메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나가 시위하면서 조약 무효 상소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약 체결에 협조한 을사오적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해 정순만과 더불어 평안도 출신 장사 수십 명을 서울에 불러들여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 계획은 일본 경찰에 의해 사전 발각되어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상동교회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전덕기 목사가 있었다. 1904년 그가 상동교회 안에 세운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은 많은 애국 청년들을 길러낸 민족운동의 요람이었다.

1907년에는 이준 열사과 더불어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헤이그 특사 파견 계획을 모의하여 성사시켰다. 또한 같은 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결사 독립운



숭례문 문루에서 바라본 남대문로. 사진 위쪽으로 명동성당과 상동교회가 보인다.

동 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는 데도 참여하여 안창호, 윤치호, 이회영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 시기 그와 함께 활동한 독립운동가들로는 백범 김구, 최재학, 이준, 이동녕 등이 있다. 이때부터 전덕기와 상동파는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동휘, 노백린, 안태국, 남궁억, 신채호, 최광옥, 차병수, 이승훈, 이상설, 최남선, 이상재, 김진호, 양기탁, 주시경, 이회영, 유일선, 이승만 등이 그와 함께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전덕기 목사에게 신앙과 민족은 하나였다. 그는 자주독립·자유민권사상과 자강개혁운동은 기독교 복음과 일치함을 깨달았고 그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민족운동과 직결되었다. 1912년 '105인 사건'으로 불리는 신민회 탄압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도 이 사건의 혐의를 받고 붙잡혀 일제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다. 지병이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전덕기 목사가 별세하자 인근 남대문시장의 상인은 물론, 기생과 걸인들까지 통곡하며 상여꾼을 자청했으며 그 인파가 10리 밖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전덕기 목사가 떠난 뒤에도 상동교회의 민족운동은 계속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34]

독립운동가의 산실, 상동교회

상동교회는 1885년 조선에 들어온 한국 감리교 최초의 의료선교사인 스크랜턴(Scranton, W.B.)이 1888년 서울 남대문로에 세운 교회이다. 스크랜턴 목사는 정동교회 근처에 정동 감리교병원을 설립하여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다가 의료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남대문 근처인 지금의 상동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약국과 병원을 차려 의료선교를 시작하였다.

1893년 이 병원교회가 정식 구역회로 승격되어 스크랜턴이 담임목사로 임명되었으며, 1895년 정동병원을 상동병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상동교회 자리는 병원으로만 사용하고 교회는 지금의 한국은행 자리인 달성궁으로 옮겨져 비로소 교회와 병원이 분리되었다. 1900년 7월 상동병원이 세브란스병원과 통합되자 그 자리에 현대식 교회 건물을 착공, 1901년 6월 준공하여 교회를 옮겼다. 1902년부터 전도사 전덕기가 교회 업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덕기를 중심으로 한 조약 무효투쟁이 전개되어, 김구(金九)·이준(李儁) 등의 독립 운동가들이 상동교회에 자주 드나들었고, 1907년에는 이곳 지하실에서 헤이그 특사 파견에 관한 모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이곳에

1900년대 초의 상동교회

서 신민회 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동교회는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등교육기관으로 상동청년학원을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로써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청년운동 그룹이 형성되어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상동파'로 불리는 이 그룹 안에서 헤이그 밀사 사건의 기획과 실천이 이뤄졌다. 또한 주시경 선생의 주도로 민족운동 차원에서 한글 보급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던 중 전덕기 목사가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 끝에 신병을 얻어 1914년 순직하였고 일경의 눈엣가시 같았던 상동청년학원도 폐교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상동교회의 독립운동은 계속 이어져,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 최석모, 오화영, 이필주, 신석구 4명이 상동교회 출신이다.

일제강점 말엽에 이르러 상동교회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혹해져 급기야 1944년

현재의 상동교회

3월에는 교회가 폐쇄되고 일제의 신사 참배와 소위 황도정신(皇道精神)의 훈련장인 황도문화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재건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교회 건물이 많이 파괴되었으므로 1974년 10월 벽돌 예배당을 헐어 현재의 12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7층 이상은 교회로 사용하고 지하층과 지상 4층까지는 상점으로 사용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선교사업을 하고 있다.

상동교회 재단은 수원의 삼일상업고등학교와 삼일공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미자립교회에 대한 원조사업 등 광범위한 기업선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기독교 100년사에 새로운 선교 유형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3년 상동교회는 서울시에 의해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획한 역사적인 현장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고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된 역사적 장소로서 그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개신교 감리교회 100여 년의 역사를 선도해온 상동교회는 현재 이성조 목사가 제26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35]

3. 경술국치 그리고 의열투쟁

경술국치의 날

1910년 5월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寺內正毅)를 3대 한국통감으로 임명함으로써 한국의 식민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는다. 데라우치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서둘러 정비하였다. 이에 앞서 1907년 10월 일제는 한국 경찰을 일제 경찰에 통합시켰는데,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손아귀에 넣은 것이다. 이로써 일제는 한일 합병 조약의 체결만 남겨 두게 되었다.

7월 23일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을 동원해 일체의 정치적 집회나 연설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차 없이 검속, 투옥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데라우치는 8월 16일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관저로 불러 한일병합을 위한 담판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가 담긴 조서가 8월 18일 내각회의를 통과하였고 22일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쳐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조인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일제는 한동안 발표를 미루었다. 한국민들의 저항을 우려

해 조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체결에 반대하는 원로대신들을 연금하다가 일주일 뒤인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서(詔書)를 내리도록 하였다. 같은 날 메이지 천황은 칙사를 파견해 순종을 이왕(李王)으로 책봉했다. 조서와 함께 여러 칙령이 같이 발표되었는데, 칙령 318호는 "한국의 국호는 고쳐서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라는 것이었고, 319호는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암흑의 일제강점기 35년을 맞게 되었다.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내세워 한국 통치의 총본산으로 삼고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를 임명하였다. 군부 출신의 데라우치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일제의 한국 통치가 강압에 의한 것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고 이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 동안에도 일본 자본가들은 통감부의 보호와 원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여, 금융·광업·임업·어업·운수·통신 등 산업의 모든 분야를 독점하였다. 또한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농업의 지배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많은 토지를 탈취, 대다수의 농민들이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10년 12월에 내려진 회사령(會社令)으로 인해 한국인의 기업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문화와 교육면에 있어서도 근대화 또는 내지화(內地化)를 명목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은 하나하나 파괴되어 갔다.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으로 인해 한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 기관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언론·출판 활동 역시 단속이 심해졌다. 또한 일본어 사용이 강요되었고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어 한국의 민족문화 및 예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36]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년 한일병탄 직후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총독부 관리들과 대한제국 황족들

대한제국의 종언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탄으로 대한제국은 종언을 고하였다. 8개조로 된 합병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일본국 황제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이로써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한 지 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4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경술국치로 인해 국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일제의 손에 넘어가자 뜻있는 많은 지사들이 망국을 슬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중 한 사람인 매천 황현은 가족에게 주는 유서와 함께 절명시를 남겼다. 그가 남긴 절명시는 모두 4수인데, 그 중 세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물과 뫼도 찡그리니,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일본식으로 차려진 빈전, 대한문 앞에서 조문하는 백성들, 태황제 시절의 고종, 종로를 통과하는 견여 행렬(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무궁화 우리 강산 망하고 말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먼 옛일 생각하니,
인간세상 식자(識者) 노릇 이리도 어렵구나.

1852년 음력 7월 25일 출생한 고종은 경술국치 이후 8년여의 세월을 더 살다가 1919년 1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68년을 사는 동안 아들 아홉과 딸 넷을 보았으며 열세 명의 자녀 중 요절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녀는 순종을 비롯해 영친왕, 의친왕, 완화군, 그리고 덕혜옹주 이렇게 다섯 명이었다. 정실부인은 순종의 생모인 명성황후 민씨 한 명뿐이었고 후궁은 영친왕의 생모인 엄씨, 의친왕의 생모 장씨, 완화군의 생모 이씨를 비롯해 덕혜옹주의 생모 양씨, 이육의 생모 이씨, 이우의 생

모 정씨 그리고 삼축당 김씨 등 일곱 명이었다.

고종은 1863년 12월 13일 열두 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1919년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장 57년을 재위했다. 그 세월은 파란만장한 한국 근대사에 다름 아니었다. 조선 국왕으로 즉위했던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태황제로 밀려났고 1910년 나라가 망한 뒤에는 이태왕으로 격하되었다. 1919년 1월 21일 이태왕 고종이 뇌일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자 독살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종의 인산일을 앞두고 3월 1일 폭발하였다. 바로 기미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다.

3·1운동으로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언함에 따라 시급히 정부를 조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노령의 대한국민회의정부, 기호의 대한민간정부, 한성의 조선민국임시정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평안도의 신한민국정부, 한성의 임시정부 등 여섯 개의 임시정부가 등장하였다. 한성의 조선민국임시정부를 제외한 다섯 개의 임시정부가 '대한' 또는 '한'을 국호로 내세웠다.

이는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국호는 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음을 보여준다. '대한'이라는 나라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정체(政體)를 바꾸어 이어졌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군주제를 민주제로 전환시켰음을 선언한 것이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공원 한편에는 안중근(安重根, 1879~1910) 의사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970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6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되었다. 2010년 10월 26일 한옥 양식의 구관(舊館)을 철거하고 현재의 자리에 신관을 설립하여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1주년을 기념하여 재개장하였다. 안중근 의사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그 사상과 정신을 보급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는 일제가 남산에 세운 조선신궁(朝鮮神宮)이 자리하고 있었다. 1925년 만들어진 조선신궁은 일본 황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 천황을 제신으로 안치한 신사로, 신사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관폐대사로 지어졌다. 일제에 의해 한국인들도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던 굴욕적인 장소로 1945년 해방 후 일본인들이 직접 해체 및 철거한 뒤 남은 빈 터에다 일제의 잔재와 굴욕을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설립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 평화를 파괴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린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영웅이다. 본관은 순흥(順興), 할아버지는 진해현감 안인수, 아버지 진사 안태훈(安泰勳)과 어머니 조씨(趙氏) 사이에서 3남 1녀 중 맏아들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육칠 세 무렵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사하였고 이곳에서 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사서(四書)와 사기(史記) 등을 읽었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은 청년기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바 있다. 1895년 봄, 당시 만 19세의 김구 선생은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난 후 몸을 피하려 황해도 해주의 양반가인 안태훈의 집에 은신하였다. 당시 만 16살이었던 소년 안중근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장총을 등에 메고 날마다 산으로 사냥을 다녔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사격술이 제일이었다고 한다. 몇 달 뒤 김구 선생이 청계동을 떠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길을 갔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공히 독립운동에 투신함으로써 결국 같은 길을 걸었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이후 고종 황제가 일제에 강제로 퇴위당하고, 군대까

거사 직후의 안중근 의사(왼쪽)와 단지회 동지들이 함께 쓴 '대한독립 태극기 혈서'

지 해산당하자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로 망명해 항일의병운동에 투신했다. 1909년 10월 26일, 의병부대의 참모중장으로 활약하던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자신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우는 일제 재판부에게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 나는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해한 것이 아니요, 한국 의병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일이니 보통의 사형피고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만국공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있는 동안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죽고 죽여야만 하는 참극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참극을 극복하고 동양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함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을 병탄하려 했고 남만주 지역도 강점하려 했다. 이 같

은 일본의 행동은 동아시아 삼국의 평화를 깨뜨려 반목과 전쟁의 길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 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하였고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장본인이다. 1909년 봄, 가쓰라 다로 총리와 고무라 외상은 한국을 강제 합병할 방침을 정하고 이토와 상의했는데, 이전까지 강제 합병은 없다고 밝혀온 이토는 이 자리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다. 강제 합병 방침이 결정된 후 이토는 1909년 6월 14일에 통감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추밀원 의장에 임명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재무상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의 하얼빈 역에 내렸다가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설파한 정연한 논리와 당당한 태도는 일본인 재판장과 검찰관들도 경외심을 가지게 할 정도였다. 관선 변호인은 "동기는 오해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한국은 독립할 수 없다는 조국에 대한 적성(赤誠)에서 나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변론했지만 1910년 2월 14일 6회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죽음을 앞둔 며칠 전 안정근(安定根)·안공근(安恭根) 두 아우에게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返葬)하지 말라. …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감옥(旅順監獄)의 형장에서 순국하였다. 안 의사의 유해는 순국 직후 감옥 인근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전해지며, 용산 효창원에는 광복 직후인 1946년 조성된 가묘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안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37]

이재명, 매국노 이완용을 응징하다

이재명(李在明, 1887~1910) 의사는 1887년 10월 16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하여 1890년 가족과 함께 평안남도 평양에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개신교계 사립학교인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졸업한 뒤 1904년 미국 노동이민 모집에 응모해 하와이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1906년 미국 본토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공립협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그는 1907년 7월 정미7조약의 강제 체결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 침략의 원흉과 매국노를 처단할 것을 결심한 이재명은 1909년 1월 순종황제의 서도(西道) 순시에 동행하는 이토 히로부미 한국통감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안창호의 만류로 중단하고, 항일투쟁을 위해 원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이토 사살 소식에 고무되어 다시 귀국한 그는 평양에서 동지들과 함께 친일 매국노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상경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1909년 12월 22일 종현천주교회당(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의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군밤장수로 가장하여 성당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재명 의사 의거 장소인 명동성당 앞

식을 마치고 나오는 이완용을 비수로 찔러 복부와 어깨에 중상을 입혔다. 이재명 의사의 의거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909년 12월 22일 11시 반경 추도식을 마친 이완용이 인력거를 타고 앞으로 지나가니 군밤장수로 변장한 이재명 의사는 칼을 들고 뛰어나가 바로 이완용에게로 달려들었다. 이때 인력거꾼이 앞을 가로막으므로 한 칼에 찔러 꺼꾸러뜨리고 인력거 위에 있는 이완용의 허리를 찔렀다. 그리고 겁에 질린 완용이 인력거 아래로 떨어져 도망하려는 것을 타고 앉아 어깨와 등을 힘주어 찌르니 이완용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재명 의사는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생각하고는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데 이완용을 경호하며 따르던 순사들이 붙잡으려고 하니 칼로 대항하였지만 중과부적으로 순사들의 칼에 하체가 상하여 포박 당하게 되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어 구경하니 용모가 장대하고 미목(眉目)이 청수(淸秀)하며 눈에서 광채가 나는 의사는 태연한 모습으로 사면을 둘러보면서, "나는 여러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한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 구경만 하고 있느냐? 오늘 나는 나라의 원수를 갚았으니 통쾌하다"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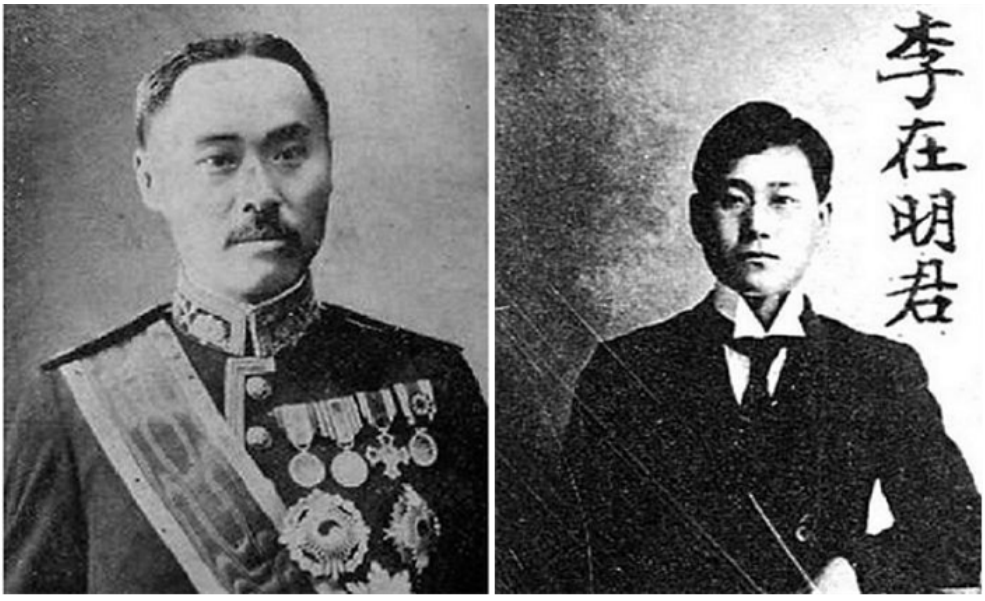
총리대신 경위 순사들에게 끌려 이완용의 집으로 가는데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이 "네가 흉행을 한 자이냐?"고 나무라니 이재명 의사는 눈을 부릅뜨고 추상같은 호령으로 "너 조중응 도적의 무리가 감히 누구보고 너라고 하느냐?" 하며 곁에 있는 순사에게 "비린내가 나니 권연(卷烟)을 한 대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의기남아로서 기개를 보였다.

경시청에 이르러 조사를 받을 적에 동범이 없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대장부가 일을 하는 데 어찌 남의 힘을 빌리겠느냐? 내가 17, 8세 때부터 이미 이 원수를 죽이려 하였다. 동범이 있다면 2천만 동포가 다 나의 동범이다. 그런 필요 없는 질문은 다시 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재명 의사는 이듬해 봄 몇 차례의 공판이 있는 중에서도 내외의 많은 방청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태연한 안색과 호걸스러운 어조로 이완용의 8대 죄악을 들어 통렬히 꾸짖으며 "나라를 강탈한 외적의 수괴가 이토 히로부미라면, 나라를 판 내적의 수괴는 이완용이다."라며 자신의 결단이 당연함을 강조하였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부인 오인성(吳仁星)이 뛰어나가, "국적 완용아, 이재명은 당당한 애국자이시다. 무슨 죄로 사형이냐? 무죄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진댄 하필 이재명이냐? 나도 사형에 처하라"라고 소리치며 검사에게 대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변호사 안병찬(安秉瓚)은 장인환(張仁煥) 의사가 미국인 스티븐스를 죽였지만 미국 법정에서 경미한 처벌을 언도한 사실 등을 들어 가벼운 형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재명 의사는"너희 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은 빼앗지만 나의 충혼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나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너희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1910년 9월 13일 그는 형장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의로운 일생을 마쳤다.[38]



을사늑약을 주도한 이완용을 응징한 이재명 의사(오른쪽)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이완용

이완용은 적극적인 친일 활동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내각 총리대신으로 임명된 그는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이토에 협조해 고종의 양위를 관철시켰고, 대한제국의 입법권과 인사권, 행정권 등을 통감부에 넘겨주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도 체결했다. 매국 행위로 지탄을 받던 이완용은 1910년 8월 22일 전권위원으로서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주도하며 조약문에 조인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을사5적' '정미7적' '경술국적' 모두에 포함된 그는 우리 민족 역사에서 최대의 치욕인 '매국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일제로부터는 한일 병합의 일등 공신으로 대접받았다.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연 수당 1천 6백 원을 받았고 백작 작위와 훈1등 서훈을 받았다. 1912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어 연 수당이 2천원으로 올랐고 1920년에는 후작으로 특별 승작되었다.

이완용의 권세는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완용 가(家)는 형제와 자손을 합쳐 세 명이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작위를 받고 세 명이 이를 계승한 '매국 명문가'였다. 차남 이항구는 1910년 10월 이후인 일제 강점기에 작위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며, 손자 이병길은 후작 작위를 물려받아 광복 직전까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한때 이완용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 친·인척, 문객들까지 인사에 관여해 현직 인사만 65명에 이르러 '가족 정부'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완용은 일제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누렸다. 일제와 황실로부터 직접 받은 돈만 해도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의 대가로 10만원, 영친왕을 세자로 책봉한 공로로 40만원,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후작 작위와 함께 받은 은사금 15만 원 등 수십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총리대신으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횡령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파들이 재산을 축적한 또 하나의 방식인 국유 미간지나 임야를 무상으로 대부받아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39]

독립운동을 지원한 의친왕 이강

1910년 경술국치로 519년간 이어온 조선 왕조는 일본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19년에 고종이, 1926년에 순종이 사망하면서 왕실의 상징적인 존재마저 사라졌다. 조선 왕조는 완전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이후 조선 왕실의 마지막 사람들은 왕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무능한 왕조의 후예라는 평가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

의친왕(義親王, 1877~1955)은 고종과 귀인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강(堈), 호는 만오(晩悟)이다. 고종은 적자인 순종과 서자 5명을 얻었다. 의친왕은 순종 다음의 서열이었으나, 동생인 영친왕이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순종과 의친왕의 나이 차가 거의 없었던 것과 고종의 총애를 받은 영친왕의 생모 엄귀비가 영친왕의 황태자 책봉을 강하게 지지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동생인 영친왕이 일본 육군 장성이 돼 철저히 일본식 교육을 받은 것과 달리 의친왕은 1910년 강제 합병이 이뤄진 후 독립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친왕은 1894년 9월 전권대사로 임명돼 일본을 다녀왔으며 이듬해에도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양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1901년 3월에는 미

독립운동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의친왕 이강

국 버지니아 주의 로어노크 대학(Roanoke College)에서 수학하였다. 이때 김규식 등을 만났으며, 그해 6월에는 매사추세츠 주 노스필드에서 열린 학생 대회에 수행원 및 김규식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후 로어노크 대학교를 마치고 오하이오 주 델라웨어의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 및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돌아다니며 학업을 계속하였다. 당시 LA에 있던 안창호와 김규식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기도 했다.[40]

을사조약이 있던 1905년 미국에서 돌아온 의친왕은 대한제국 육군 부장, 제2대 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다. 1907년 1월 15일에는 북한산성에 문관 3명, 군관 105명, 민간인 120명 등 총 228명을 비밀리에 모아 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의병 봉기를 할 것을 독려했다고 한다. 실제 이들 중에는 훗날 정미의병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강원도 출신 군인인 목형신(睦衡信)이 모임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나 228명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은 남아 있지 않다. 1909년

10월에는 경남 거창군을 방문하여 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이 지방의 뜻 있는 사람들과 장차 의병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할 땅을 매입하려다가 발각되어 서울로 호송되기도 하였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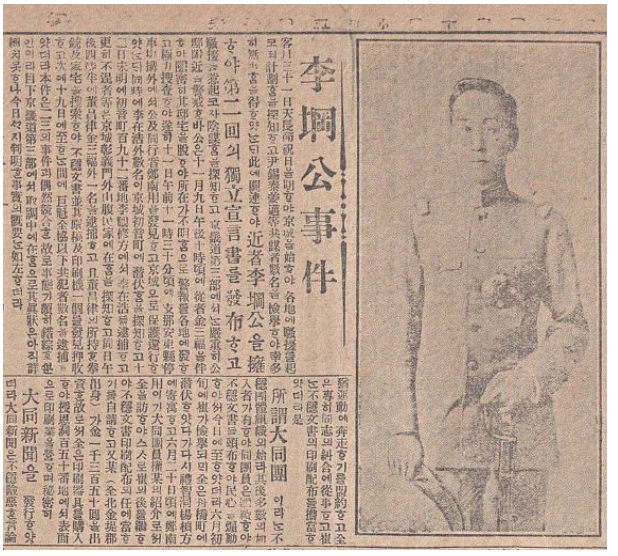
3·1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독립운동을 이끌어 갈 최고기관으로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상해와 국내는 너무나 멀고 임시정부는 국민과 떨어져 외국에 고립되어 있었다.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일제 지배하에 놓여 있는 국민들에게 임정의 존재를 알리고 유기적 정서적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1919년 4월 전협(全協)과 최익환(崔益煥) 등은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4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조선민족대동단을 발족시키고 의친왕을 고문으로, 김가진(金嘉鎭)을 총재로 추대하였다. 비밀리에 건립된 대동단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자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가진과 전협 등 대동단 간부들은 본부의 상해 이전을 결정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또한 의친왕과 김가진 같은 유력자가 국내를 탈출하여 참여한다면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의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들의 상해 망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의친왕 이강은 용모가 준수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경술국치 이후 망국의 한을 달래며 한량처럼 지내고 있었다. 사돈 관계로 돈독한 사이였던 김가진은 의친왕 이강이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가진은 이종욱을 통해 의친왕의 국외 탈출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종욱은 대동단 단장 전협을 만나 의친왕의 서울 탈출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으며 전협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대동단이 그 임무를 맡기로 했다.

1919년 11월 10일 의친왕 등 다섯 명의 일행이 변장을 하고 수색역에서 안동행 열차를 탔다. 그런데 이때 의친왕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탐지한 일제 경찰이 국경지대에 비상령을 내렸다. 안타깝게도 의친왕은 신의주를 출발하여 안동역에 도달할 무렵 일경에 적발되어 일행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일제를 경악시켰다. 식민지 조선의 왕자가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가담한다면 국내외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의친왕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대동단도 일망타진되고 말았다.


李堈公事件

의친왕 탈출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

상해 망명이 실패로 끝난 후 의친왕은 임시정부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1919년 12월 4일 상해에서 발행되는 중국신문인 《민국일보(民國日報)》에 '한국 태자의 일본에 대한 반감[韓太子對日之反感]'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이 편지에서 의친왕은 "나는 자유 한국의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친왕(親王)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한국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 바치기를 원한다"고 심경을 밝혔다.[42]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국내에서 유폐된 생활을 해야 했던 의친왕은 이후 여러 차례 일본으로 올 것을 일제 당국으로부터 강요받았으나 끝내 거부하는 등 항일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말년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락원에서 생활하다가 79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2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3장 3·1운동 직전의 상황

1910년 8월 29일, 미약하나마 붙어 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지고 만다. 통한의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나라가 일본에 병합된 것이다.[1]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기까지 우리나라는 주권을 모두 잃고 35년 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대한제국이 스스로 일본제국에 병합되기를 소원하여 통치권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일 병합 조약보다 더한 치욕과 날조는 일찍이 없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적 민족 국가와 자강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으며,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민중의 투쟁도 한층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끝내 기울어지고 말았다. 일제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고,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2]는 두 개의 조항으로 한 나라를 간단히 집어삼켰다. 양국의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특히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를 병합한다는 미사여구로 포장한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울분과 고통, 치욕을 가릴 수는 없었다. 대한제국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노골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벽두에 그만 꺼져버린 촛불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폭압적인 지배를 전면 거부하며 서울을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특정 계층과 집단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리로 나왔다.

조선총독부의 기록임을 감안하고 살펴보아도,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106만여 명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 7,509명이 사망했으며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군사와 경찰의 힘에 의지한 강압적인 식민 정책을 펴던 일본제국주의는 더 이상 강경책만을 쓰지 않고 이른바 문화 통치를 도입함으로써 민족분열을 획책하게 된다.

독립운동의 한 귀결이자 전면적인 항일투쟁인 3·1운동은 그 역사적 필연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자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기록된다. 이 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의 억압되어 왔던 자유와 자강, 그리고 민족자결에 대한 열망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다. 특히 한민족의 근대로 향한 혁명적 에너지가 응집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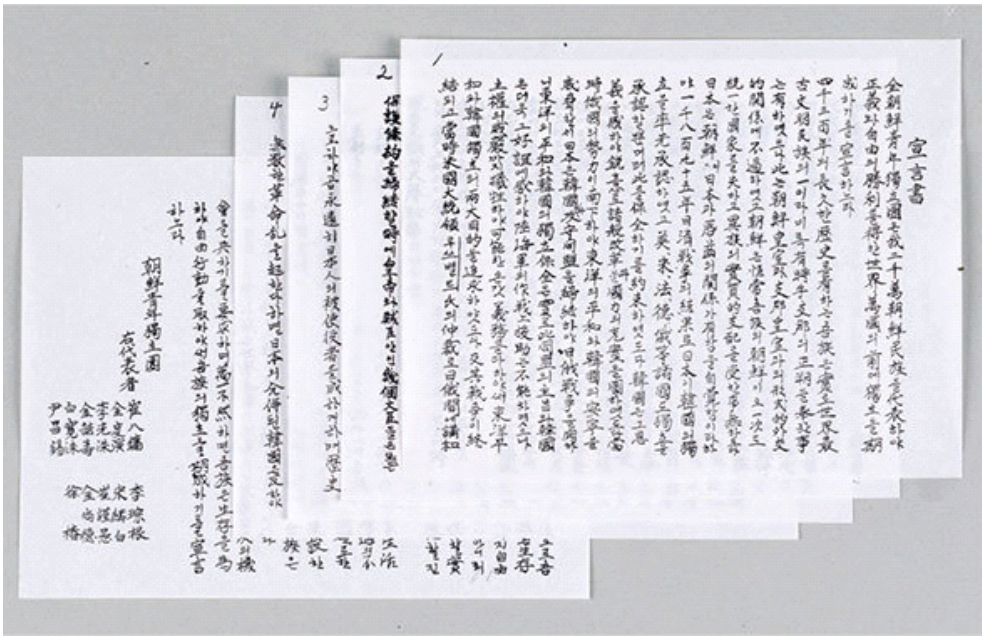
서론에서는 3·1운동의 구체적인 전개와 양상을 다루기 전에 그 시발점으로서의 2·8독립선언과 중국 상해에서의 임시정부 수립을 이끌어낸 '신한청년당'의 활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사 또한 당대의 역사적 지향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1. 2·8독립선언, 도쿄를 뒤흔들다

기획과 실행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일본제국주의의 심장인 도쿄의 조선YMCA 회관에서는 일제의 강압에 의한 조선 식민지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선언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 독립선언은 바로 직후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3·1운동의 시발점이자 세계 곳곳에서 한인들에 의해 추진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등에서 유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들이 비밀리에 만든 '조선청년독립단'이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2·8독립선언이다.

당일 YMCA 강당에서는 '동경유학생학우회 임시총회'라는 이름으로 학생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는 공안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명목이었을 뿐이고, 실은 독립선언식을 개최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창석의 사회로 총회가 시작되자 백관수과 김도연은 단상에 올라 각각 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은 이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면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3·1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준 2·8독립선언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며 민족의 궐기를 촉구했던 것이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서 동시에 비단에 새겨진 비장한 '선언서'가 내걸렸으며,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내지르며 조선 독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2·8독립선언서는 당시 최고의 문재로 손꼽혔던 이광수가 초안을 잡았고,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작성되었다.[3] 이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1일 만주 지린에서 발표되었던 '대한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았으며[4] 독립선언서 600매, 청원서 1,000매가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3시 50분 정도였다. 그들은 급하게 장내를 점거하며 회의 중지를 명령했다.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끝내 선언서는 모두 낭독되었다. 그러나 김도연, 김상덕, 김철수, 백관수, 서춘, 송계백, 윤창석, 이종근, 최근우, 최팔용 등(이상 가나다 순) 독립선언식을 주도한 조선청년독립단 임시위원들을 비롯한 학생 27명은 모두 경찰에 연행된다.

이후 경찰은 검거된 학생 27명 모두 퇴학 처분할 것을 요청하는데, 특히 임시위

조선청년독립단 판결 내용

성명	제1심 결과	제2심 결과
최팔용	금고 1년	금고 9개월
서 춘	금고 1년	금고 9개월
김도연	금고 9개월	금고 9개월(공소기각)
김철수	금고 9개월	금고 9개월(공소기각)
백관수	금고 9개월	금고 9개월(전심취소 공고기각)
윤창덕	금고 9개월	금고 9개월(공소기각)
김상덕	금고 7개월 15일	금고 7개월 15일(공소기각)
송계백	금고 7개월 15일	금고 7개월 15일(공소기각)
이종근	금고 7개월 15일	금고 7개월 15일(공소기각)

원 10명은 출판법 위반으로 2월 10일 도쿄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된다. 다만, 이 가운데 최근우는 선언서 등을 작성할 때 조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석방되었고, 임시위원 9명만 기소되었다. 나머지 17명은 석방되었다. 같은 해 2월 15일 9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에 불복, 공소를 제기했고, 3·1만세운동이 한반도 전역에서 불타오르던 3월 21일 2심 판결이 있었다. 1심과 2심 판결은 위 표와 같다.[5]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다소 완화된 형이 언도되었다.

주목할 것은 '2·8독립선언'이 단순히 조선인들만의 자기만족적 선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조선청년독립단은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평화 정착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하였다. 당일 오전 10시 경 조선청년독립단 위원들은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도쿄 시내 여러 곳에서 주도면밀하게 2·8독립선언서를 우편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우선 각국 대사와 공사였으며, 내각의 각 대신, 귀족원과 중의원 의원, 조선총독부는 물론이고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위해 각 신문사와 잡자사에도 보내졌고

역사적 기록을 위해 관련 학자들에게도 발송된다. 이로써 세계는 동아시아 변방에 자리 잡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와 그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조선인들의 독립선언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진행 과정

그러면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도쿄의 유학생들은 어떻게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을까? 통상 1910년대 중반 무렵에 이르면 즉각적인 독립보다는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게 된다. 특히 일본에 유학을 간 학생들은 민족자결보다는 개인의 힘을 길러 조선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깨우치는 것이 더 큰 꿈이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유학생들의 사상은 조선의 독립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1918년 12월 18일 일본 고베(神戶)에서 영국인이 발행하는 《재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에는 「약소민족들 발언 인정을 요구」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약소민족동맹회의'가 1918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미국의 한인회 대표들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첫째, 파리강화회의의 국제연맹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완전히 인정해야 하며, 또한 둘째 약소민족도 국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했다.[6]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당시로서는 요원하게만 보였던 조선 독립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것만 같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일본에 은밀하게 수입된 《신한민보》도 유학생들이 행동에 나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체포된 양주읍의 일기를 보면, 당시 유학생들이 《신한민보》를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박찬승은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신한민보》 1918년 12월 26일 자에는 안창호가 국민회 중앙총회장에 다시 당선됐

2·8독립선언을 한 조선청년독립단의 주역들이 1920년 3월 출감한 뒤 찍은 기념사진

으며 시국에 관해 의논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다시 1919년 1월 16일 자에는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이승만과 정한경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한 일과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다. 도쿄 유학생들이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한민보》를 봤다면 상당한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7]

이러한 정황을 보면, 개인의 실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던 도쿄 유학생들은 국제정세와 맞물린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그것이 무르익었다는 데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 민족대표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조선의 독립을 호소할 것이라는 소식에 유학생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일례로, 1918년 10월 5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웅변대회에서 전영택, 최근우 등이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 소환되는 일이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조선유학생학우회 주최 망년회와 다음 날 열린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동

서연합 웅변대회에서 연속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919년 1월 6일의 일이다. 당일 청년회관에서는 웅변대회가 열렸는데, 윤창석, 서춘, 이종근, 박정식, 최근우, 김상덕, 안승택, 전영택 등이 차례로 일어나 조선 독립운동의 당위를 설파했다. 그들이 주장한 요지는 첫째 지금이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이다, 둘째 해외 동포들은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 셋째 사정이 이와 같으니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 운동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본정부 및 각국 공사는 물론, 귀족원과 중의원 의원 등에게 조선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0명의 임시위원을 선출하고 밤늦게까지 그 구체적인 방도를 논의한다.

이날 뽑힌 임시위원은 와세다대학교의 최팔용(崔八鏞), 송계백(宋繼白), 게이오대학교의 김도연(金度演), 세이소쿠영어학교의 백관수(白寬洙), 도요대학교의 이종근(李琮根), 고교생 최근우(崔謹愚), 전 고등사범학교의 서춘(徐椿), 아오야마가쿠인의 전영택(田榮澤)과 윤창석(尹昌錫), 무소속 김상덕(金尙德) 등이었다.

이후 이광수와 김철수까지 가세하여 비밀리에 독립선언서 초안을 논의하였고 최근우와 송계백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다만, 최근우는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그곳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일본 경찰의 극심한 감시로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참고자료 2·8독립선언서 전문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2천만 민족을 대표하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3백년의 장구한 역사를 유한 오족은 실로 세계 고민족의 하나이라. 비록 유시호 중국의 정삭을 봉한 사는 유하얏스나 차는 양국왕실의 형식적 외교관계에 불과 하얏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고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하고 이족의 실질적 지배를 수한 사 무하도다.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야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한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습용하여 오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신교의 자유, 지업의 자유까지도 불소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사권까지도 침해하며 공사간에 오인과 일본과의 우열의 차별을 설하며 오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야 열등한 교육을 시하야서 오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사용자로 성케 하며 역사를 개조하야 오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모하며 소수를 제한 이외는 정부 제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 등 제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사용하야 오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득할 기회를 부득케 하니 오인은 결코 여차한 무단전제 부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과를 향유키 불능한지라.

그뿐더러 원래 인구 과잉한 조선에 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야 토착하니 오족은 해외에 유리함을 불면하며 정부의 제기관은 물론이고 사설의 제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사용하야 일단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도 일본인에게만 특수한 편익을 여하야 오족으로 하야금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실케 하도다. 여차히 하방면으로 관하야도 오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상호배치하야 기해를 수한 자는 오족이니 오족은 생존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 최후 동양평화의 견지로 보건대 위협이던 아국은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신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역연하며 겸하여 차후 국제연맹이 실현되야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무할 것이다. 그러할진대 한국을 합병한 최대이유가 소멸되었을 뿐더러 차로부터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란을 기한다면 일본에게 합병된 한국은 반하야 동양평화의 요란하고 화원이 될지라.

오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차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야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유할지니 어찌 동양평화의 화원이 아니리오? 오족은 일병이 무하니 오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에 저항할 실력이 무하도다.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의 혈전을 선하리라. 오족은 구원히 고상한 문화를 유하얏고 반만년간 국가생활의 경험을 유한자라 비록 다년간 전제정치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오족의 금일을 치하얏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범을 취하야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할 줄을 신하노라.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각국이 오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이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야 자유의 행동을 취하야 써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재일본동경조선청년독립단 대표

최팔용, 이종근,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최근우,

김철수, 김상덕, 백관수, 서춘, 윤창석

2. 신한청년당, 임시정부를 예비하다

'터키 청년'과 찰스 크레인의 만남

1919년 2월 28일, 도쿄에서 터져 나온 유학생들 중심의 독립 선언은 일본제국주의의 중심부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상당하다. 게다가 3·1만세운동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저를 이룬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3·1독립선언서의 모태가 되었을 정도로 조선 독립의 당위와 명분, 그리고 이념과 의지까지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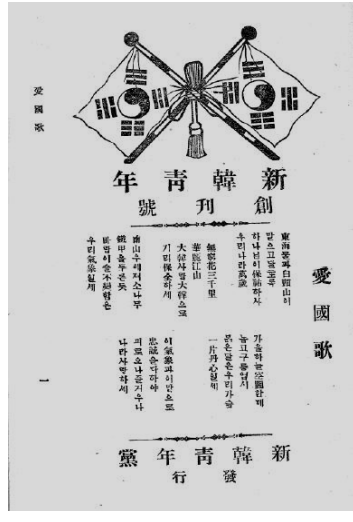
그런데 이 '2·8독립선언'에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할 전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운형 등 조선의 망명 독립지사들이 1918년 11월경 상해에 조직한 신한청년당이다. 이 단체는 터키의 개혁가이자 초대 대통령인 케말 파샤의 '터키청년당'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고, 상해에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조선인 청년을 당원으로 정했다. 구폐와 악습 타파, 자치 역량 강화가 표면적인 목표였지만, 실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참여자는 여운형 외에도 김규식, 김철, 서병호, 선우혁, 조동호, 문일평, 정인보, 신규식, 신채호, 조용은, 장덕수 등이었다.

신한청년당이 결성된 시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맞물린다. 당시 미국 등 승전국들은 패전국의 식민지 재편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패전국 식민지의 독립을 종용할 때였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뿌리치고 '독립'이라는 자결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다.

여운형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확인하고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918년 11월 27일, 상해의 칼튼 카페에서 열린 윌슨 대통령의 비공식 특사인 찰스 크레인 환영 오찬에 참석하게 된다. 중국의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환영회는 미국귀환학생클럽, 미국대학클럽, 중국상공회의소, 중국YMCA 등이 참여하였다.[8] 크레인은 윌슨의 전후 정책인 '14개조'의 선전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중국 등지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날 크레인이 환영회에서 행한 연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파리에서 개최될 평화회의에서는 각국 사이의 감정과 오해를 제거해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강조할 것이므로 독립을 도모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대표를 파견해 피압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9]

크레인의 연설은 여운형을 더욱 고무시켰다. 조선 독립의 기회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잡혔기 때문이다. 연설 직후 그는 중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왕정팅(王正廷)에게 크레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끝내 성사되었다.[10] 크레인은 여운형에게 조선 문제가 파리강화회의에 정식 의제로 부쳐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 대표가 파견되면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신한청년당의 기관지 《신한청년》

여운형이 크레인의 약속에 고무된 것은 사실이

다. 미국과 같은 열강이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는데, 흥분하지 않을 조선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곧바로 장덕수를 찾아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자고 제안한다. 이어 대표단 파견이 여의치 못하면 파리강화회의 측에 한국 문제를 제기하는 문서도 보내자고 덧붙인다. 장덕수가 흔쾌히 찬성한 것도 불문가지. 그들은 강압과 위력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된 조선의 사정을 설명하고 독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의 청원서 두 통을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한 통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다른 한 통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내기로 한다.[11]

「2·8독립선언서」의 원형이 된 '청원서'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한국 대표로 파견하였고 이와 동시에 여운형을 노령으로, 장덕수를 일본으로, 선우혁과 김철, 서병호 등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향후 독립운동에 필요한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 파리위원부를 설치하였다.

특히 일본에 파견된 장덕수의 활약은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의 결의를 모은 '2·8독립선언'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선우혁은 관서지방의 기독교인들과 연합해 3·1운동을 일으키도록 종용했다. 이로 인해 상해는 조선 독립운동의 본부가 되기에 이른다. 2·8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이광수와 최근우가 합류하였고, 여운형과 그의 동생 여운홍이 각각 노령과 미국에서 왔다. 조선에 파견된 선우혁과 김철, 서병호, 현순, 최창식도 도착했다. 이봉수, 강대현, 안승원, 김구, 김병조, 조상섭, 이원익 등도 조선에서 달려왔다.

이들을 바탕으로 신한청년당은 조직을 정비했다. 이사장으로 서병호를 추대하고 이사로는 여운형과 김구(金九), 이광수(李光洙), 안정근(安定根), 조동호, 한원창(韓元昌), 한진교(韓鎭敎), 선우혁, 김순애(金淳愛) 등이 선임되었다.

또한 재무부와 교제부, 토론부, 체육부, 출판부, 서무부 등 6개 부서를 두어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독립사상의 정비를 고취했다. 신한청년당의 단강(團綱)은 대한독립과 사회개조, 세계대동이었고, 기관지로 《신한청년보(新韓青年報)》를 발간했다. 바로 이 신한청년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태가 된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김규식과 한국대표단. 앞줄 오른쪽 끝이 김규식, 왼쪽 끝이 여운홍,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관용, 세 번째가 조소앙.

여운형이 장덕수와 함께 작성한 청원서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여운형은 '청원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문으로 두 통의 청원서를 작성했소. 조선은 본래 4천 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로 동방문화에 공헌해왔는데, 불합리한 병합으로 민족의 진로가 끊기고 일본에 유린당하고 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종래의 불합리한 불평등을 모두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원조를 해주기 바란다. 조선은 소국이지만 극동평화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아무쪼록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해방을 도모해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생명을 부활시켜달라는 요지였소.[12)]

청원서의 내용은 조선 생명의 부활, 곧 독립에 집중되어 있다. 여운형이 장덕수

와 함께 청원서를 집필하는 3일 동안, 그들의 내면은 기대와 희망, 그리고 혹시 모를 실패와 좌절에 대한 염려 등으로 무척 복잡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은 청원서를 쓰고 당시 여운형이 일했던 협화서국의 운영자인 조지 필드 피치(George Field Fitch) 목사에게 교정을 부탁했다.

청원서의 내용은 크게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로 나뉜다. 서론부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대륙 확장 정책에 조선이 희생되었음을 강조했고, 본론부에서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방면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결론부에서는 조선의 독립 필요성과 아시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버틀러도서관에 보관된 크레인의 문서와 1919년 12월 국한문으로 발간된 『신한청년』,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일본어로 번역된 판본 등이 남아 있다.[13)]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론부	일본제국주의의 대륙 침략 정책에 조선이 희생되었음
-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으로 정의, 인도, 자유에 기초한 승리임 - 파리평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의 유지 기관으로 제시됐는데, 조선과 일본 문제는 동양 평화 및 세계 평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 - 일본은 전제주의, 군벌주의, 관료주의, 제국주의 국가임	
▣ 본론부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방면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정신적 방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105인 사건)은 기독교 탄압임 - 한글 신문과 잡지 발간 금지, 공개 연설 금지 등 공공연한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 - 조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정치적 차별도 심각함(조선인에게 납세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으며, 중앙과 지방에 의회가 없고, 조선인의 행정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언급) - 조선인 회사 설립 금지, 일본인의 농지 침탈, 조선인의 광산채굴 금지 등 경제적 차별	
▣ 결론부	조선의 독립 필요성과 아시아 평화 정착에 기여 강조
- 조선은 일본의 교활한 사기에 빠진 것임 -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임	

신한청년당 결성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포스터

조선 독립의 당위와 세계사적 필요성을 담은 청원서는 여운형의 손을 떠났다. 신한청년당은 하루속히 청원서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조선의 독립을 위한 기초로 쓰이길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여운형은 자신이 보낸 청원서 두 통이 윌슨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청원서의 행방은 실로 묘연했다.

이에 대해 이만규는 밀러드가 일본 밀정의 공작으로 청원서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기록한다.[14] 하지만 정병준은 밀러드의 가방 분실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다. 그는 컬럼비아대학교 버틀러도서관 산하 희귀본·필사본도서관에 보관된 '크레인 가족 문서'에서 청원서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통 또한 밀러드 자신이 파리강화회의 후에도 갖고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다. 문제는 청원서가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되었는가의 여부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확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는 향후 조선의 독립선언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청원서의 본론과 결론 부분이 2·8 독립선언서에 담긴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청원서의 핵심 사항들이 3·1독립선언서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며 거대한 맥락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이광수가 2·8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쓸 때, 신한청년당의 청원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도쿄의 2·8독립선언이 신한청년당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만나는 접점이 되는 것이다.

4장 3·1운동의 전개와 중구

마침내 3·1운동의 막이 올랐다. 조선의 독립과 임시정부 설립을 향한 신한청년당의 거침없는 행보와 함께 1919년 2월 1일 만주 지린에서 무오독립선언이 이루어졌고, 2월 8일에는 일본제국주의 심장부 도쿄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졌다. 국내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민족자결을 이루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3·1운동에서 서울 중구는 핵심 공간의 하나로 떠오른다. 민족대표들에 의한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종로 태화관에서 거행되고 학생과 일반인의 운집에 의한 만세시위도 탑골공원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시위의 핵심 목적지는 아마도 남산 왜성대(서울시 중구 예장동 8번지 일대)에 위치한 '조선총독부'였을 것이다. 요컨대 당시 시위대는 단순히 조선 독립을 외치며 산발적으로 거리 곳곳에서 시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각론은 오히려 분명한 목적과 방법을 숨기면서 서울 중심부의 요지를 차례차례 관통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2·8독립선언은 어

고종의 대여행렬을 지켜보는 경성시민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떤 경로로 국내에 전해진 것일까. 앞서 본 것처럼 1919년 1월 7일 도쿄 기독교청년회관에서의 총회 직후 임시위원으로 뽑힌 최팔용, 송계백, 백관수 등은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송계백을 서울로 파견한다. 우선 그는 모교인 보성고보와 와세다대학교 선배인 현상윤을 찾아간다. 1918년 5월부터 중앙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그는 일본 유학생들과 연통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 송계백은 2·8독립선언서를 현상윤에게 전했고, 현상윤은 최남선과 최린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최린은 권동진, 오세창과 함께 손병희를 찾아가고, 손병희는 천도교 최고간부회의에 이 사실을 전하면서 천도교의 궐기를 결정하도록 했다.[16]

독립을 향한 국내외의 열망은 커져만 갔다. 일본제국주의의 무단통치로 조선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정치와 교육, 문화 부문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중은 독립된 나라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갈망했다. 분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층 고무된다. 만주 지린에서의 무오독립선언은 재외동포들의 독립운동에 기

름을 부었고 도쿄 한복판에서, 그것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선언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한 국내 민족 지도자들은 큰 자극을 받았다. 3·1만세운동을 향한 국내외의 조건이 하나둘 무르익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1월, 고종이 야참으로 마시던 식혜를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에서 67세로 붕어한다. 이때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유포되어 민족적 의분을 불러일으켰다. 고종의 인산일(因山日)을 앞두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3월 1일 청년들을 중심으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다. 한편 3월 만세시위 이후 국내외의 민족대표들은 한성뿐 아니라 상해, 연해주 등지에서 임시정부 설립을 추진한다. 각 지역 대표들은 1919년 9월 상해에서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창립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 장에서는 먼저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서울 중구를 중심으로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 만세시위가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재구성할 것이다. 이것은 3월 1일 이후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시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면서 노동자 시위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먼저 2월 28일 손병희의 집으로 가보도록 하자.

1. 2월 28일, 의암 손병희 자택

2월 28일 오후 5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교의 대표자들이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집에 모였다. 33인 중 23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도 익히고 결의를 다지며 다음날의 거사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약간의 객담(客談)이 오갔지만, 독립선언으로 내란죄까지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지라 분위기는 비장했다. 내란죄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민족의 자결(自決)을 만방에 알리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일만 남았다.

내일의 '독립선언'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기나긴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경술국치(庚戌國恥)[17] 이후의 일제의 만행으로 봐서는 조선의 독립을 호락호락하게 용인할 리 없었다. 더욱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주도하는 패전국 식민지의 재편 원리로서 민족자결주의가 가진 한계 또한 분명했다. 민족대표 누구도 독립을 낙관하지 않았으며,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넣는 것조차 목숨이 걸어야 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18] 훗날 손병희 등 47인을 내란죄로 고등법원 예심에 회부한 일제는 다음과 같은 죄목을 적용한다.

가회동주민센터 인근의 의암 손병희 선생 집터

첫째. 조선을 일본제국의 통치로부터 이탈시켜 새로운 독립국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조헌을 문란케 하는 불온문서를 공표했다.

둘째. 내란죄의 요소인 폭동이 일어나게 될 줄 인식했으면서도 최후의 1각, 최후의 1인까지 독립을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전국 각지에 배포하고 선동했다.[19]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비록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독립의 열망에 눈을 뜨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지만, 신한청년당이 윌슨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청원서에서 은연중 드러난 것처럼 애초 승전국의 식민지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선의 독립은 오로지 조선의 민중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이념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었다. 그것만이 조선의 정당한 독립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 33명의 명단이 결정되고 2만 1천여 장에 달하는 독립선언서까지 인쇄된 직후였지만, 자칫 거사 계획이 누설되어 수포로 돌아갈 우

려도 있었기 때문에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갑성이 침묵을 깨고 참석자들에게 내일 낮 탑골공원에서 학생 200명 정도가 모여 만세를 제창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곧바로 경찰에게 연행될 계획이었던 이들에게 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독립선언식'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빠져들게 하는 '럭비공'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갑성과 박희도는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동향과 성향을 잘 알고 있던 터였다. 이에 대해 손병희와 최린 등 천도교 측은 공부에 힘써야 할 학생들과 거사를 함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다. 또한 격앙되기 쉬운 청년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은 유혈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거사 장소를 애초의 탑골공원에서 인사동에 위치한 명월관 지점인 태화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제안은 대표자 대부분의 동의로 승인된다.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사 계획이 대중화와 일원화, 비폭력의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3월 1일의 '독립선언'이 곧바로 민중 봉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선택은 3·1운동의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최근 역사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천도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독립선언 이후 그들이 함께 논의할 상대는 일본의 위정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로 조성된 세계 정세 하에서 조선인들이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면 일본이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면 일제 당국과 논의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20]

이 같은 천도교 측의 관점은 비폭력주의를 끝까지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결국 이상론(理想論)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낙관'은 일종의 결의였는지도 모른다. 비폭력으로 민중의 희생을 최소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가진 태화관

하고, 동시에 불굴의 의지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이념의 소산은 아니었을까. 자유에는 언제나 피의 냄새가 서려 있다는 것을, 동학혁명을 통해 그들은 몸소 경험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천도교 측이 학생들의 운집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 태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그것이 비록 실현 가능성이 요원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경찰들에게 민족대표 모두가 연행되려던 계획은 격앙되기 쉬운 학생들의 등장으로 인해 수정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이념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3·1운동의 철저한 민중성이다.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의 시기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불을 붙였을 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조선 민중의 각성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자발적 참여에 따른 것이었다.

2. 3월 1일, 태화관과 탑골공원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이 최종 결정된 것은 2월 27일 밤의 일이다. 그간 여러 이유로 명단이 확정되지 못하다가 3월 1일 만세시위를 이틀 앞두고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 불교 2인 등 총 33인이 결정된 것이다. 민족대표가 확정됨에 따라 천도교 측은 곧바로 선언서 인쇄에 착수하기 시작한다.

알려진 바대로, 독립선언서는 손병희가 대원칙을 잡았고,[21] 최남선이 초안을 썼다. 이광수가 교정을 보고 만해 한용운이 공약 3장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 독립선언서가 2월 27일 밤, 마침내 인쇄된다.[22] 2만 1천여 장이다.[23] 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자를 확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아 판본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인쇄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는 선언서의 인쇄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 선언서 인쇄를 둘러싼 긴박한 전후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 선언서의 인쇄도 27일 밤에 이루어졌다.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2만 1천 매 가량의 선언서를 인쇄했다. 선언서 배포는 학생들이 경성 시내를 맡고, 천

도교와 기독교가 각 지방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인쇄 전 선언서의 조판은 최남선이 경영하는 신문관에서 담당했으나, 조판의 짜임이 좋지 않아 보성사에서 다시 조판하면서 두 가지 판본의 선언서가 세상에 남게 되었다. 급히 조판을 바꾼 탓인지 보성사 판본의 첫 줄에는 '조선'이 '선조'로 잘못 인쇄되어 있다.[24)]

모든 일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27일 늦은 밤까지 인쇄 작업을 마친 이종일은 경운동 천도교 교당 옆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이 '선언서'를 옮긴다. 수송동의 보성사에서 경운동까지는 약 1킬로미터 남짓이었다. 이때 무슨 예감이 있었는지 선언서를 포장한 뒤 손수레에 싣고그 위에 다시 천도교 족보로 뒤덮는 등 이중의 잠금장치로 잠가버린다.

선언서를 무사히 인쇄하고 배포까지 모두 마침으로써 거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들은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오후 2시 정각 독립선언식을 개최한다. 본래의 계획은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대표 모두가 경찰에 연행된다는 것. 전날 회의에서 급히 계획을 변경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간단한 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경찰들에게 연행될 예정이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계였던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등 4인은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긴장감이 팽배한 태화관. 약간의 소란도 있었다. 오후 두 시가 가까울 무렵 강기덕 등 학생대표들이 찾아와 장소 변경에 항의하면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올릴 수 없다면 민족대표가 몇 명이라도 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소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기덕이 민족대표를 향해 물었다. 민족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유혈사태의 우려를 얘기했다. 그들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탑골에서 선언서를 발표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할 것이고, 학생과 군중이 그것을 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장소를 바꾼 것이오."

그러나 강기덕은 민족대표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민족대표가 파고다공원에 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폭동의 원인이 됩니다. 파고다공원에 학생과 시민을 모아 놓고 갑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 불교 2인 등 총 33인으로 이루어진 민족대표(역사 기록화)

자기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파고다공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겠소. 우리는 여기서 발표할 테니 당신은 돌아가는 게 좋겠소."

화를 참지 못한 강기덕은 계속 항의하려 했으나 만류하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 태화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곧장 파고다공원으로 가서 모여 있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전했다. "민족대표는 오지 않을 것이오. 허나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오."[25]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강행한다. 이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조선 반도에서의 독립선언이라는 위대한 시작에 한층 고무되고 격앙되었기 때문에 읽고 또 읽는다. 점심식사가 들어온다. 한용운이 간단히 연설을 마친 후 만세 삼창을 제의하였고, 민족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 삼창을 한다.

이 무렵 민족대표 중 한 사람이 인력거꾼을 시켜 종로경찰서에 선언문을 보낸다. 얼마 되지 않아 종로경찰서에서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들은 남산의 북쪽 자락에 있는 경무총감부로 연행되기 시작한다. 경무총감부는 오후 5시 무렵까지 민족대표들을 호송하느라 남산으로 향하는 시위대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다.[26]

한편,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부터 모여든 200여 명의 학생들은 계획과는 달리 민족대표 33인이 보이지 않아 처음엔 당황했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학생들 스스로가 조선 독립의 불씨가 되기를 결의한다. 이내 경신학교 출신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은 천여 명에 달했다.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목소리는 무거웠으나 떨림은 없었다. 만세 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종로 거리를 뒤덮었다. 산발적으로 만세를 합창하던 시위대는 대열을 갖추고 두 갈래로 나뉘어 행진했다. 하나는 종로 보신각을 지나 남대문 쪽으로 향했고, 다른 하나는 매일신보사 옆을 지나 대한문을 향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두시위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당시 학생들은 3·1만세운동이 1회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조직했던 김원벽과 한위건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독립운동에 합류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가자고 주장했다. 특히 김원벽은 이렇게 말했다.

> 독립운동은 한 번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제1회에 선언서를 발표한 사람이 체포되면 제2회, 제3회, 계속하여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27]

김원벽은 당시 정세를 정확히 판단했다. 학생들은 한위건과 김원벽의 의견에 찬동했다. 학생들은 3월 5일 남대문역 앞에서의 제2차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3·1만세운동의 불씨를 점점 더 크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어쩌면 학생들의 자발적 결의와 의지가 없었다면 3·1만세운동은 1회로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탑골공원

이후 민중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으며, 훗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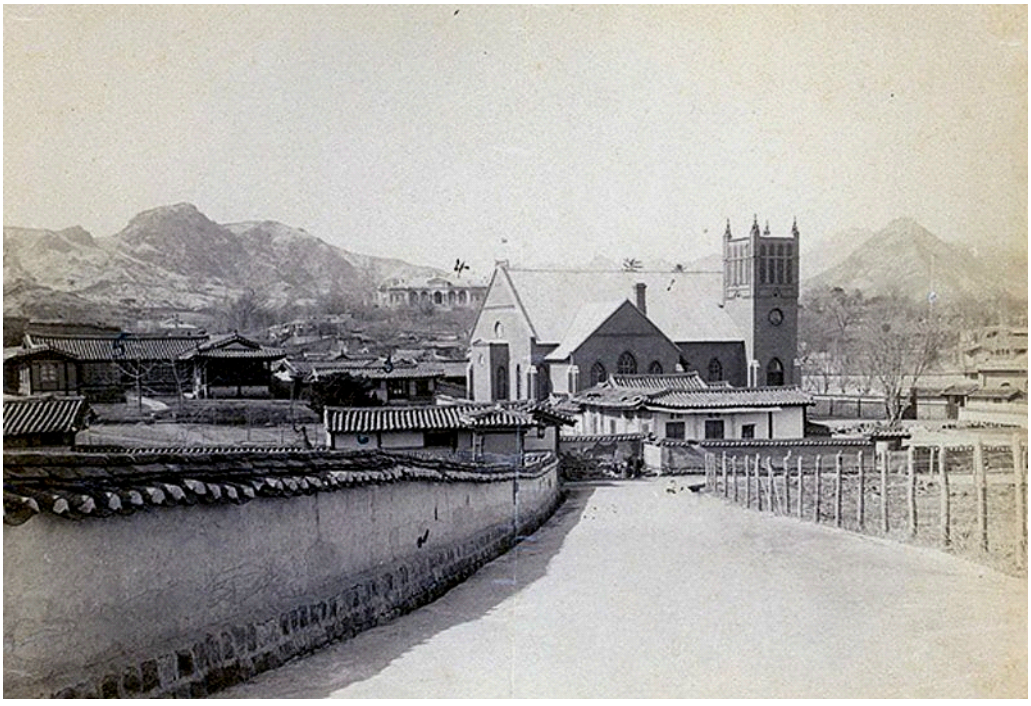
당시 누구보다 앞장서 3·1운동을 준비하고 열렬히 참여했던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의 사택과 배재고보 기숙사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 중구 정동 34'번지이다. 이필주 목사는 3·1운동에 앞서 두세 차례에 걸쳐 학생단 간부회의와 기독교계 대표자회의가 열리도록 독려했으며 안전한 회합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택을 내어준 인물이다. 한위건, 장채극, 전옥결, 강우열 등 학생대표들이 모여 3월 5일 오전 9시를 기해 남대문역전 광장에서 학생단이 주도하는 제2차 만세시위 운동을 결정한 곳도 바로 배재고보 기숙사였다.

민족대표와 학생대표를 연결한 이필주

3·1운동이 시작되기 두 달 전인 1919년 1월, 당시 기독교 감리교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이필주(李弼柱, 1869~1942) 정동교회 담임목사는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었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포된 후 일제로부터 온갖 심문과 고문을 당할 때에는 2월 24일, 25일경에야 감리교 목사 최성모의 연락을 받아 3·1운동 계획을 처음 듣게 되었고 33인의 대표 서명에 찬동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1월 하순부터 박희도가 지도하는 기독교청년회의 독립운동 계획이 깊숙이 관여하였다.

당시 이필주 목사는 경성부 정동 34번지의 정동교회 구내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추진하는 주요 회의 등이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사택을 내주는 등 독립운동의 숨은 조력자였다. 지금도 건재한 정동교회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 정동 34'로 거의 변함이 없는데, 만일 이필주의 순수한 열의와 성원, 믿음이 없었다면 3·1운동의 전개도 상당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1919년 2월 27일 밤. 기독교계 대표자들은 이필주 목사의 사택에 집결했다. 이날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대표자들을 인선하고, 선언서와 청원서, 탄원서의 초고를



정동교회의 옛 모습(1904년경, 위)과 현재(아래)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한시가 바빴다. 검토를 마친 대표자들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리고 서둘러 재동에 위치한 최린의 집으로 가서 민족대표들이 맡긴 인장을 가지고 선언서와 기타 문서에 대리하여 기명 날인을 시작했다. 손병희(천도교계)와 길선주(기독교계), 이필주(기독교계), 백용성(불교계) 순이었다. 이후에는 종교 구분 없이 배열하였다.[28]

정동교회의 이필주 목사

한편 이필주 목사의 사택이 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것은 2월 26일 무렵이었다. 3·1독립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필주 목사가 자신의 집을 학생들의 회합 장소로 기꺼이 개방한 것이다. 특히 2월 28일 밤 10시에는 보성법률상업학교 학생인 강기덕이 김백평 등 중등학교 학생대표 십여 명과 함께 회합을 갖고 3월 1일 독립선언식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각 학교 대표들에게 100장에서 300장의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면서 배포 장소도 지정해주는 일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만세 삼창 후 일제 군경에 체포된 이필주는 2년간의 긴 옥고를 치르게 된다. 출옥 후에는 서울의 여러 교회에서 목회와 교육 사업에 힘썼으며, 말년에는 수원 남양교회를 맡아보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일제에 항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중구의 독립운동 유적 · 인물

남대문교회/함태영 전도사 사택터

함태영, 자기를 낮춰 후사를 도모하다

남대문교회는 본래 구리개(지금의 을지로1가)에 위치했으나, 1904년 9월 제중원이 남대문밖 복숭아골(지금의 중구 양동)로 이전되면서 교회도 따라서 옮겨갔다. 세인들에게는 '남대문밖교회' 혹은 '남문밖교회'로도 불렸다. 남대문교회가 배출한 인물 중에는 3·1운동과 관련해 잊어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천도교계와 기독교계의 합동을 성사시켜 3·1운동의 큰 기틀을 잡은 함태영(咸台永, 1872~1964)이고 다른 한 명은 학생대표들과 교섭해 3·1운동의 전국적인 지속을 가능하게 한 이갑성이다. 먼저 함태영의 발자취를 살펴보자.

3·1운동 무렵 함태영은 남대문교회 전도사였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출생한 그는 대한제국 때 법관양성소를 나와 한성재판소 검사로 재직하다가 1898년 독립협회 사건 때 이상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이후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그는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거사에 필요한 실무적인 일에 앞장섰다. 민족대표로서의 고귀한 희생과 상징보다는 기독교계 대표 16인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3·1운동을 주도한 48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1910년경(왼쪽)과 1953년(오른쪽)의 남대문밖교회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복역하다 2년 만에 가석방되었다.[29]

3·1운동 당시 함태영 전도사는 이승훈 장로와 함께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많은 일들을 처리했다. 가령 천도교계와의 연락과 교섭은 물론이고, 독립선언서를 파리강화회의와 미국 윌슨 대통령 양쪽에 발송하는 것, 그리고 독립선언서의 지방 배포 등이 그것이었다. 이승훈 장로와 함태영 전도사의 조합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함태영에 대한 이승훈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919년 2월 23일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에도 두 사람은 천도교계 인사인 최린의 집으로 찾아가 기독교계와 천도교계의 합동을 논의하고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

3월 1일을 거사 날짜로 정한 것과 관련해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애초 함태영은 3월 4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고종의 국장이 3월 3일이니 그 다음 날 조선 독립을 선포한다면 수많은 군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린은 고종의 독살설을 예로 들며 의도치 않은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만에 하나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독립운동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일은 일요일로 기독교계의 예배일이었다. 여러 논의 끝에 3월 1일이 거사 일로 정해졌고 함태영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2월 27일에도 함태영은 등장한다. 3·1운동의 주요 대목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일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기독교계 대표를 최종 인선해야 했고, 천도교 측이 준비한 독립선언서와 청원서, 탄원서 등을 검토해야 했

다.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 은밀하게 회합을 가진 이승훈, 이필주, 함태영 등은 최린의 집으로 가 독립선언서 날인을 완료한다. 아울러 2월 28일에는 독립선언서 900장을 김창준 목사에게 넘겼다. 이중 600장을 이갑성에게 전달하고, 남은 300장은 이계창(경성화상점 사무원)을 통해 평안북도 선천으로 보냈다.

함태영은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당시 3·1운동 주동자로 의심받아 경찰에 체포된 이상재에게 함태영은 끝까지 부인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6개월간 조사 받던 이상재는 끝내 '혐의 없음'으로 기소가 중지되었다. 반면 함태영은 1919년 7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고, 1919년 10월 30일 3심에서 출판물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이상재는 함태영이 수감에서 풀려날 때까지 3·1만세운동 관련 수감자들 중 기독교계 참여자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현재의 남대문교회

이후 함태영은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고 목사로 안수되었으며, 종교 활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광복 직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의 고문을 지냈으며 1946년에는 미군정 자문기관이었던 민주의원의 의원을, 1949년에는 제2대 심계원장(審計院長)과 1951년에 한국신학대학장을 지냈다. 1952년에는 발췌 개헌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제3대 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 1956년까지 재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으며, 1964년 서거 후 국민장으로 장례가 거행되었다.

말년의 함태영 목사

서울 중구에 위치했던 함태영의 집은 현재 그 흔적이 분명치 않다. 표석조차 없어 3·1운동 당시 그의 행적을 기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적지 조사에 의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가 함태영의 사택이 있던 자리로 확정되었다.[30]

학생들의 참여를 이끈 이갑성

33인의 민족대표 중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이갑성(李甲成, 1889~1981)은 1889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 1915년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 부속병원의 사무원이 되었으며 이어 의전 부속병원 제약부의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1919년 당시에는 세브란스의전을 중퇴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이갑성과 함태영이 거주하던 집은 세브란스병원 내에 있었으며, 이곳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와 학생 대표들이 회합을 갖는 장소로 쓰였다.

이갑성의 독립운동 참여는 191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시 그는 박희도 등과 함께 민족자결주의에 한층 고무되었고, 기독교계 인사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이갑성의 독립운동은 학생들의 결집과 집단행동을 통해서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다.

그는 학생들이 조선 독립을 그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각 학교의 영향력 있는 학생 대표들과 자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민족자결주의로 한층 고무된 세계의 동향과 조선 내외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 등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손병희 등 민족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의 적극

3·1운동 직후의 이갑성과 서울역 4번 출구 앞의 사택터 표석

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1919년 2월 20일 밤, 서울 남대문로5가의 함태영 조사(助師, 지금의 전도사)의 집에서 함태영, 현순, 안세환, 오상근 등과 더불어 3·1운동을 계획한다. 1919년 2월 22일에는 학생들이 따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독립선언을 할 계획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갑성은 학생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 시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힘의 결집임을 강조하면서 손병희 등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에 함께할 것을 종용했다.

이갑성의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1운동은 '민족 지도자'라는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전 민중의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하루 동안의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닌 두 달 이상 지속되고 그것도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확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투쟁이 된다. 특히 2월 27일에는 기독교계 민족대표들과 함께 정동교회 이필주 집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검토하고 그 취지에 찬성하여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 날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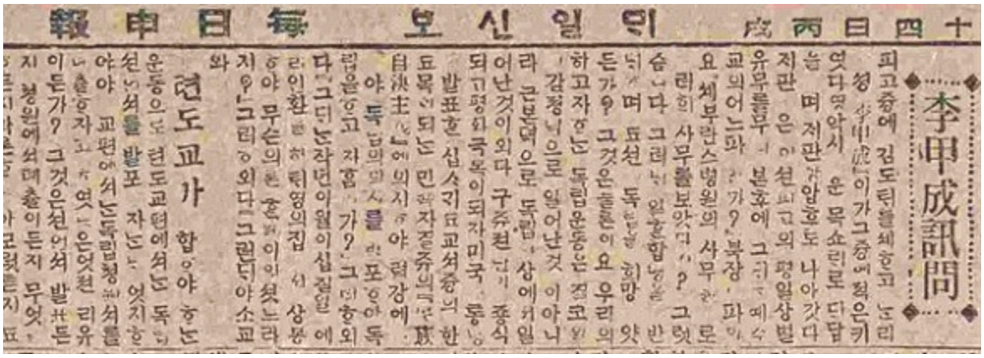
이갑성이 3·1운동에 기여한 바는 상당하다. 학생들의 결집과 참여를 이끌어낸 것에 더하여 독립선언서의 인쇄와 배포에도 그는 깊숙이 관여한다. 2월 28일,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 학생 이용설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학생들에게 교부토록 했으며,

3월 1일 당일에는 같은 세브란스 의전 학생인 이용상을 통해 대구의 이만집 목사에게 독립선언서 200매를, 그리고 마산의 임학찬에게도 같은 부수를 보내도록 한다. 또한 학생 김병수를 통해 전북 옥구군의 박연세 등에게 독립선언서 200매를 보내도록 했다. 이외에도 강기덕과 충청남도 천안에서 올라온 임영신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토록 했다.

이갑성은 민족대표 33인과 행동을 같이 했다. 민족대표 33인의 의견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러 간 것도 그였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그는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된다.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출옥 후 이갑성은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YMCA)의 회원으로 적극 활동했으며, 1924년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재단 이사, 세브란스의약 지배인이 되었다. 1925년 2월에는 이창제, 현신덕, 조철호, 배집, 변성옥 외 5인과 함께 '시사구락부'를 조직하여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주장에 저항하였다. 1926년에는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이사로 선출되었고, 1931년 주식회사 경성공업의 경성공장 지배인이 되었다. 1927년부터는 허헌, 김병로, 이인, 허정숙, 조병옥 등과 함께 신간회를 결성했는데, 1933년에는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였다.

1938년에 귀국 한 후 이갑성은 흥업구락부에서 활동했으며 1940년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7개월 간 복역하였다.


每日申報 　 매일신보

李甲成訊問

〈매일신보〉 1920년 9월 25일자에 실린 이갑성 심문 기사

이갑성은 밀정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1933년 신간회 사건으로 체포령이 내려졌는데, 이갑성은 곧바로 상해에 망명한다. 이때부터 일제의 밀정으로 일했다는 주장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게다가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 최린, 정춘수와 함께 창씨개명을 한 이력도 있었다. 훗날 이 논란은 신문과 잡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여기에 SBS도 가세하였다. 2005년 3·1절 특집 뉴스추적 '누가 변절자인가' 편에서 SBS 이갑성의 친일 의혹을 면밀히 검증했는데, 여기서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밀정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31]

“나의 믿음은 조선의 독립”, 신석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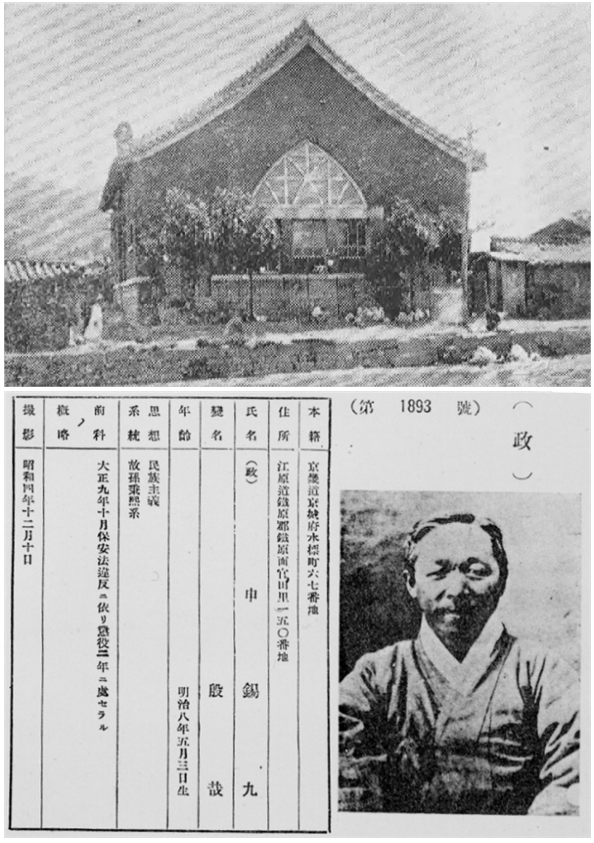
수표교교회의 신석구 목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중 한 사람인 신석구(申錫九, 1875~1950) 목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18년 11월부터 수표교교회에 봉직하였다. 기독교계 대표로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후 2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가 살았던 사택터와 수표교교회 자리는 1980년대 도심 재개발로 현재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다. 당시 주소는 ‘경성부 수표정 65번지’였는데, 현재는 ‘서울 중구 수표동 65-3’으로 바뀌었다.

신석구 목사는 1875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다 20대 후반(1907년 무렵) 기독교에 입교해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전도사로 일하다가 1917년 6월 남감리회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듬해 수표교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

수표교교회는 1906년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가 당시 수표동에 있던 구한말 한

성판윤(지금의 서울시장)의 기와집을 매입하여 한인수 전도사와 함께 20여 명의 신도를 모아 문을 열었다. 1909년 '민족이 마주한 어둠을 신앙의 빛으로 밝히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과연 3·1운동 당시 6대 목사인 신석구 목사가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이때 함께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오화영·정춘수 목사가 각각 이 교회의 7대, 15대 목사를 지냈다.



초기 수표교교회와 일제경찰의 신석구 목사 사찰 카드

그러면 신석구 목사는 어떤 계기로 3·1운동에 민족대표로 가담하게 되었을까. 그는 1919년 2월 20일경 오화영 목사로부터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그리고 불교계가 연합하여 합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할 거라는 천지가 진동할 계획이었다. 그는 별 고민 없이 함께할 것을 흔쾌히 승낙한다. 조선 사람에게 조선의 독립선언은 고민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19년 2월 27일 기독교 측 대표들이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목사 집에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때도 신석구 목사는 빠지지 않았다. 그는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마지막 서명자로 참여했다. 3월 1일 태화관의 독립선언에도 자리를 지켰으며 다른 민족대표와 함께 연행되었다.

1919년 3월 18일 서대문 감옥에서 검사가 심문을 시작한다. 그는 신석구 목사의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살펴본 후 이렇게 묻는다.

"피고는 조선의 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는가?"

신석구 목사는 거침없이 대답한다.

"그렇다. 될 줄로 생각한다."

검사가 또 묻는다.

"장래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이번에도 거침이 없다.

"그렇다. 나는 한일합방에도 반대하였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는 할 생각이다."[32]

또 다른 일화도 있다. 1919년 5월 5일 경성지방 법원 예심심문에서의 일이다. 판사가 신석구 목사에게 묻기 시작한다.

"피고는 조선의 국민성을 잃지 않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조선 독립을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신석구의 답은 간단명료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33]

신석구 목사는 3·1운동 이후에도 일본이 요구하는 신사참배와 전승 기원 예배를 거부하였다. 감리교단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많은 목사들이 일제의 강요에 굴복하여 이를 따를 때에도 신석구 목사는 격렬히 반대했다. 특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대동아 전쟁 전승 기원 예배'가 대대적으로 열렸을 때도 그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940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창씨개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그는 창씨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34]

3. 시대의 부름에 답한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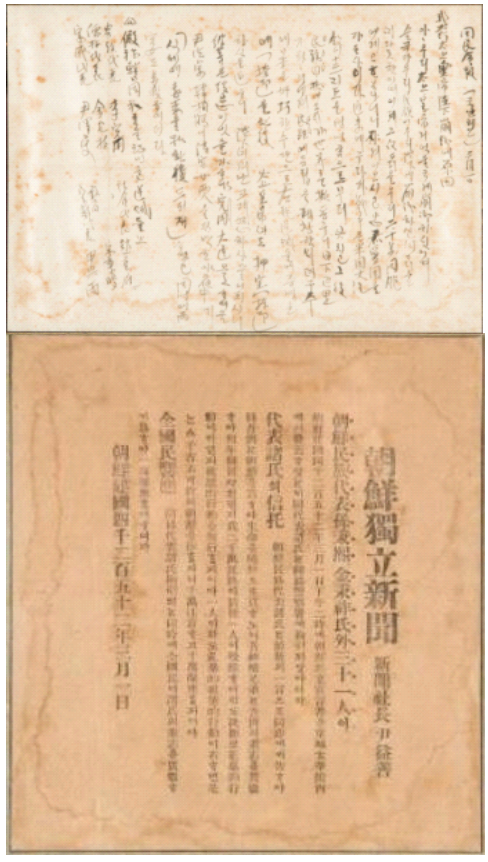
학생들이 주도한 2차 만세시위

3월 1일 오후의 대규모 만세시위는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석 달이나 지속될 만세운동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3월 1일 당일 저녁만 해도 3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대한문 앞에서 만세를 외쳤고, 20시 경에는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 2백여 명의 학생이, 23시 경에는 마포 전차 종점 부근에서 약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독립 만세를 외쳤다.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운동과 동시에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지에서도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사전에 이미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독립선언과 시위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매일 1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났다. 4월 1일에만 67회의 시위가 그리고 3월 27일과 4월 2, 3일은 50회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다. 적어도 3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난 날만 꼽아도 15일에 달할 정도였다.[35]

시위 형태도 무척 다양했다. 3월 1일에 일어난 예의 만세시위를 비롯해, 시골 장터를 중심으로 '장터만세시위'도 있었고, 한밤중 산상에서 봉화를 이용한 '봉화시

위', 만세꾼들의 조직적 시위, 지역과 지역이 서로 이어받고 이어주는 '릴레이 시위', '상여시위'(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시신을 메고 시위하는 것), 상인들의 '철시 시위'(상점 휴무), 학생들의 '동맹휴학 시위', 노동자들의 '파업'과 일부 성난 민중의 '순사주재소 습격' 등의 형태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들과 거지들, 기생들도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합하면 2,000회 이상, 연인원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이 된다.[36]


朝鮮獨立新聞

3·1운동 당시 발행된 지하신문인 「국민회보」와 「조선독립신문」

다시 서울의 상황을 살펴보자. 3월 1일에 이어 2일에도 시위가 벌어졌다. 오후 12시 20분 약 400명의 노동자들이 종로 사거리에서 모여 만세를 부르며 종로경찰서 쪽으로 향하다가 제지되는 사건이었다. 이때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되었다. 3월 3일은 고종의 국장일로 남촌의 외곽 지대이자 유곽이 위치한 신정(新町) 일대에서 산발적 시위가 있었다. 그날 밤, 시위가 거의 누그러졌다고 오판한 조선군사령부는 1개 중대를 부대로 복귀시키기도 했다.[37]

3월 4일이 되자 발행처 미상의 지하신문인 「국민회보」[38]라는 격문이 전차와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헌병대는 학생들이 5일 대한문 앞에 모여 시위를 벌릴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3월 5일 새벽 보병 1개 중대를 대한문으로 보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학생들은 이미 남대문역 앞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3월 5일, 오전 9시, 남대문역 광장에서 불꽃처럼 일어난 제2차 만세시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 자리에 있던 남대문역사(1910년대)

당시 학생대표였던 강기덕, 김원벽, 한위건 등은 3월 3일 만나 두 번째 만세시위를 계획한다. 3월 4일, 장채극, 전옥결, 강우열 등을 배재고보 기숙사로 소집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학생 동원 방법, '붉은 천 배포' 등 시위 준비 사항 등을 꼼꼼하게 논의한다. 강기덕과 김원벽에게 시위대 지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게 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학생대표들은 서둘러 돌아가 비밀리에 연통하여 학생들의 결집을 준비하였다.

다시 남대문역 광장이다.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였다. 고종 국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9시가 되자 인근에 숨어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 나오더니 광장은 인산인해가 되어버린다. 물론 일반인들이 더 많았다. 조선군사령부 추산 1만여 명이 운집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대문 쪽에서 인력거를 타고 한 사람이 나타난다. 손에는 '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들었는데, 역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독립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했다. 군중은 이에 호응해 너나할 것 없이 '독립 만세'를 불렀다.[39] 남대문역 일대가 만세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할 무렵, 학생들 중 누군가가 붉은 천을 나눠 주기 시

3월 5일 이후의 시위 양상

일자	내용
3월 5일	○송현동 이인식의 집에서 도쿄 유학생 및 서울 학생 63명이 비밀리에 회합
3월 6일	○경찰, 가택수색 등으로 경성부 내 학생 43명 검속
3월 8일	○「경성시 상민일동 공약서」라는 격문 발견. 9일 폐점과 시위운동 참여 독려 ○용산인쇄국 직공 등 200여 명의 직공들이 독립만세를 외침
3월 9일	○전기회사 차장과 운전수들이 파업 시도. 일부 상인 폐점 ○경성 시외 왕십리 부근에 1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 합창
3월 10일	○격문과 지하신문 발견. 관계자 6명 체포 ○상가 폐점 지속, 경성 내 각 회사의 직공들 동맹파업 실시
3월 12일	○전기회사 차장과 운전수 전원 복업, 조선인 상가도 점차 개점 ○서린동 요리점 영흥관에서 김백원, 문일평, 차상진, 문성호, 조형균, 김극선, 백관형 등 지식층이 모여 '13도 대표자' 명의로 "조선 독립은 이천만 동포의 요구다. 우리들은 손병희의 후계자로서 조선 독립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애원서를 보신각 앞에서 낭독함

작한다. 사람들은 붉은 천을 받아들고 열렬히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다.[40]

대열을 형성한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남대문의 경찰 저지선을 뚫었다. 시위대는 둘로 분기했다. 한 무리는 남대문통을 따라 조선은행 앞을 거쳐 종각 방면으로 향했고, 다른 무리는 남대문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무교정을 지나 역시 종각으로 갔다. 이날 검거된 사람 중에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77명으로 대부분 학생이었다. 그중 6명은 여학생으로, 다수의 여학생들도 소위 '간호부대' 등의 형식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것이다.

3월 5일 이후의 주요 시위 양상을 일별하면 위의 표와 같다.[41] 3월 22일 노동자대회 전까지 서울에서는 산발적으로 시위가 지속됐다. 규모는 3월 1일과 5일에 비할 수 없었지만,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했다. 시위를 놓으면 언제든지 화살이 과녁으로 돌진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던 차에 조선약학교의 김공우가 휘문고보의 정지현에게 '조선 독립은 노동자 계급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정지현은 잡화상 배희두에게 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독립운동

만세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

에 나설 것을 적극 종용했다. 용산인쇄국 직공과 동아연초회사 노동자들의 만세운동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그러던 차에 김공우는 정지현에게서 22일 경성부 봉래정 공터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곧바로 중림동, 화천정 부근의 노동자들을 모아서

대회 참여를 독려했고, 대회에 모인 군중과 함께 의주통에서 아현 방향으로 행진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엄창근은 일행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주도했으며, 곡물상 신형균도 프랑스영사관 앞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자는 연설을 해 시위대를 고무시켰다.[42]

이리하여 서울의 만세시위는 급속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3월 23일 오후 8시부터 500명 내외의 군중들이 동대문 부근, 동소문 내 미생정, 원정 등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당시 행정구역상 고양군 지역이던 동묘리, 돈암리, 청량리, 왕십리, 마포, 양화진, 수색, 녹번고개, 동막, 당인리, 행주, 창천리, 구파발리에서는 1,000명 미만의 군중이 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점점 더 과격해졌다.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 그동안 경성시내가 대개 평온은 되엿섯스나 한갓 시내 각처의 상점을 닷치고 모다 휴업을 하얏더니 지나간 22일 밤 11시에 단성사 활동사진관에서 10분 휴식할 동안 엇던 학생 한 아이 무대에 올러서서 구한국 국기를 내여 들으며 만세를 불으매 일반 관람자들도 이에 응하야 만세를 고창하고 일시 대소요가 일어난 뒤 시중은 오히려 불온한 기세로 충만되야 무슨 일이 날 뜻한 위험에 빠졋더니 그 잇흔날 23일 밤 9시부터 경성 시내가 물끌틋 하며 경성을 중심으로 아래에 기록한 각처에서 소요가 이러낫는대 동대문과 마포 부근에서 군중이 전차 20채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각처에 돌을 던져서 폭생을 하얏으며 부상한 사람이 약간 명이나 잇스며 수모자로 인정하는 자를 일백수십 명이나 체포하얏는대 종로경찰서의 손에 80여 명이오 용산헌병분대의 손에 10여 명이 체포되얏더라[43]

3월 24일, 시위대 중 일부는 전차에 돌을 던졌으며, 녹번고개에서는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검거된 주모자 7명을 탈취하기 위해서였다. 용산 원정3정목 전차 정류장에서는 70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면서 전차에 돌을 던졌다. 26일에는 안국동 경찰파출소에 투석한 일로 29명이 체포되기도 했다.[44]

공식적으로는 1919년 5월 말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

나 3·1운동은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태가 되었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는 '3·1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였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안신영

배재고보 동문들의 활약상

배재학당 동문들의 활약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배재학당 출신의 수많은 인물들 중 이승만, 여운형 등 국민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나 기억에서 점차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 안신영과 오의명, 송흥국, 정태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1918년에 배재학당을 졸업한 동기동창생으로 만세시위 당시 활발하게 참여했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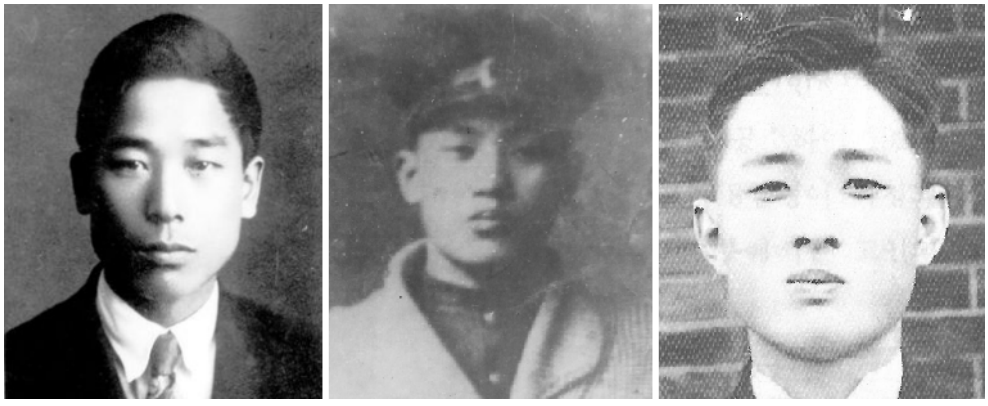
안신영은 당시 연희전문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같은 학교 정성봉, 정성룡, 김술근, 윤내진 등과 함께 시위대를 조직하여 3월 1일 남대문에서 출발하여 대한문과 서대문에 이르는 거리 시위를 주동했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감리교계 협성신학교(지금의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오의명은 탑골공원의 독립선언식과 종로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황해도 연백 창동학교 교사로 나가 있던 송흥국은 동료 교사 및 교인들과 함께 3월 30일 배천읍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19년 3월 최은희에게서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전달받고 그녀의 집에서 등사했으며 조면식 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다.

정태희는 황해도 풍천 양천소학교 교사로 있던 중 3·1운동을 맞는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학생 김원벽으로부터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전달받고 이를 배포하였다. 풍천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다.

김단야와 황도문, 홍호, 고희준, 염형우 등의 활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단야



왼쪽부터 김단야, 고희준, 염형우. 만세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의 본명은 김태연. 그는 1917년 일본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다니다가 같은 해 9월 귀국해 배재학당에 입학했다. 1919년 3월 말, 김단야는 고향인 경북 김천에서 3·1운동에 가담해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태형 90대를 언도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김교훈 등과 지하 비밀 신문 《신한별보》를 발간하다 발각되기도 했으며, 비밀결사 적성단(赤星團)에 들어가 조선에 파견된 만주군정서 요원에게 군자금 813원을 내주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훗날 그는 상해로 망명하여 박헌영과 임원근을 만나게 된다. 세 사람은 삼인당(三人黨)이라 불리며 조선 독립을 위해 활동한다.

황도문은 1914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3·1운동 당시 제1차, 제2차 시위에 모두 참가했으며 그 후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등 유인물을 갖고 고향인 강화도 길상면으로 가서 선두교회 교인 황유부와 염성오, 유봉진 등과 함께 3월 18일 강화읍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홍난파의 숙부이기도 한 홍호는 1916년 배재고보에 입학한다. 그의 고향은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였으며, 당시 형 홍순과 함께 정동 14번지 외인주택 경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홍순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어 교사였다. 3·1운동 때 배재고보 한문교사였던 김진호의 지시를 받아 독립선언서의 등사를 지시받고, 정동교회 담임목사였던 이필주의 지원을 받아 예배당 파이프 오르간 뒤에서 영문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다. 러시아, 영국, 미국 영사관에 배포한 후 경찰에 검거되었으나 기소 중지

로 석방되었고, 곧바로 복학하여 1920년 4월 배재고보를 졸업하였다.

충북 당진군 마암면이 고향인 고희준은 3·1운동 당시 배재고보 3년생이었다. 그는 광화문(3월 1일)과 보신각(3월 2일) 부근 만세시위에 참가했다. 3월 8일 저녁에는 배재고보 4년생 임창준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0매와 배재고보 교사인 강매와 김진호가 작성했다는 《시민대회 취지문》 10매, 상인들의 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대회》라는 인쇄물 10매를 받아 이튿날 종로구 봉익동에서 행인들에게 배부하였다. 3월 23일 저녁 종로 단성사 앞에서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연설을 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3·1운동 당시 배재고보에 재학 중이던 염형우도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3월 13일 그는 장용하, 서정기, 이춘봉 등과 함께 등사판으로 "8면(面)에서 관찰한 조선의 참상"을 비롯하여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이래로 조선민족은 일본인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쇄물 20여 부를 작성·배포했다. 또한 3월 22일과 25일는 항일 유인물 《반도의 목탁(木鐸)》 3호 등을 인쇄하여 배포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배재고보생 김동혁의 편지

배재고보 2학년생이었던 김동혁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는데 이때 헌병보조원에게 한 통의 편지를 빼앗긴다. 편지에는 3월 1일 이후 그가 한 일이 모두 적혀 있었다. 열아홉 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동혁은 독립선언서는 물론 《조선독립신문》 1, 2호를 비롯하여 여러 격문을 비밀리에 배포하는 활동을 펼쳤다.

만세시위에 참여한 후 경찰의 추적이 본격화되자 김동혁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고향인 홍천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서울에 남아 있을 작은아버지 김홍제가 떠올랐다. 동혁보다 여덟 살 위인 김홍제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다녔고, 역시 3·1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빼앗긴 편지에는 자신의 일로 작은아버지가 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동혁에게는 편지를 전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품에 넣은 채 고향으로 향하다 그만 체포되고 만다. 작은아버지에게로 갈 편지는 헌병대 손에 빼앗겨 엉뚱하게 '폭동' 참여의 증거로 사용된다.

작은아버님께 올립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고 총을 잡고 칼을 든 양반이 시위를 하는 이때에 나라의 활동가는 분주히 힘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사방에서 형사가 활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전일 저의 비밀행위는 알고 계시다시피 선언서 배달과 독립신문 1·2호의 배달과 기타 호의 배달의 책임으로써 지금까지 사방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하숙집에는 혼자만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므로 자연히 주목을 받은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작은 일로 그들에게 체포되어 수일간 구류를 당하는 것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되지만 어떻게 하오리까.

죄송하지만 저는 서울을 떠나오니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후일 독립기가 휘날리고 전승고(戰勝鼓), 독립고(獨立鼓)가 울릴 때는 서울을 떠난 일이 면목 없는 일이 되겠지요. 숙부님 몸조심하시고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46]

배재학당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재고보 동관

김동혁은 스스로 편지에 적은 내용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비롯한 각종 격문들을 자신이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작은아버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당시 일제는 3·1운동에 참여한 조선인들에게 온갖 죄명을 뒤집어씌워 무겁게 처벌하고 있었다. 김동혁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예심에서 판사가 물었다.

"피고는 학생이면서 어째서 이번 계획에 가담했는가?"

김동혁은 담담하게 답했다.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47]

김동혁의 대답만큼 3·1운동에 대한 조선인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이 있을까. 조선 사람에게 조선의 독립의 바라는 것은 숨을 쉬는 일만큼이나 당연한 것이었다. 도덕적 판단이나 당위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김동혁의 수형자 카드

2차 시위가 기획된 배재학당 기숙사

배재학당 기숙사는 현재 정동 배재빌딩이 위치한 자리에 있었다. 『배재 80년사』에 의하면 당시 배재고보 기숙사는 지금의 정문 수위실 뒤 남관(아펜젤러관) 자리에 있었는데, 회화나무를 배경으로 찍은 당시 기숙사 사진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회화나무 옆 배재정동빌딩 입구 표지판 주변이라고 한다. 배재고보 기숙사는 학생들이 주도한 3월 5일 제2차 독립만세시위가 기획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날의 학생 시위로 3·1운동의 불씨는 되살아났으며 서울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그리고 한인들이 이주한 국외 곳곳으로 뻗어나가 조선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1919년 3월 4일 오전, 한위건을 비롯한 경성부 내 전문학교 학생대표와 장채극, 전옥결, 강우열 등 중등학교 대표들이 배재고보 기숙사에 하나둘 모여 들었다. 이날의 논의는 제2차 독립만세시위에 관한 것이었다. 학생대표들은 3월 5일 오전 9시를 기해 남대문역 광장에서 2차 시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조직적이고 용의주도한 시위 진행을 위해 지휘는 김원벽과 강기덕에게 맡기기로 한다. 남은 일은 3월 1일의 뜨거웠던 만세시위를 다시금 재현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불씨

배재고보 기숙사의 초창기 모습

를 퍼트리는 것이었다. 학생대표들은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위해 각 학교로 돌아가 학생 동원을 독려하는 등 그 준비로 동분서주한다.

3·1만세시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역이다. 학생들이 D-데이로 정한 3월 5일 오전 9시. 이틀 전 고종의 국장 행사를 참관했던 각지의 사람들이 귀향을 서두르는 터라 서울역은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3월 1일 당일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검속했던 군경이 또 다른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지 도끼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으니 서울역 앞의 풍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곧바로 터져버릴 듯했다.

그 정적은 곧 깨져버린다. 열화와 같은 시위대의 운집과 독립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학생들의 출현이 시계를 다시 3월 1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약속한 시각이 가까워지자 남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수백 수천 명으로 불어났고 어린 여학생들까지 나서 "독립 만세!"를 큰 소리로 외쳤다. 새벽부터 서울역 부근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학생들이, 그 순결한 조선 독립의 염원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3월 5일 제2차 만세시위를 주동한 학생대표들. 왼쪽부터 강기덕, 김원벽, 한위건

연이어 두 명의 학생이 나타나 시위대를 이끌고 3월 1일의 불꽃을 되살려냈다. 학생들이 운집한 후 인력거 한 대가 나타났는데, 짙은 고동색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학생이 인력거에서 벌떡 일어나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의 손에 쥐어진 "조선독립"이라고 적힌 웅장한 필체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며 바람을 갈랐다. 이번에는 흰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한 청년이 예의 커다란 깃발을 휘두르며 군중을 선도했다. 짙은 고동색 두루마기 차림의 학생은 연희전문학교 대표 김원벽이었고, 흰 두루마기의 학생은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대표인 강기덕이었다.

서울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독립 만세를 외치는 두 청년 학생의 목격하자 다시금 온몸에 바늘이 돋는 듯했다. 마음은 이미 기울었고, 몸은 저절로 학생들의 함성에 맞춰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일본 군경마저 집어삼킬 듯했다. 서울역을 오가던 군중들이 남녀 학생들의 함성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기획한 제2차 독립만세 시위는 실로 대성공이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도 3월 1일 시위 때보다 세 배나 더 많았다. 이후 만세 운동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모두 1,542회의 만세시위가 열려 총 202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중 4만 7천여 명이 체포되었고 7,509명이 사망하였다.

3월 5일의 만세시위와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 서울 수송동

소재 천도교계의 보성사(普成社)가 3월 1일자로 창간한《조선독립신문》제3호에 게재된 '제2차 만세운동'과 관련한 기사가 그것이다. 기사를 읽어보면 2차 만세운동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시위의 흐름과 내용도 구체적이면서도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5일 오전 9시 남대문정거장에서 ○○한 혁명기를 앞세운 수만의 부민府民 대오는 독립가를 부르고 온 천지가 만세 소리인 속에서 행진하여 남대문 내에 이르니, 수백의 일본 헌병 순사가 칼을 빼들고 난자하고, 또 일본 시민이 우리 시민을 부엌칼로 마구 찔렀다. 사상자 20여 명, 체포된 자 수백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은 용감하게 행진하여 기세는 점점 더 맹렬해졌다.[48]

확실히 시위를 취재한 후 쓴 기사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이 기사는 하루 전 날 쓰인 예측 기사라고 한다. 이종린이 3월 4일에 원고를 작성했고, 장종건이 같은 날 인쇄를 끝냈기 때문이다.《조선독립신문》3호는 호외와 함께 모두 900여 부가 인쇄되었다.《조선독립신문》은 당시 만세시위를 상세히 전했으며, 민족항일기의 지하신문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했다.[49]

남대문역전 학생단 만세시위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에서 헌혈의 집 방향으로 나아가면, 서울역 파출소가 나온다. 그 근처에 2000년에 세워진 표석이 하나 서 있는데,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소강상태에 있던 3·1운동의 불씨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3월 5일 '남대문역전 학생단 3 · 1운동 만세시위지'를 표시한 것이다. 정확한 위치는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3 서울역 역전우체국 앞"이다.

남대문역전 학생단 만세시위지 표석

1919년 3월 4일 오전 9시. 경성부 소재 학교 대표들이 배재고보 기숙사에 모여 제2차 만세시위를 논의한 끝에 3월 5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시위가 산발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다.

당일 아침, 남대문역 광장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군중이 집결해 있었다. 시위를 위해 나온 학생들도 많았지만, 고종의 국장을

참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중 상당수는 3월 1일 만세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연희전문학교 김원벽과 보성법률상업학교 강기덕이 인력거를 타고 '조선독립'이라 크게 쓴 기를 휘두르며 달려왔다. 시위 소식을 전하는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도 뿌려졌다.

1923년 경성역이 신축되기 전의 남대문역사

이 드라마와 같은 광경에 고무되어 감격한 군중들이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한다. 김원벽과 강기덕은 몇 번이고 남대문역 광장을 종횡무진 하다가 남대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을 알리는 신호였다. 붉은 천을 두른 학생들이 격문을 뿌리며 시위대를 이끌었는데, 그 사이 시위에 동참하는 군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남대문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일제 경찰들과 헌병들이 김원벽과 강기덕 등 학생 지도부와 시위대를 검속하려 달려들었다. 그러자 시위대는 여러 대오로 나뉘어 검속을 피했다. 큰 흐름을 보면 남대문시장에서 조선은행 앞을 지나 보신각으로 향하는 대오와 남대문에서 대한문 앞과 무교정을 거쳐 종로 보신각으로 향하는 대오로 나뉘었다.

대한문 앞에서 1만여 명의 군중들이 만세시위를 한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 정오 무렵 여러 대오로 나뉘었던 시위대가 보신각에 집결해 만세를 외치다가 강제 해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 군경들이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대적으로 검문했기 때문에 3월 1일처럼 서울 중심가에서 대규모의 시위는 일어나지 못했다.

金元壁氏長逝

그부인은단지와지해

황해도사리원동리(沙里院東里)
김원벽(金元壁)씨는일마전부터
우연이 병마에걸리어 신음하든
중지난구일오후여섯시경에는그
의부인아단자주혈한효과도업시
삼십오세를일긔로한만흔이생을

만세시위 후 2년여의 옥고를 치른 김원벽의 사망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1928년)

3월 5일 학생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위 소식을 어떻게 전해들은 것일까. 박찬승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5일의 시위는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도하고, 중등학교 학생들은 이에 뒤따르는 식으로 계획되었는데, 실제로 그 순으로 진행되었다.

3월 4일 오후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5일 오전 9시 남대문역 집결"이라는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중앙학교 학생 한호연은 4일 밤에 상기 내용의 종이쪽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용규는 동숙하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고, 경성공전의 김대우는 정중섭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보성고보생 민찬호는 같은 하숙집 학생 이철, 도상봉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5일의 시위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50] 특히 중동학교 김종현과 경성보고 3년 최강윤, 국어보급학관 채순명은 안국동 하숙집에서 통고문 400여 매를 제작해서 중학동, 수송동과 송현동, 소격동 방면에 배포했다. 이처럼 3월 5일 학생 만세시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51]

3·1정신의 상징, 유관순 열사

3·1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다. 17세의 학생 신분으로 스스로 독립운동에 대해 자각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온가족과 함께 만세시위를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소녀. 그녀는 끝내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고 만다. 바로 유관순 열사다.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 내에는 1974년 유관순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짧지만 숭고했던 유관순의 생애를 살펴보자.[52]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부친 유중권과 모친 이소제 사이의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일찍부터 유관순 집안은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그녀도 개신교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다. 1916년에는 선교사였던 샤프(Alice Hammond Sharp)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게 된다. 교비유학생 신분이었다. 이후 사촌 언니인 유예도와 서명학, 이정수 등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1918년 3월 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1일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한 유관순은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서거하자 동료 학생들과 함께 자진해

이화박물관에 설치된 유관순 교실과
이화학당 시절의 유관순(뒷줄 맨 오른쪽)

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갔다. 마침내 3·1운동이 시작되자, 유관순은 '5인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남대문으로 향하는 시위 행렬에 합류한다. 5인의 결사대는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 등 동료 학생들과의 결의로 만들어졌으며, 이 결사대는 소복 차림으로 대한문 앞에서 망곡(望哭)을 했다.

아마도 유관순을 비롯한 이화학당 학생들은 독립을 열망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숙사 뒷담을 넘어 남대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17세에 불과한 소녀들이 외치는 만세 소리는 그 어떤 합창보다도 높고 멀리 울려 퍼졌다. 유관순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들이 소용돌이쳤다.

> 나라님이 왜놈들 손에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뭔가를 보여 줘야 한다고요.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해요!
>
> 내 나라에 쳐들어온 너희에게 나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나라에서 당당한 일을 했을 뿐이다![53]

이후 3월 5일에는 학생단이 주도한 제2차 독립만세시위에도 참여했다.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는데, 관순은 13일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고향에서도 독립운동을 향한 관순의 열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유관순은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의 만세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품에 숨겼던 독립선언서를 꺼내 놓았다.

"여기 아우내에서도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2019) 포스터

날짜는 4월 1일로 정해졌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우내 장터로 하기로 한다. 유관순과 사촌 언니 유예도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만세시위 당일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하여 모두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3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유관순은 시위 주동자로 검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여기서 친오빠인 유우석을 만난다. 5월 9일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받고, 경성복심법원으로 넘겨진다. 6월 30일에 다시 3년형을 언도받았는데 함께 재판받은 사람들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유관순만은 이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제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0년 3월 1일. 조선 팔도를 비롯해 조선인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독립 마세를 부르짖은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이신애, 어윤희 등과 함께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다. 형무소에 수감된 3천여 명의 수감자들도

이에 동조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실로 천지가 진동하는 엄청난 함성이었다. 형무소 주위로 인파가 몰렸고 전차 통행이 마비되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진 고문을 당한다. 1920년 4월 28일 영친왕 결혼 기념 특사령으로 유관순의 형기도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지만 이미 고문과 영양실조로 만신창이가 된 몸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은 순국하였다.

당시 유관순 시신 수습과 관련한 잊을 수 없는 일화가 있다. 이화학당 교장이었던 월터(Miss Jeanette Walter)는 유관순의 시신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제가 거절하였다. 월터 교장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사실을 미국 신문에 알려 세계 여론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일제는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해외 언론에 일절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시신을 인도했다고 한다.

1920년 10월 12일, 유관순의 시신이 이화학당 교정으로 돌아왔다. 시신은 이화학당 수위실이 안치되었고, 세브란스 교의가 시신을 수습했다. 10월 14일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이태원 공동묘지에서 장례를 지냈다. 그러나 일제가 이

유관순 열사의 수형자기록카드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유관순열사기념관

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미아리 공동묘지로 옮겨졌다가 그 후 실전되고 만다. 현재 유관순 생가 뒤편 매봉산에 초혼묘가 조성되어 있다.

정동의 유관순열사기념관은 다른 독립운동기념관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건축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1974년 완공 이후 여러 차례의 증축을 통해 현재 1700석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이화인의 시작과 끝인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곳에서 거행된다. 또한 유관순 상 시상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2층은 전시실로 구성되어 수의를 입은 유관순 열사의 사진 등 유물과 일제 강점기의 참상을 담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근처에는 열사의 동상과 빨래를 했다는 유관순 우물터가 남아 있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4길 30-1'이다. 참고로 부근의 이화박물관 안에는 유관순교실이 있는데, 당시 교실의 모습을 충실히 옮겨놓았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이화학당 시절의 모습을 영상으로 상영하고 있다.

4. 뜨거웠던 만세시위 현장, 중구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공원을 빠져나오면서 두 갈래로 나뉜다. 길을 따라 각기 방향을 잡다가 다시 합쳐졌으며, 각개 전투하듯 흩어졌다가도 이내 모였다. 시위대가 목청껏 외친 것은 "조선독립 만세!"와 "조선 독립정부를 수립하라!", 그리고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단조로운 세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혀끝에서 형체를 갖추고 심장을 움켜쥐었다가 다시 터져 나왔을 때 이 땅의 민초들이 보았던 것은 단순한 분노나 열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 바로 그 자체였다.

이런 일화도 있다. 한 갈래의 시위대가 서대문을 돌고 태평로를 지나 미국 영사관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학생이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에 피를 흠뻑 먹은 '대한독립' 네 글자를 썼다. 그리고 태극기와 함께 높이 들고서는 군중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미국 영사가 문을 열고서는 조선 민중의 뜻과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아 동의를 표했다는 것이다.[54]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의 3·1운동은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 소개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서울 주재 총영사로 1911년에 부임해온 '류트쉬'[55]는 반혁명 임시

덕수궁 앞을 행진하는 만세시위대

정부 외무부의 지시를 받고 있던 크루펜스키 대사에게 조선의 3·1운동 상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써서 보낸다. 특히 1919년 3월 31일자 보고서는 3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전국적인 만세시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보고서에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백작의 철권으로 조용해졌던 조선인들의 민족 운동이 그의 정책을 이은 하세가와 요시미치(제2대 총독) 원수 통치기에 전 세계를 휩쓴 민족자결주의 흐름을 타고 서울은 물론 조선의 벽촌에서도 일본 압제에 항거하는 시위를 통해 환한 불길처럼 타올랐다"고 적으면서 놀라움을 표하였다.[56] 또한 "대규모 경찰, 헌병, 한반도에 주둔한 2개 사단 규모의 군사력도 일본인들에 대한 조선인의 불만 함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57]이라고도 적었다. 그만큼 3·1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향한 민중들의 분명한 태도와 의지의 집결이었으며, 그것을 실행에 옮긴 힘의 놀라운 분출이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마친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도 하나둘씩 모여 거대한 강으로 돌변한 시위대의 방향을 주도하였다. 우왕좌왕할 수 있는 흐름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 양분한다. 시위대는 남향을 기준으로 크게 공원의 서쪽과 동쪽으로 나뉜 것이다. 시위대의 큰 흐름부터 살펴보자.

1. 공원 동쪽으로 향한 대열은 '창덕궁 앞', '안국동', '광화문 앞', '서대문정'을 지났고, '프랑스영사관'에 이르러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한 갈래는 '서소문정'으로 향했고 다른 한 갈래는' 미국영사관'(또는 영성문), '대한문 앞', '장곡천정', '본정', '종로', '동대문' 등으로 향한다.

2. 공원 서쪽으로 향한 대열은 '종로1정목 전차 교차점'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한 갈래는 '남대문정거장', '의주통', '미국영사관', '이화학당', '대한문 앞', '광화문', '조선보병대 앞', '서대문정', '프랑스영사관', '서소문정', '장곡천정', '본정2정목'으로 향했고, 다른 한 갈래는 '무교정', '대한문', '미국영사관', '대한문 앞'에 이르러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한 갈래는 '광화문', '조선보병대 앞', '서대문정', '프랑스영사관', '서소문정', '장곡천정', '본정'으로 향했고, 다른 한 갈래는 '창덕궁', '안국정', '광화문 앞', '프랑스영사관', '서소문정', '서대문정', '영성문', '대한문', '장곡천정', '본정'으로 향했다.[58]

탑골공원을 나선 시위대가 양분된 곳은 '창덕궁 앞'과 '종로1정목 전차 교차점'이다. 이후 흐름들은 각각의 분기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각 시위대 별로 몇 개의 장소들을 교차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점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는 시위대의 동선을 간단히 도식화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편의상 동쪽 갈래의 흐름부터 살펴보자.

창덕궁으로 향한 '동쪽 갈래의 흐름'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 방향의 시위대는 탑골공원과 대각선을 이루는 '창덕궁 앞'으로 가고, '안국동'으로 내려오다가, 경복궁이 있는 '광화문'까지 갔으며 '프랑스영사관'에서 분기하여 '서소문정'과 '미국영사관'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미국영사관' 쪽으로 향한 시위대는 경운궁이 있는 '대한문 앞'에서 다시 '장곡천정'까지 갔고, '본정'을 지나 '종로'에서 '동대문'으로 간다.

동쪽 시위대의 흐름

흐름 ①	분기점	흐름 ②	흐름 ③
창덕궁 앞	프랑스영사관 (충정로역 부근)		
안국동			
광화문 앞			
광화문네거리			
서대문정			
프랑스영사관 (충정로역 부근)		종로통	정동미국영사관
		동아연초회사 앞	대한문 앞
		동대문 부근	장곡천정(소공로)
			본정
			종로
			동대문

이 흐름의 특징 중 하나는 조선의 궁궐과 외국의 영사관들을 반복해서 지났다는 것이다. 전자는 '창덕궁'과 '광화문',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조선 왕조에 대한 예의와 호소였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영사관'과 '미국영사관' 등을 통해 세계열강에 조선의 현실과 독립에의 의지를 알리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성전수학교 학생 박승영의 일화가 있다.[59] 그는 시위대와 함께 프랑스영사관에 들어가 영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일본어로 "정의, 인도에 바탕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해 조선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 독립을 실현시키고 싶으므로 그 취리를 귀국의 본국 정부에 알려 달라"하고 요청했는데, 그는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이 흐름에서 지금의 서울 중구에 포함된 곳은 미국영사관, 대한문, 장곡천정, 본정 등이다. 시위대는 종로에서 출발했지만, 당시 정치, 외교, 행정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만세시위를 이어나갔던 것이다.

한편 '서쪽 갈래의 흐름'은 다소 복잡하다. 그들은 지금의 '종각' 부근에서 1차로 분기했으며, '남대문'에서 '본정2정목'에 이르는 흐름과 '무교정'과 '대한문 앞'에 이르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2차로 분기해 '광화문 앞'에

서쪽 시위대의 흐름

흐름 ①	분기점	흐름 ②	흐름 ③	분기점	흐름 ④	흐름 ⑤
종각	종각	남대문	무교정	대한문 앞		
		남대문역(서울역)	대한문			
		의주통(의주로)	덕수궁 내 돌입			
		정동미국영사관	정동미국영사관			
		이화학당	대한문 앞		광화문 앞	무교정
		대한문 앞			조선보병대 앞 (정부서울청사)	종로통
		광화문 앞			광화문네거리	창덕궁
		조선보병대 앞			서대문정	안국동
		광화문네거리			프랑스영사관 (충정로역 부근)	광화문 앞
		서대문정			서소문정	조선보병대 앞
		프랑스영사관 (충정로역 부근)			장곡천정 (소공로)	광화문네거리
		서소문정			본정	서대문정
		장곡천정				프랑스영사관
		본정2정목 (충무로2가)				서소문정
						장곡천정
						본정

서 '본정'에 이르는 갈래와 '무교정'에서 '본정'에 이르는 긴 갈래를 만들었다. 이 방향의 흐름도 '동쪽 갈래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서쪽 시위대의 흐름 중에서 돌발 변수가 하나 있다. 위 도표의 '흐름 ③'을 보면, 종각에서 분기한 시위대가 무교정을 거쳐 대한문으로 가는데, 시위대의 일부가 덕수궁에 진입한 것이다.

시위대는 서울의 중심부를 누비고 다녔다. 그런데 경찰들은 오후 5시 무렵에야 비로소 검거에 착수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위대의 갑작스러움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시위대의 인원 수 때문이기도 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기세와 열정의 차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행렬이 프랑스영사관에서 서소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였다. 저 멀리 기마헌병이 우뚝 서서는 행렬을 가로막았다. 시위대 중 누군가가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돌들이 한꺼번에 기마헌병을 덮쳤다. 결국 그들은 시위대로부터 도망쳤다고 유진혁은 회고했다.[60]

이들도 역시 본정, 지금의 중구 일대를 지나게 된다. '미국영사관', '이화학당', '대한문', '영성문', '장곡천정', '본정2정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위대의 흐름은 특징적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화문과 대한문은 궁궐의 정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같은 궁궐이라도 1919년 당시의 경복궁과 경운궁(덕수궁)은 차이가 있었다. 경복궁에는 궁궐의 주인인 왕이 부재하였지만 경운궁은 얼마 전까지도 '태황제' 고종이 기거하던 궁궐이었다. 사람들의 감각에서 '정궁(正宮)'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3·1운동 당시에는 고종도 부재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궁궐 문 앞을 지나간 목적이 왕에게 어떤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만 대한문의 경우 궁궐, 왕이 가지는 권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시위 때 일부 대열이 경운궁을 지나면서 대한문 안에서 만세를 외쳤고, 그 중 또 일부가 대한문 안으로 들어가 조례(弔禮)를 행했다. 특별한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 궁궐 앞에 사람들이 모여 만세를 하는 행위는 독립협회가 주최한 행사 때 시작되었다. 이는 독립협회가 창출한 새로운 문화의 하나로 국기나 애국가와 더불어 독립협회 때부터 3·1운동 시기까지 이어지는 민중 행동양식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위 행렬이 대한문 앞을 많이 지나간 것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이 시기까지도 국왕, 국왕이 기거하는 곳으로서 궁궐이 가지는 권위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두 궁궐 문을 빈번하게 지나간 것은 해당 문의 지리적 영향이 컸을 것이다. 광화문 앞은 조선시대부터 핵심 도로였던 광화문통의 시작점이고, 대한문 앞은 광화문통과 남대문을 이어주는 태평통이 지나가는 곳이었다. 특히 대한문 앞은 정동이나 황금정, 장곡천정 등으로 갈 수 있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시위 참여자들이 빈번하게 오갔을 것

이라 생각한다. 대한제국기 이래 형성된 도심부 교통 흐름의 출발점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영사관과 미국영사관 앞을 지나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영사관에는 각국의 외교관들이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영사관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국외로 알리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프랑스와 미국은 아니지만 재판 기록을 보면 김진호는 독립선언서를 러시아영사관 앞의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러시아영사관 관원에게 배포하고자 하였으며, 오흥순은 김진호의 의뢰로 독립선언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3월 1일 오후 2시 러시아영사관 관원에게 교부했다. 이런 기록에서 프랑스영사관과 미국영사관 앞을 지나간 시위대의 심정을 짐작해볼 수 있다.[61]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경복궁 광화문과 덕수궁 대한문을 시위대가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해당 문의 지리적 중요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광화문과 대한문 등은 서울의 주요 도로로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한 가운데 위치했음을 상기하자. 다만, 3월 1일의 만세시위대는 당시 서울의 중심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진행된 만세시위가 당시의 경성부를 넘어서고, 전국 단위의 주요 지역으로 확산된 것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방아쇠는 당겨졌다. 조선 민중의 시위는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동쪽이나 서쪽으로 향한 시위대는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서대문, 서소문, 정동, 종각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오후 4시 무렵에는 약속한 듯 일본인 거리인 '본정'(혼마치길)에 모여든다. 이유는 한 가지다. 바로 본정 남쪽의 남산 자락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때문이다. 시위대는 조선총독부에 가서 당당하게 "일본 군경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조선은 독립하겠다!"라고 요구할 태세였다.

이를 증언하듯, 총독부 경무국에서 총독 등에게 올린 보고와 총독부관방에서 작성한 『조선의 독립사상 및 운동』이라는 자료를 보면, "파고다공원을 나온 군중은 셋으로 나뉘어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제1대는 덕수궁으로, 제2대는 외국 영사관으로, 제3대는 가장 큰 무리를 이루어 총독부를 목표로 진로를 잡았다"고 썼다.[62]

총독부는 급히 조선군 사령관에게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소대를 용산에서 서울 시내로 파견한다. 혼마치 길에 대규모 시위대가 밀어닥치자 일제 군경은 지금의 충무로 2가인 혼마치2정목에 방어선을 치고 시위대를 총칼로 해산시켰는데, 혼마치를 중심으로 체포된 조선인만 134명이었다고 한다.[63]

한편 3·1운동에 대해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만세소요사건"(朝鮮萬歲騷擾事件)으로 기록하였다. '소요'란 그 뜻을 살피면, "뭇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한 지방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명명은 어쩌면 조선 민중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이념을 단순한 '소요'로 폄훼하여 일본인들의 무의식에 잠재한 '공포'를 억누르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1919년 3월 13일자에서 "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알려진 것 이상으로 3·1운동이 널리 퍼져나갔으며 수천여 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고 기록했고, 또한 AP통신은 "독립선언문에 '정의와 인류애의 이름으로 2,000만 동포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하였다.[64]

덕수궁 대한문 앞 만세시위

덕수궁(德壽宮)은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궁궐로서 사적 제124호이며 면적은 63,069평방미터다. 원래의 면적은 현재보다 훨씬 넓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축소되었다. 본래 이름은 경운궁(慶運宮)이었다. 조선 초기 세조가 남편을 잃고 궁궐을 떠나는 수빈 한씨(인수대비)에게 개인 사저로 마련해주었고,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로 왕의 거처로 쓰면서 궁이 되었다. 1608년 선조가 죽은 뒤 광해군이 이곳에서 즉위하였는데, 그해 완성된 창덕궁으로 떠나면서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붙여주었다. 1623년에는 인조가 이곳에서 즉위하였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곳 또한 경운궁이었다. 1897년(고종 34)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거처를 옮기면서 비로소 궁궐다운 전각들을 갖추게 되었다. 1904년 큰 화재로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1905년 즉조당(卽祚堂)·석어당(昔御堂)·경효전(景孝殿)·함녕전(咸寧殿) 등이 중건되었다. 1906년 대안문(大安門)이 수리된 뒤 대한문(大漢門)으로 개칭하고 정문으로 삼았다. 1907년(순종 1) 순종 즉위 후 궁호가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개명되었다.[65] 1907년 12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여파로 고종이 일본의 강압으로 퇴위한 후 경운궁에 머물렀는데, 이때 고종의 궁호(宮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가 1919년 3월 1일 대한문 앞에서 촬영한 만세시위 모습

號)를 덕수(德壽)라고 하였기 때문에 덕수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순종은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대한문(大漢門)은 덕수궁의 정문이다. 원래 경운궁의 정문은 덕수궁 남쪽 중화문 건너편에 있던 인화문(仁化門)이었다. 1904년 화재 이후 1906년 중화전 등을 재건하면서 동쪽의 대안문(大安門)을 동년 4월 25일 대한문(大漢門)으로 이름을 고치고 궁의 정문으로 삼았다. 시청 앞 광장 쪽을 향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문은 잦은 도로 확장 등으로 위치가 수차례 옮겨졌다. 원래 위치는 지금의 태평로 중앙선 부분이었다고 한다. 대한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에 다포식 우진각지붕으로 공포가 화려하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붕어(崩御)하였다. 3월 3일은 고종 황제의 인산일(因山日, 장례일), 3월 4일은 고종 하관식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황제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거의 인산인해라 할 정도였다. 숙박할 곳이 턱없이 부족해 대한문 근처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민족대표들은 고종의 인산일을 앞둔 3월 1일이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고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거사일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불교계의 대표자들을 규합해서 치밀한 '독립선언식'을 계획한다.

마침내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비슷한 시각 탑골공원에서 별도의 선언식을 거행한 학생대표를 비롯한 시위대는 탑골공원을 빠져나와 두 방향으로 분기하였다. 대오를 갖추면서 대한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가담해 있었다. 고종의 시신이 안치된 함녕전까지 들어가 만세를 외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시위대에 참여했던 유진혁의 증언에 의하면,

> 세브란스의전 학생 1명이 앞장서고 200여 명의 군중이 그의 뒤를 따라 경찰 및 이왕직(일제강점기 옛 대한제국 황실의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의 보병대와 육박전을 벌인 끝에 안으로 돌입했다. 그런데 덕수궁에 들어간 그들은 그곳의 너무나 호화로운 별세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왕세자 이은을 면회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왕직 쪽에서 눈물로 물러가주기를 간청해 덕수궁에서 물러났다.[66]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펼쳐지는 수문장 교대식

과연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한제국의 황족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색을 하고 시위대가 물러가주기를 눈물로 간청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일화는 3·1만세운동이 민중의 자발적인 각성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한껏 고무된 사람들은 정동 미국영사관으로 달려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여러 대오로 갈라지면서 서울 중심가를 행진했는데, 대부분은 남산 왜성대의 조선총독부로 향했다. 선은전광장에서는 일본헌병대와 부딪히며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내기도 했다.

치열한 시위가 전개된 '선은전' 광장

1919년 3월 1일의 만세시위에서 가장 치열했고 뜨거웠으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선은전 광장'이다. 현재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으로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은행 앞 광장을 줄여서 '선은전 광장' 또는 일본어로 '센킨마에 광장'이라 불렸다. 광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해방 전 몇 차례의 문화행사가 열렸을 뿐, 해방 이후에도 집회와 시위 장소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광장으로 활용한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의 기념 표석

조선은행 앞 광장은 일제의 권력과 근대성을 과시하는 랜드 마크이자 상징적인 광장이었다. 토지 매입과 설계 공모를 통해 완성된 이 공간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조선은

일제강점기 선은전 광장

행 앞의 일곱 필지를 매입하여 광장의 틀을 마련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순환식 회전교차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설계 공모를 통해 분수대를 설치되면서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다. 애초에는 광장으로 기획되었으나 로터리로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은행 앞 광장은 남대문통(현 남대문로)이라는 광대한 가로와 남촌 일본인 거리의 관문, 그리고 근대 문명의 시설물들이 밀집한 핵심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중첩된 공간으로서 남촌 신시가지의 중앙이자 일제 식민지배의 행정적·경제적·문화적 중심지였다.

경성의 도시계획은 1912년 조선총독부의 시구 개정에 관한 훈령과 이에 따른 1912년 경성 시구 개수예정 계획노선의 고시로 시작된다. 그 사업 내용은 중심가로의 신설 및 도로 확장과 직선화, 계획적인 격자형 직선 도로망,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가로망 구상, 주요 결절점의 광장 설치 등으로 요약된다. 조선은행 앞 도로는 19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총독부는 1913년 초부터 도로 확장을

분수대 앞에 설치된 만세시위 기념 동상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입한 조선은행 건너편의 일곱 개 필지로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다. 1912년에 조선은행이 신축되고 1915년에는 경성우편국이 신축되면서 광장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조선은행 앞 교차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차노선 중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타고 내렸다.[67]

3월 1일, 탑골공원을 빠져나온 일군의 학생과 시민들은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종로통에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형을 갖추며 한 시위대는 탑골공원의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다른 시위대는 서쪽을 향했다.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마치고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조선 민중들은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위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들은 동서로 나뉘어 대오를 형성하며 시위를 벌였고, 시위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대오가 당시 남산 조선총독부로 향한다. 덕수궁 대한문을 지나

고 장곡천청(소공로)을 거쳐서 지금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자리한 선은전 광장에 이르렀을 때 시위대는 이미 3천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일본인 거리라 불리던 본정통(지금의 충무로)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일제 헌병들이 격렬하게 제지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격앙되었으며, 헌병들과 맨손으로 격돌하기 시작해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역사는 3월 1일 가장 치열했던 장소로 선은전 광장의 만세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위대의 목적지, 남산 조선총독부

일제는 남산 왜성대에 있던 통감부 청사를 강점 이후 총독부 청사로 사용한다. 이후 남산 청사는 1926년 경복궁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15년 동안 조선총독부 청사로 쓰인다. 조선총독부 남산 청사는 1910년과 1911년에 크게 두 차례 증축을 하였다. 1차 증축은 강점 직후인 1910년 하반기에 시행되었다. 이때 원래 일(一)자 형이었던 통감부 청사 건물을 디귿(ㄷ)자형으로 증축하였다. 같은 해 11월경 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무부와 학무국이 이전하였다.

'왜성대(倭城臺)'라는 명칭은 1885년 이후 한성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쓴 단어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래 조선시대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된 무예장이 있어서 예장 혹은 예장골로 불렸는데, 1885년 한양 도성 내 일본인 거류가 허용된 이후, 임진왜란 당시 왜군 장수 마시타 나가모리(增田長盛) 등이 주둔한 데서 그 이름을 왜성대 또는 왜장, 왜장터 등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굳어진 것이다.

3·1만세운동이 발발하자 조선총독부는 일본 헌병과 기마부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고 행진을 계속하다가 오후 5시경 자진 해산했다. 3월 2일, 조선총독부는 전 병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주동한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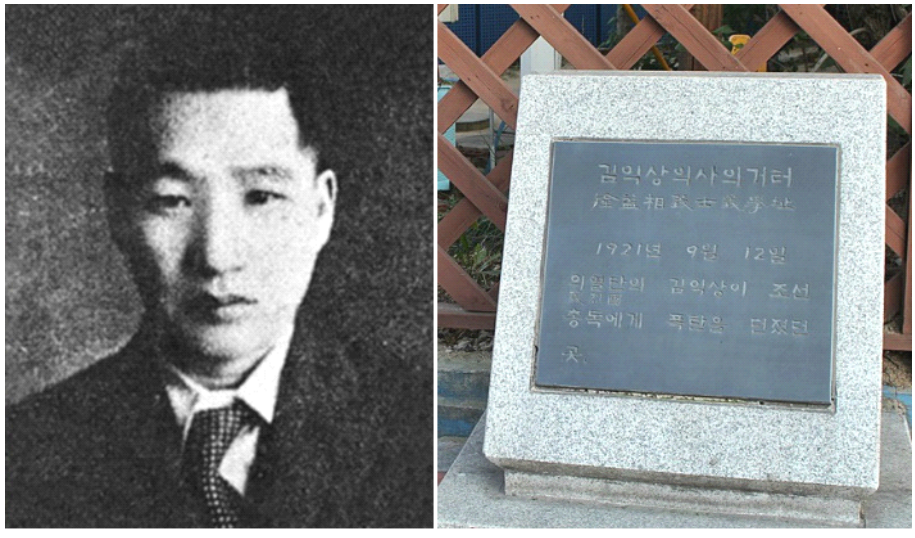
남산 자락에 있던 조선총독부 청사

들과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거의 1만여 명에 육박했다. 만세시위는 이후 5월까지 3개월여 동안 이어졌는데, 조선총독부가 집계한 기록에 따르면 집회 참여자 106만여 명, 사망자는 7,509명, 구속은 4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1919년 당시 조선 인구가 1,678만 8,400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거의 10분에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3·1만세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식민 정책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방향을 바꾼다.

1920년에는 조선총독을 암살하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폭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1921년에 의열단원인 김익상이 총독부 청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진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고양 출신인 김익상은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뒤 기독교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광성연초공사(廣城煙草公司)의 기계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1920년 만주 봉천(奉天)으로 전근된 것을 기회로 비행사가 되기 위해 비행 학교가 있는 중국 광둥[廣東]으로 갔다. 그러다가 중국 내전으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로 돌아왔다. 상해에서 전차 회사의 전차 감독이 되어 잠시 일을 보다가 항일 운동에 몸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북경으로 가서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 입단하였다.

1921년 단장 김원봉(金元鳳)으로부터 총독 암살 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한 김익상은 9월 12일 총독부에 잠입하여 2층 비서과(총독실로 오인)와 회계과장실에 폭탄을 던졌다. 비서과에 던진 폭탄은 불발이었으나 회계과장실에 던진 폭탄은 폭발하였다. 총독부가 폭발로 인해 혼란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빠져 나와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무사히 탈출하였다. 그 후 상해에서도



김익상 의사와 의거터 표석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통감관저 터 표석

일본군 대장의 암살을 시도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다.[68]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은 오직 김익상뿐이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남산 조선총독부 건물은 광복 직후 국립과학관으로 쓰이다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현재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옛 터 도로변에는 '김익상 의사 의거터' 표석과 '통감관저 터'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 중구는 2018년부터 통감부 터를 비롯하여 남산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침탈 흔적을 돌아보는 역사 탐방길인 '남산 기억로'를 운영하고 있다. 장충단공원, 동국대 정각원, 통감관저 터, 통감부 터, 왜성대 터, 노기신사 터, 경성신사 터, 한양공원비, 조선신궁 터 등 9개 주요 지점을 연결한 남산 기억로는 총 길이 4킬로미터 코스로 전부 둘러보려면 2시간가량 소요된다.

일제 헌병경찰제의 중추, 경무총감부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충무로역 4번 출구로 나가면 남산골한옥마을을 만날 수 있다. 주소는 '서울 중구 필동2가 84-1'로 전통 한옥이 아름답게 들어서 있어 조선시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이자 서울시의 역사자료(타임캡슐)도 보관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남산골의 제 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지의 한옥을 모아 마을을 조성했으며 10여 년이 지난 1998년 4월 18일에 지금의 모습으로 완공되어 문을 열었다. 전통 한옥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최적의 명소로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지만, 일제강점기에 이곳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곳이었다. 식민 지배의 무력적 근간이자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부'가 이곳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3·1운동 당시 경무총감부는 시위대를 검속하여 구금했던 곳 중 하나로 국권 침탈의 한과 독립을 향한 염원이 서려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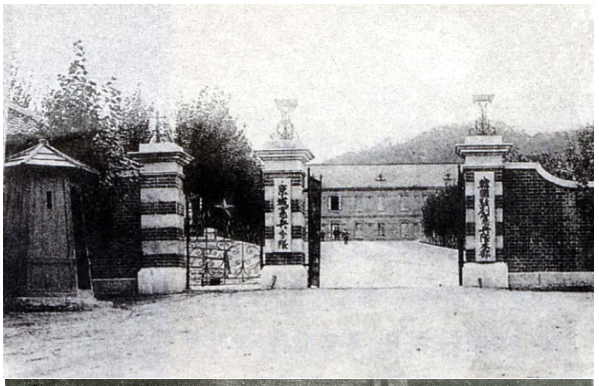
경무총감부는 헌병경찰제가 시행되던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존속한 경찰 조직의 최고 기관으로, 전남, 전북, 충남, 평북, 황해도의 경무부 등 산하의 지방경무부를 두었다. 이 관제가 공포된 시기는 1905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통감

부 및 이사청 관제」(칙령 제267호)에 따라 통감부 아래 경무부가 설치되고 각 지역의 이사청(理事廳)에는 경찰이 배치된다. 경무부의 책임자는 경무총장이었고 산하에는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 등 4과가 설치되었다. 관제에 따르면 한국주차헌병의 장이 중앙의 경무총장을 겸임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헌병대장이 각 도의 경무부장이 되고, 그 관할 아래 문관경찰관과 헌병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후 1910년 6월 29일, 일제는 「통감부경찰관서관제(統監府警察官署官制)」(칙령 제296호)를 제정, 조선총독부 산하에 독립 관서로 경무총감부를 설치하는 등 '헌병 경찰제도'의 근간을 완성하였다.

경무총감부에는 모두 5개 과가 있었는데, 문서수발, 편찬, 번역과 통역, 도서 보관, 관보, 통계 보고 등을 담당하는 '서무과'와 고등경찰과 신문, 잡지, 출판물, 저작물 등을 담당했던 '고등경찰과', 경찰의 구획과 배치, 경찰 피복과 부속품, 경찰 복

경무총감부 터에 조성된 남산골 한옥마을



일제 헌병경찰제의 최고 기관인 경무총감부(위)
만세시위에 참여한 소년을 체포하는 일제 헌병경찰

무와 규율 등을 담당한 '경무과', 그리고 행정경찰, 사법경찰, 소방 등의 업무를 맡았던 '보안과', 보건과 방역을 담당한 '위생과' 등이었다.

특히, '고등경찰과'를 주목해야 하는데, 국내 사찰과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국내외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집회・결사와 대중 운동에 대한 통제 및 출판・저작물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는 등 항일 운동과 사상을 직접적으로 탄압했기 때문이다.[69]

3・1운동 이후, 총독부 관제가 개편되는데, 이때 헌병 경찰제가 폐지되면서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도 폐지된다. 총독부에는 경무총감부 대신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각 도에서는 제3부(1921년 2월 경찰부로 개칭)를 두어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했다.

만세운동의 불씨를 이어간 봉래정 시위

3월 5일의 2차 만세시위는 아쉽게 끝났다. 시위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학생 대표자들 중에서 김원벽과 강기덕이 가장 먼저 검속되었다. 남대문 부근에서 일본 헌병대와 충돌이 있었지만, 시위대는 종각 쪽으로 흩어지면서 산발적으로 만세를 불렀다. 일제의 감시가 더욱 노골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폭압적으로 변했다. 시위의 움직임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만세시위는 그 기세가 꺾이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3월 5일 송현동 이인식의 집에서 도쿄 유학생과 서울 학생 등 63명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제3차, 제4차의 만세운동을 이어갈 것을 도모했다. 3월 6일 경찰들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가택 수색 등을 통해 경성부 내 학생만 43명이 검속되었다.

3월 8일에는 용산인쇄국 직공 등 200여 명이 독립 만세를 외쳤고, 「경성시 상민일동 공약서」라는 격문이 발견되었다. 이는 폐점으로써 독립운동을 이어가자는 뜻이었다. 3월 9일, 왕십리 부근에서 100여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쳤고, 전기회사 차장과 운전수들이 파업을 시도했다. 3월 12일에는 보신각 앞에서 김백원 등 지식층이 모여서 13도 대표자 명의로 된 「애원서」를 낭독하였다.[70]

봉래정 만세시위대의 동선(정병욱, 앞의 글, 재인용)

그중에서도 3월 22일 '노동자대회'로 일컬어지는 봉래정 만세시위는 주춤했던 만세시위의 불씨를 되살리고 전국으로 전파해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만들었다.[71]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기도 경무부가 1919년 3월 23일 작성한 「사찰휘보」 제27회다. 다른 문건들이 개략적으로 서술된 반면, 이 문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 3월 22일 오전 10시 경성부 봉래정 철도건널목지점에서 4, 5명이 종이 한국기를 교차하여 이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함에 부근에서 모여드는 자가 갑자기 3, 40명이 되었다. 세를 얻어 그곳에서 의주통 방면으로 진행할 때는 약 3백 명이 군집하였다. 그때 본정 종로 양 경찰서원 및 고양군수비병, 아울러 기마순사 경계로 인하여 일부는 독립문 방면으로 향하여 사산(四散)하고 나머지는 죽첨정에서 공덕리방면으로 향하였으나 용산 경성 양분대의 경계로 인하여 다시 봉래정 방면으로 향하여 사산하였다. 본정 종로 양서에서 중한 자 17명을 체포 취조 중이며 군집의 종류는 전차 차장 직공 및 보통 노동자의 혼합으로 구성되었다.[72]

3월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봉래정 철도건널목 지점(지금의 남대문역 부근)에서 4, 5명이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3, 40명이 운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를 얻어서 의주통 방면으로 시위를 할 때 300명으로 늘어났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중 17명을 검속했고 군중들은 전차 차장과 직공, 보통 노동자 등의 혼합이라고 명시했다.

다른 문건에서도 당시 시위가 오전 9시 반경에 시작되었고 남대문 부근에서 집

합했으며, 노동자 3, 4백 명을 포함한 약 700여 명의 군중이 봉래정에서 신의주통으로 진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특히 '노동자대회', '한국독립만세'라고 적힌 깃발을 휴대하고 행동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별도의 근거가 없이, 다시 말해 시위가 특정 단체나 집단에서 계획된 바 없이 우연히 조직된 것으로 특별한 배후가 없다는 표현도 있었다.[73]

그러나 군경의 보고와 달리, 당시 시위를 보도한 1919년 3월 24일 발행된 「독립신문」 13호과 1892년부터 1934년까지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미국 북감리교 소속 매티 윌콕 노블(Mattie Wilcox Noble, 당시 정동 거주) 선교사의 일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 경성 안에 노동회 동포는 애국심을 이기지 못하여 천여 명이 모여 노동대회라는 높은 깃발 아래 엄숙한 청어로 의주로에서 독일영사관까지 그리고 다시 프랑스영사관에서 서대문 밖까지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는데, 시내 동포들은 모두 경의를 표하였고 각국의 신사들도 탄복하면서 한반도가 생긴 이래 처음 맞는 경사라고 칭찬해마지 아니하더라.[74]
>
> 어제 (남대문) 역 주변에서 고용인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들은 일본사람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일을 하는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임금과 권리를 주는 새로운 정부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거리로 나섰고, 그들 중 3명은 구한국기를 들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동참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라고 말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거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세력이 커졌다.[75]

봉래정 만세시위를 기록한 노블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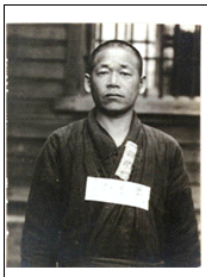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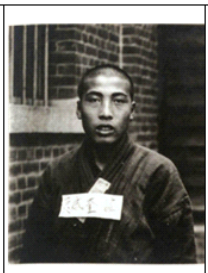
「독립신문」의 기사에서는 봉래정 시위가, 비록 간략히 서술되어 있지만, 3월 5일의 제2차 만세시위에 못지않은 규모였다고

봉래정 만세시위 현장 중 하나인 염천교 수제화 거리

묘사되고 있다. 천여 명이 참가한 시위대의 대오도 격식을 갖췄고 이에 대한 반응도 담겨 있다. 물론 당시 상황이 세부적으로 그리고 소상히 적혀 있지 않아 서술자의 주관적 관점이 아예 배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신문은 봉래정 시위를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있다.

노블의 일기는 좀 더 구체적이다. 당시의 시위가 어떠한 연유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표현 방식은 무엇이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다. 첫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분노와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일본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그러한 요구사항을 일본이 아닌 '새로운 정부'에 희망하고 있다. 셋째, 그중 세 명은 구한국기(태극기)를 들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만세를 외치라고 종용했다. 넷째,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봉래정 시위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다.

이처럼 봉래정 시위는 3·1운동의 또 다른 분기점을 만들어냈다. 바로 민족대표나 학생 등 엘리트 계층의 주도에 의한 시위가 아니라 '노동자'로 일컬어지는 민중

<table>
<tr><td>  </td><td>엄창근
嚴昌根
노동
39세
징역1년</td><td>  </td><td>설규성
薛奎成
마차부
22세
징역6개월</td><td> </td><td>신화순
申化順
과자상
28세
징역6개월</td></tr>
<tr><td> </td><td>배희두
裵熙斗
잡화상
17세
징역1년*</td><td> </td><td>김공로
金公璐
재봉직
21세
징역6개월</td><td> </td><td>김공우
金公瑀
조선약학교생
18세
징역1.5년*</td></tr>
<tr><td colspan="3">신형균申衡均 곡물상 52세 징역1년*</td><td colspan="3">박효석朴孝錫 구두수선공 23세 징역6개월</td></tr>
<tr><td colspan="3">염수완廉壽完 미곡상 24세 태형90</td><td colspan="3"></td></tr>
</table>

봉래정 만세시위로 기소된 사람들(정병욱, 앞의 글, 재인용)

들의 자발적 참여였던 것이다. 일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일본의 근엄하고 엄중한 경계로 시위대가 해산되었다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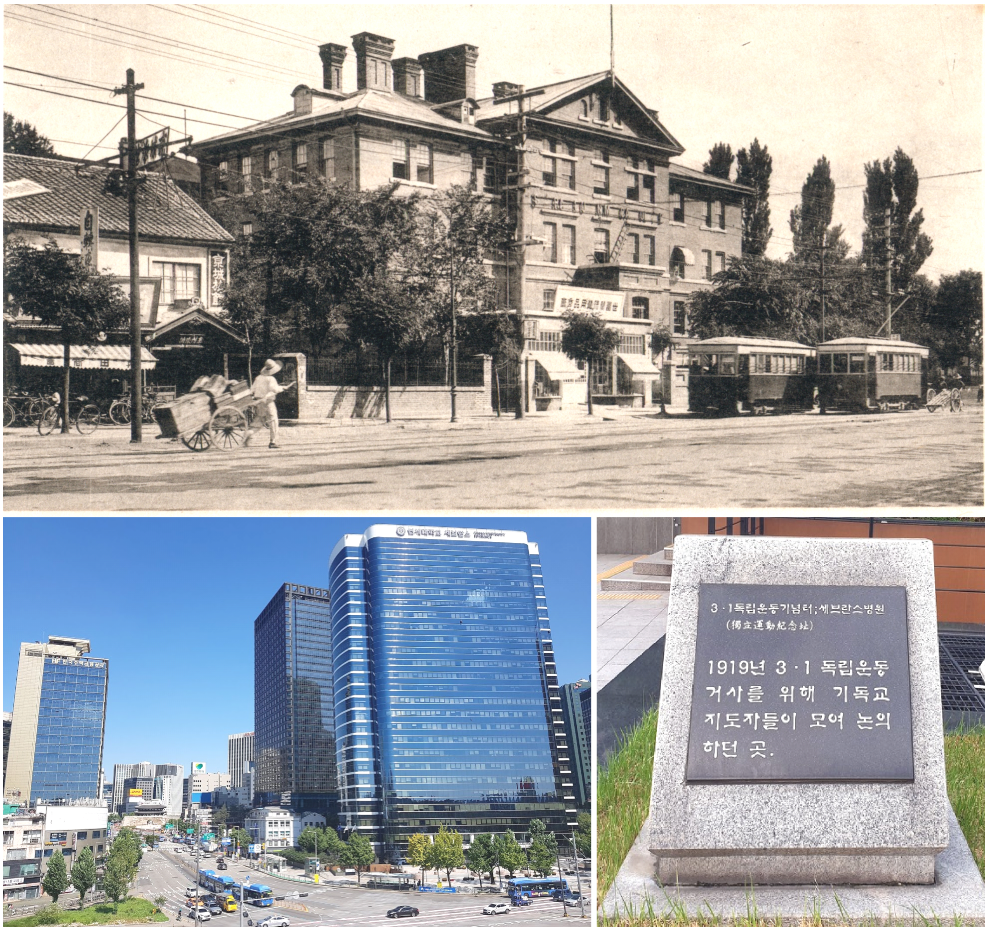
노블은 예의 일지에서 “그(노블의 아들)가 본 것은 피를 흘리며 경찰서로 끌려가거나 의식을 잃은 채 인력거에 실려가는 사람들이었다”고 썼다.[76] 경찰은 17명을 검거하고 경성지방법원에 9명을 기소했다. 9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노동 2인, 직공 2인, 상인 4인, 학생 1인이었다. 김공우, 김공로, 배희두, 신형균, 엄창근, 박효석, 염수완, 신화순, 설규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이름들이다.

기독교계 독립운동의 중심 세브란스병원

3·1운동은 조선독립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터를 닦은 위대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특히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운동의 중심 중 하나로 '세브란스병원'이 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연세대학교 재단빌딩 앞에 작은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2002년에 설치되었으며, "1919년 3·1독립운동 거사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하던 곳"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바로 이곳이 1919년 당시 학생대표단과 기독교계가 3·1운동을 위해 교섭을 벌이던 곳으로 당시에는 세브란스병원이 있던 자리다.

세브란스병원이 3·1운동의 주축이 된 사건이 있다. 1919년 2월 11일, 이승훈이 세브란스병원 구내의 남대문교회로 가 이갑성과 함태영을 만나 독립운동 의사를 타진한다. 이미 이승훈은 천도교계 송진우로부터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은 터였다. 이갑성은 병원에서 제약주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함태영은 남대문교회에서 조사(전도사)로 시무하고 있었다. 이갑성과 함태영의 사택은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들이 3·1운동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1920년대 초의 세브란스병원과 현재의 연세세브란스 빌딩

1919년 2월 12일 세브란스병원 음악회가 끝난 후, 당시 병원의 제약주임으로 근무하던 이갑성이 한위건, 김원벽, 김형기, 윤자영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김문진, 이용설, 배동석 등을 병원 구내 자신의 사택으로 불러들인다. 조선 독립선언을 위해서는 학생단의 참여가 있어야 했으며, 특히 3·1운동의 성공을 위해도 반드시 학생단의 놀라운 열정과 추진력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갑성은 국내·외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의사를 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였다. 그리고 이갑성은 자신의 집에 전문학교 학생대표들을 한 차례 더 불러놓고 현재의 상황들을 알렸다.

2월 21일 밤, 이갑성의 집에서는 기독교계의 장로회와 감리회 두 양대 산맥의 회합이 열렸다. 바로 제1차 장로회·감리회 양 교단의 지도자 연석회의 였다. 장로회 측에서는 이승훈, 함태영, 이갑성, 안세환, 김세환, 김필수, 오상근 등이 참석했고, 감리회 측에서는 박희도, 오화영, 신흥식, 오기선, 현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할 동지 규합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고 특히나 이승훈과 함태영에게 천도교계와의 합동문제를 일임했다.

2월 22일, 이갑성과 학생대표단의 회합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갑성은 학생단이 독립선언서를 따로 만들어 독립선언식을 추진할 계획을 듣게 되는데, 학생대표단에게 이를 중지하고 손병희 등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그 일은 성사된다.

이처럼 세브란스병원은 3·1운동의 길을 연 뜻깊은 장소다. 민족대표들의 규합은 물론, 학생대표와의 교섭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성사시켰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3·1운동의 기초를 잡은 터이기도 하다.

참고로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지금 연세세브란스 빌딩이 있는 자리에 설립되었다. 미국의 사업가였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기부금으로 당시 '복숭아골'이라 불리던 곳에 터를 잡았다. 1902년에 착공하여 1904년 9월 23일에 완공했다. 병원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었다.

5. 기미독립선언에 담긴 정신

민족의 염원을 담다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이 간명하고 절절한 문장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기미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다. 문어체의 한자어가 많아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읽어보면 위풍당당한 조선인의 단호한 의지와 기개를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문장은 자주와 자강에 대한 민족의 열망이 응집된 독립의 의지인 것이다.

현대어로 풀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그렇다. 문장이 명시하는 것처럼, 외세의 도움 없이 오로지 우리의 힘만으로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은 자주적인 민족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宣言書

公約三章

「기미독립선언서」(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는 민족의 이기(利己)가 아닌 '인류 평등'이라는 대의가 있으며, 그 엄격한 박애(博愛) 속에서 자손만대까지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겠다는 포부도 담겨 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단순한 선언서에 그치지 않는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민족의 정신과 사유의 응집이며, 5천 년 동안 한반도의 주인으로 살아온 우리 역사의 집약이자 미래의 자손들에게 건네는 선물이자 이정표이다. 이 선언서가 있음으로 하여 민족의 독립은 북극성과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식민 지배에 항거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임시정부'를 설립할 수 있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긴 뜻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각인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꿈과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자. 만일 3·1만세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그리고 다만 독립에의 열망만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면 어땠을까. 서울에서 비롯되어 전국으로 퍼졌으며 세계 각지로 퍼져갈 수 있었을까. 또한 비폭력을 근본 정신으로 삼아 민족 독립의 목적과 지향점, 정체와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을까. 좀 더 쉽게 말하자. 「기미독립선언서」가 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년 3·1절 기념식을 우리의 주권으로 치를 수 있었을까.

의암이 기획하고 육당이 기초를 잡다

1919년 1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져 뜻있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무렵이었다. 천도교 교주 손병희는 최린과 권동진, 오세창 세 사람을 불러 "우리 조선에서도 민족자결의 뜻을 발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뜻밖의 물음에 의아해하면서도 세 사람은 모두 찬성한다. 이에 의암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방도를 강구하라고 지시한다. 천도교의 수장들은 며칠 고심한 끝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각 방면의 인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에 독립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넷째, 미국 대통령의 동정을 얻기 위한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강화회의의 열국 대표자에게 독립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77]

이에 대해 손병희는 독립선언서의 어조는 "감정에 흐르지 말고 온건하게 써야 한다"고 말한 뒤, 특히 "동양 평화를 위해 조선의 독립이 옳다는 뜻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78]

최린이 육당 최남선을 만나 독립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1월 31일경이다. 최린은 육당에게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육당은 흔쾌히 찬성하고, 독립선언서 초안을 집필하겠다고 말한다. 당대 최고의 문재(文才)로 알려진 최남선이 선언서를 집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다만, 얼마 뒤 육당은 선언서를 집필하지만 민족대표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육당은 최린과 여러 차례 협의하면서 초고를 만들어나갔다. 대략 2월 10일경 시작해 2월 15일 무렵에 완성, 최린에게 보여준다. 이후 최린은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밝힌 것처럼, 천도교 수장들에게 초고를 보여주고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육당이 독립선언서를 쓸 때 자신의 집이 아닌 일본인 여성의 집에서 집필했다는 일화가 있다. 현상윤의 회고에 따르면 '임규'의 일본인 처의 집이 바로 그곳이다. 현상윤의 말을 들어보자.

3·1운동 직후의 육당 최남선

> 최남선은 그 선언서를 자기 집에서 작성하지 않고, 지금의 오장동 근처 오자와라는 일본 여자의 집에서 썼습니다. 당시 그 여자와 최남선 씨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끔 그 집으로 최 씨를 찾아갔는데, 하루는 선언서가 어떻게 됐나 좀 알아보러 갔더니 최 씨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여자가 하는 말이, '현 선생께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나는 잘 안다'고 합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알기는 무얼 아느냐고 하며 그저 최 씨를 좀 만나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 일본 여자는 점점 웃으면서 '선생은 뭔가를 보러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와서 보고 가라'고 합니다. 나는 비밀이 탄로 났다는 의심이 들어 자꾸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본 여자는 자꾸 들어오라고 해 방에 들어가니, 자기 옷깃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선언서를 읽고 있노라니까, 또 자기 자식을 부르더니 그 옷깃에서는 일본 정부에 보내는 글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최 씨에게 따져 물었더니 자기 집이나 조선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보다 일본인에게 맡겨두는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79]

한편, 만해 한용운은 자신이 선언서의 기초를 잡겠다고 했으나, 이미 육당이 초고를 잡고 손질까지 끝낸 뒤라 선언서 끝에 있는 〈공약 3장〉을 추가하였다.

보성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다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보고 크게 만족하였다. 독립의 염원과 민족의 비전이 한 치의 빈 틈도 없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위해 당시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인쇄소인 보성사(普成社)에서 인쇄하기로 결정한다. 보성사로 말하자면, 도합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정도로 당시 규모가 큰 인쇄소였다. 특히 이종일 사장은 대한제국 시기 제국신문사의 사장으로서 신문을 발행했던 경험이 있었고, 《천도교월보》 발간을 책임지는 과장을 겸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27일 오후 5시 무렵이다. 이종일 사장은 오세창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보게 된다. 그는 인쇄기술자, 총무 두 사람을 제외한 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극비리에 인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종일은 인쇄를 위한 지형을 뜬 뒤, 이 독립선언서에 담긴 민족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가를 생각했다. 중간 중간 오세창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서명자를 수정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종일은 27일 당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에 3대의 인쇄 기계를 이용해 21,000장을 인쇄한다.

최린은 자서전에서 선언서의 민족대표자 명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손병희를 대표자로서 맨 앞에 두고, 이어 장로교의 길선주, 감리교의 이필주, 불교의 백용성을 쓴 다음, 다른 이들은 모두 가나다 순으로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쇄된 명단은 이에 어긋난 경우가 있다. 마지막 명단이 교체되면서 이를 가나다순으로 교정할 시간이 아예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등계 형사가 엿보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당시 고등계 형사 신철이 한창 인쇄 중이던 보성사에 들이닥쳤다. 보성고보 뒷담 골목을 지나다가 인쇄소에서 뭔가 작업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상히 여겨 들어온 것이다. 신철은 선언서를 발견한다. 이종일은 그에게 제발 눈감아 달라고 사정을 했다. 꿇어 엎드린 채 "당신도 조선 사람이니 제발 한번만 눈감아 달라"고 애걸한 것이다. 그러고는 잠시 다녀올 데가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곧장 손병희의 집으로 찾아갔다. 손병희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고 이를 무마할 작정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5천 원을 받아왔다. 이종일이 뭉칫돈를 신철에게 건네주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난다.

그 후 신철은 1919년 5월 14일 밤 만주 펑톈(선양)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남대문역에서 헌병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유치장에서 자살을 했다. 당시 《매일신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기사화한다.

> 신승희(신철의 본명)는 이번 소요 사건이 돌발했을 당시에 천도교에서 5,000원의 뇌물을 받고 음모를 계획하는 줄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다. 그 일이 이번에 신승희 출장 중에 경성헌병분대에서 탐지되어, 남대문역에서 내리는 것을 체포했다더라. 신승희는 10년 동안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이번 소요 사건에서도 표면으로는 충실히 활동을 했지만, 그 사실이 탄로가 나서 사건은 의외의 방면으로 퍼질지 알 수 없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비록 가십에 가까운 당시의 뜬소문을 기사화한 것이지만 그가 보성사에 간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에 남아 있는 5월 15일자 신승희 신문 기록에는 다르게 적혀 있다. 그는 천도교 중앙총부 대종사장인 정광조가 준 150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선언서, 세상에 나오다

이렇듯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자정 무렵 모든 인쇄가 끝난다. 이종일은 김홍규와 신영구를 시켜 선언서를 천도교 교당 옆에 자리한 본인의 사택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들은 선언서를 종이로 포장한 뒤 손수레에 실었고, 내친김에 보성사에서 인쇄 중이던 족보로 뒤덮었다. 약 1킬로미터 남짓한 거리지만, 순사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순찰을 돌 때라 한발 한발이 무척 조심스러웠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마침 정전이 된 터라 서울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서울 거리가 어둠에 휩싸인 것은 무척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손수레는 안국동과 재동의 경찰파출소 앞을 검문 없이 무사히 지나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순사를 만나게 되지만, 천도교에서 인쇄한 족보라는 대답에 그냥 지나치고 만다. 하늘이 도운 것이다. 몇 차례의 위기 끝에 이종일의 사택으로 운반된 선언서는 다음날인 28일, 천도교, 기독교, 불교 관계자들에게 배포되고, 조직망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거사를 하루 앞두고 「기미독립선언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져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립정신을 상징화한 3·1운동기념탑

장충동 남산공원을 한 바퀴 돌고 웅장한 자태의 국립국장을 지나면 높이 19미터에 달하는 '3·1독립운동기념탑'을 만난다. 조선 독립의 염원을 담아 '독립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함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한 이 탑은 광복회(3·1운동기념탑건립위원회)가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가 연합하여 비폭력으로 전개한 3·1만세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일인 1998년 8월 15일에 착공하여 3·1만세운동 제80주년 기념일인 1999년 3월 1일 준공하였다.

탑의 높이는 19미터 19센티미터로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을 상징한다. 기단에는 "오등은 자에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는 독립선언서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독립선언서」의 좌측과 우측으로는 새로 고친 한글 선언문과 영문 번역문이 있고, 뒷면에는 기념탑을 건립하게 된 취지와 개요, 헌시가 새겨져 있다. 또한 기념탑에는 3개의 기둥축이 세워져 있는데, 그 자태가 오묘하고 날렵하여 하늘로 오를 기

장충동 3·1독립운동기념탑

세다. 이 기둥은 천지인, 혹은 당시 민족대표로 나선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연합을 상징한다. 그 위에는 삼태극(三太極, 우주)을 의미하는 원구를 두어 민족웅비의 위대한 상을 구현했다.

'3·1독립운동기념탑'을 지나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있다. 높이 3미터, 좌대 높이 6.8미터인데, 오른손은 횃불을 높이 들었고 왼손은 무언가를 손에 잡으려는 듯 간절하다. 사실 1919년 당시 유관순 열사는 17세의 어린 여고생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 독립의 간절한 열망은 그녀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였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자 만세시위를 지휘하기 위하여 고향인 천안 병천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차에 3,0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인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눠주고, 시위대열 선두에 서서 행진을 주도했던 것이다. 주동자로 체포된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에 감금되었

다. 그러나 그녀는 옥중에서도 계속 독립만세를 외쳤다. 모진 고문으로 결국 1920년 10월,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이 동상은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 주관으로 1970년 태평로에 건립되었으나, 1971년에 현재의 장충동 남산공원 장충 자락으로 이전되었다. 동상 기둥엔 남녀 독립운동가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과, 일본 경찰에 체포돼 포승줄에 묶인 모습 등이 6개의 부조(浮彫)로 그려져 있다.

유림의 독립의지를 결집한 '파리장서'

한국 유림(儒林) 독립운동 파리장서비(巴里長書碑)는 '파리장서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73년 10월 장충단공원에 세워진 기념비다. 파리장서 운동은 제1차 유림단의거(儒林團義擧)라고도 불리는데, 1919년 3월 1일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중심의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유림 대표들이 파리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국 유림들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선언한 사건이다.

서한은 일제의 한국 주권 찬탈 과정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한국의 모든 계층과 사회 집단이 독립을 열망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선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본래 영남과 호서 지방의 유림들에 의해 각각 두 가지 판본의 서한이 준비되었는데, 파리평화회의 대표로 뽑힌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이 상해로 급히 떠나게 되자 영남본이 호서본보다 포괄적이면서도 뜻이 명확하다는 여론에 따라 영남본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김창숙은 3월 23일 밤 경성을 떠나 3월 27일 상해에 도착했다. 당시 상해에는 이동녕, 이시영, 신규식, 신채호, 조완구를 비롯한 많은 망명자들이 있었다. 김창숙

장충단공원에 세워진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은 이들과 논의하였고, 김규식이 이미 파리평화회의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파리장서를 서양어로 번역·인쇄하여 우편으로 파리평화회의에 발송하였다. 한문본 2,000부와 영문본 3,000부가 인쇄되었으며, 장서 말미에는 곽종석, 김복한을 비롯하여 137명의 유림 대표가 서명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12일 경상북도 성주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된 송회근에 의해 관련 사실이 일제경찰에 적발됨으로써 후일 여러 관계자들이 고초를 치르게 되었다.

파리장서 운동은 일제강점기 한국 유림들이 펼친 가장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하나로 평가되며, 이후 1920년과 1921년에 각각 2차, 3차 독립청원운동으로 이어졌다. 유림 대표로서 임무를 마친 김창숙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대의원으로도 활약하였다. 파리장서 운동을 계기로 유림계는 한말 구국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80]

5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의열투쟁

3·1운동은 조선 민중의 자발적인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전면 부정한 것이며 동시에 조선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 없는 자주적 주권 국가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일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의 지도자들은 독립선언과 더불어 정부를 수립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개월여 만에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이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정부'가 조직되었다. 비록 그것이 국토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한계로 말미암은 임시정부에 불과했을지라도,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처장 체제를 정비한 어엿한 행정부를 갖추었고, 임시의정원이라는 입법기관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헌법도 있었다.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화된 나라는 많지만, 조선처럼 식민화된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헌법과 행정부를 갖춘 채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없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국권수탈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를 수립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81] 훗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3·1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만큼 3·1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3주년 기념사진

동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이자 기원이며, 향후 우리 민족의 자강과 독립, 그리고 자결로 나아갈 바를 확고하게 천명한 근대 최대의 혁명운동이다.

한편 3·1만세운동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은 일제와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의 독립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이후 애국지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열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의열투쟁'이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의거로써 일제 침략자를 응징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절로써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독립운동의 한 형태를 말한다. 특히 '의사'란 성패와 관계없이 목숨을 내걸고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 사람을 말하고, '열사'란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자결 및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 의열투쟁을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다.

의열단은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눈을 피해 해외로 거점을 옮긴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진적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해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자주적으로 만든 단체다.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된 의열단은 1920년대 가장 활발한 의열투쟁을 전

개한 단체였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의열투쟁을 전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열투쟁은 일제의 식민통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전 세계를 향해 우리 민족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알리며 독립운동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 의열투쟁을 빼놓고 항일 독립운동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의열단의 투쟁은 가히 독보적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잠시, 의열단의 결성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1919년 11월 9일이다. 만주 길림성 파호문(把虎門) 밖 중국인 반모(潘某)의 집에 조선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은 3·1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거점을 옮긴 독립운동가들이다. 아무리 일제 식민통치가 유화되었다 해도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만주 지역으로 피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폭력을 지향했던 3·1만세운동의 한계도 언급되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논의는 더욱 치열해져갔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급진적 민족주의 노선이며, 항일 비밀결사에 집중된다. '의열단'(義烈團)'이라 이름하고, 공약 10조의 첫 조항으로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한다"고 새겨 넣음으로써 결사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은 간소화 했다. 비밀결사인 만큼 활동에 누설 등의 허점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약산 김원봉 단장을 중심으로, 윤세주, 이성우, 곽경, 강세우, 이종암,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휴, 배동선, 서상락 권준 등이 단원으로, 그리고 김대지와 황상규가 고문으로 조직된다.

의열단은 당시 독립운동의 방향이었던 문화주의와 외교론, 준비론 등을 일제와의 타협으로 간주했다.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를 이념으로 삼았고, 오직 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조선독립의 방법으로 정했다. 이런 까닭에 의열단의 활동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다. 공약 10조를 강령으로, 또한 '5파괴', '7가살(可殺)'이라는 행동 목표를 규약으로 삼아서 오로지 그 실현에 집중했다. 파괴 대상은 (1) 조선총독부 (2) 동양척식회사 (3) 매일신보사 (4) 각 경찰서 (5) 기타 왜적 중요기관 등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 및 그 관련 시설이었고, 암살 대상은

조선의열단 단원들의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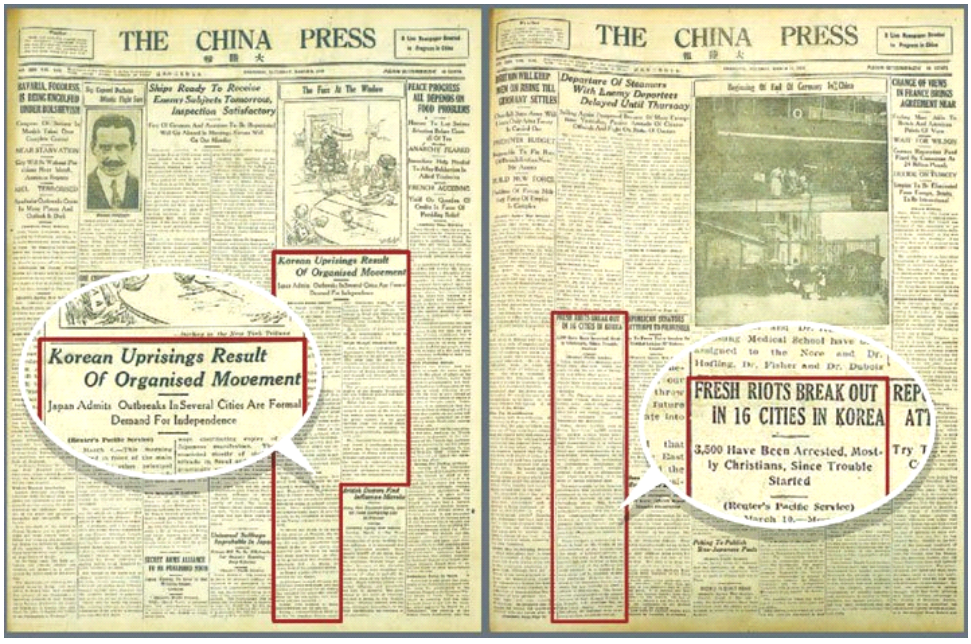
(1) 조선총독 이하 고관 (2) 군부 수뇌 (3) 대만총독 (4) 매국노 (5) 친일파 거두 (6) 적탐(밀정) (7)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등이었다.

의열단 투쟁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 부산경찰서와 밀양경찰서 폭탄투척(1920) △ 조선총독부 폭탄투척(1921) △ 상하이 황포탄 의거(1922) △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투쟁(1923) 등이 이어졌다. 게다가 △ 도쿄 궁성 앞 니주바시(二重橋) 폭탄투척(1924) △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 폭탄투척(1926)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에도 '대구 부호 암살 계획', '북경 밀정 암살 사건', '경북 의열단 사건' 등 의열단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1.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후, 국내외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상해는 1917년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 14명이 「대동단결선언」[82]을 발표해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돌입할 수 있던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모인 이유는 "문화가 압서고, 인문이 개발되엇고 또 교통이편 책원지(策源地)로써 가장 갑이 잇는"[83] 곳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조계'(租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조계란 청나라 이후 중국 내 존재했던 조차지로서 외국인이 행정자치권이나 치외법권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상해에서도 특히 프랑스 조계에 주목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상해 김신부로 60번지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정부가 탄생한다.[84] 그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다.

임시정부가 조직된 배경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1918년 11월 28일에 결성된 〈신한청년당〉이 있다.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조선 대표로 파견되는 김규식에 어울릴 만한 조직이 필요했던 까닭에 지사들은 예의 신한청년당을 만들었고, 신한청년당은



상해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인 《차이나 프레스》지가 보도한 3·1운동 관련 기사

3·1운동을 즈음하여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조선의 독립과 독립 이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정부 수립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였다. 3·1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 중국 대륙 전반은 물론이고 미주 지역 등 세계 각지로 분산된 민족의 독립 운동의 역량을 단일한 대오로 결집해 그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독립을 쟁취했을 때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를 건립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두 번째였다.

1919년 3월 1일은 조선에서 만세운동이 발발한 날이자, 조선의 민족대표들이 파견한 현순 목사가 상해에 도착한 날이기도 하다. 현순은 신한청년당의 신규식, 이광수, 김철, 선우혁 등을 만난다. 독립선언서를 전하면서 그간 준비했던 만세운동 소식도 얘기한다. 3·1운동이 발발하고 3일째 되는 3월 4일 아침이었다. 상해에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차이나 프레스(The China Press)》에는 조선의 3·1운동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다. 상해에 머물고 있던 현순 목사와 신한청년당 소속 독립운동가들은 즉각 프랑스 조계 내의 '상해 보창로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조

선의 만세운동 소식을 널리 알리는 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국내와의 연계하에 3·1운동 소식을 파리강화회의와 국외 교포에게 선전
둘째, 국내외 주요 민족운동 단체의 대표자들을 상해로 결집시켜 독립운동의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
셋째, 이상의 일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을 조직하는 일[85]

독립임시사무실은 '임시'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신한청년당 소속 인물들과 함께 일본에서 온 신익희, 윤현진, 만주와 러시아에서 온 이동녕, 조성환, 이시영, 조소앙, 김동삼, 조선에서 온 최창식, 이봉수 등이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 기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특히 '최고 기관'의 실체에 대해 '정부수립론'과 '정당결성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후자의 경우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신한청년당이 주장했고, 전자의 경우는 현순, 최창식, 윤현진, 신익회 등이 지지했다. 격렬한 논의 끝에 최고 기관의 실체는 '정부수립론'으로 귀결되었고,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조선 내의 의견에 따르자는 현순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임시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동녕, 이시영, 이회영, 신헌민, 신규식, 신익회, 신채호, 조성환, 조소앙, 이광수, 현순 등이 몇 차례 회동하였지만, 우선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기로 한다. 그러던 중 4월 8일에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각료 명단

△ 국무총리 이승만 △ 내무총장 안창호 △ 외무총장 김규식 △ 재무총장 최재형
△ 교통총장 문창범 △ 군무총장 이동휘 △ 법무총장 이시영 △ 내무차장 신익희
△ 외무차장 현 순 △ 재무차장 이춘숙 △ 교통차장 선우혁 △ 군무차장 조성환
△ 법무차장 남형우 △ 국무원비서장 조소앙

1919년 제6회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조선에서 강대현이 이동휘를 집정관(執政官)으로 선임한 〈신한민국임시정부안〉[86]의 각료 명단과 헌법을 가지고 온다.[87] 그는 바로 현순 등을 만나서 이를 전하는데, 원래 명단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상해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88] 이것은 4월 11일 구성된 상해 임시정부 각료 명단의 기초가 된다.[89]

1919년 4월 10일, 마침내 지금의 국회와 동일한 '임시의정원'이 개최된다. 임시의정원 의사기록에 따르면, 이날 먼저 각 지방의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정한다. 각 도에서 선발된 29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초대 의장으로 이동녕과 부의장으로 손정도를 선출한다. 임시의정원 회의는 4월 10일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인 4월 1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은 국호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등 여러 국호를 제안했는데, 이중 신석우가 제안한 '대한민국'이 채택된다. 이유는 명쾌하다. '대한'에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의미가 있고, '민국'에는 독립 국가가 공화

제 국가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4월 11일 새벽의 일이다.[90]

두 번째로 임시의정원은 정부조직 구성과 국무원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관제는 신한민국임시정부안을 참고하면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친다. 이를테면, 집정관제를 없애고 총리제만 두었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 군무부를 증설하기로 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을 국무총리에, 조소앙을 국무원 비서장에 선임한다. 각 각료들의 세부 명단은 앞의 표와 같다.

세 번째로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이것은 지금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 제정일은 1919년 4월 11일, 시행일은 제정일과 같다. 임시헌장은 헌법 전문 형식의 선포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91]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이 조항은 당시 국내외에서 발표된 다른 정부안과는 명확히 차별되는 부분이다.[92]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한다. 주목할 부분은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 공민(公民)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는 부분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성별과 재산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 보통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선진적인 부분이다. 또 제10조에서 국토 회복 후 1년 내에 ‘국

회'를 소집한다고 명기했는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라는 명칭의 기원이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이상과 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골격을 만들어낸다. 3·1운동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여 동안 정부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했다. 그리고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조선과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을 통할하는 중추로서 역할을 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그 출발점부터 달랐다. 국가와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세계사적인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93]

또한 이것은 1880년대 급진 개화파들로부터 시작된 근대적 국민국가를 향한 노력이 마침내 꽃 피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한민족 사상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국가운영의 기본으로 적용된 것이다. 정용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입헌주의에 따라 정부를 구성했고,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으며, 그에 따라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하여 근대 법치국가와 법치행정의 기초를 열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기구를 조직화하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정당정치의 공식적 운영도 임정에서 시작됐다. 비록 불완전한 제도화이며 미숙한 운영이었지만, 임정의 경험은 1948년 대한민국의 국가기구 제도화에 상징 수준 이상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94]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조선 독립을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당위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난관이 있었다. 3·1운동 이후 국내외 곳곳에는 임시정부 성격의 단체들이 생겨났고, 조직의 힘을 결집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를 하나의 단일 대오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1919년 3월 17일에 조직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와의 1919년 4월에 선포된 한성임시정부와의 통합은 조선의 독립과 독립 이후 건립될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다.

신석우, '대한민국' 국호를 발안하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67-1에는 신석우(申錫雨, 1895~1953)의 집터가 남아 있다. 현재 그의 옛집은 멸실되어 빌딩이 들어서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신석우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 의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의 교통총장을 지냈으며 1920년대 귀국하여 조선일보 사장과 신간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 신석우

신석우는 조선 후기에 경상북도관찰사, 평안북도관찰사,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한 무신 신태휴(申泰休)의 아들이다.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한 후, 1919년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여운형과 함께 고려교민친목회를 조직,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처음 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신석우는 독립된 조선의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정하자고 했다. 그러자 여운형은 '대

임시의정원 의원 시절의 신석우(가운데)
왼쪽은 신채호, 오른쪽은 신규식 선생

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다시 대한으로 흥해보자"는 뜻이라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대한'에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의미가 있고, '민국'에는 독립 국가가 공화제 국가임을 분명히 하는 뜻이라는 것. 이 말을 들은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며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대한민국 외에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등의 국호가 발안되었으나 이중 대한민국이 채택된 것이다.

그 뒤 신석우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1924년 9월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조선일보사》를 인수한다. 당시 30세에 불과했지만, 신석우는 친일파 송병준으로부터 민족 신문을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만석꾼 부친을 설득한 것이다.

그리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월남 이상재 선생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조선일보를 '조선민중의 신문'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상재 선생이 별세한 1927년 3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하고 1931년까지 재직한다. 1929년부터 '귀향남녀학생 문자보급운동'은 신문사가 벌린 민중운동의 전형이 되기도 했다.

1927년 2월 15일 오후 7시, 종로 기독교청년회 대강당에서 신간회 창립총회가 열렸을 때 사회를 맡았던 신석우는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신간회 활동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산되자 신석우는 안재홍에게 조선일보 사장직을 물려주고 다시 상해로 가게 된다. 당시 신석우는 부친에게 물려받은 수천석지기 토지를 대부분 탕진한 상황이었다. 1949년에는 중화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제약 브랜드는 무엇일까. 답은 바로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와 설립 연도를 함께하는 동화약품의 '활명수'이다. 1900년도 이전에 조선인들은 급체와 토사곽란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활명수의 등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 명성은 1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활명수'가 중구의 독립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 답은 동화약품의 전신인 '동화약방'의 초대 사장 은포(恩浦) 민강(閔橿, 1883~1931) 선생의 결연한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동화약방 초대 사장 민강(閔橿)

민강은 부친 민병호의 유지를 받들어 동화약방의 초대 사장이 된다. 하지만 이미 그는 독립운동에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칠 인물이었다. 민강은 지금의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의학교'를 세웠고, '조선약학교'(지금의 서울 약

동화약방 표석과 간판

대) 설립에도 큰 힘을 보탠다. 게다가 그는 1909년 비밀 결사대인 대동단 결성에도 참여하였고, '3·1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민강의 독립운동 활동이 일제의 감시망에 적발돼 1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였다. 출옥 후에도 민강은 상해로 건너가 민족교육과 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그 후 동화약방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민강은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1924년 민강은 독립운동 혐의로 다시 투옥되었고 1931년 옥살이와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별세하고 만다. 이후 동화약방의 사장들은 민강의 뜻을 이어받아 그곳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동화약방은 일제강점기 내내 상해 임시정부와 조선을 잇는 '서울연통부'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고, 또한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한 대단히 특별한 교두보였다. 당시 60㎖짜리 활명수 1병 값은 50전으로 설렁탕 두 그릇에 막걸리 한 말을 살 수 있는 비싼 가격이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으로 건너갈 때 돈 대신 활명수를 휴대했다가 현지에서 비싸게 팔아 운동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활명수'가 단순한 제약 브랜드를 넘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큰 도움을 준 상품임

을 새삼 알 수 있다.

한편, 상해 임시정부는 연통부와 교통국 등을 직할조직으로 삼아 비밀리에 조선 내에서의 조직적 기반 확대를 도모하였고, 특파원을 파견하여 조선 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물론 민중들과의 연대 형성을 시도하였다. 우선 임시정부는 조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통제를 시행하여,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만주의 관전현과 장백현, 평북, 함남, 황해도, 서울 등지에도 교통국을 설치하여 조선 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겼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내 특파원으로 하여금 통신과 연락, 연통제 구축, 임정 활동 선전, 시위운동과 비밀결사 조직, 국내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 독립운동 자금 모금 등의 일들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렇듯 서울연통부는 임시정부의 조선 내 거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을 비밀리에 연결했던 동화약방 서울연통부의 역할이 인정되어 1995년 8월 15일 서울시는 동화약방이 있던 자리에 표지석을 세웠다.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이곳은 서울시청과 비슷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의 서울연통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터이다. 1919년 3·1운동 직후인 4월 13일 중국 상해에 수립 선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연통부와 교통국을 은밀히 조직하여 국내외를 오가며 활약하였다. 그중 서울연통부는 일제와 싸우면서 임정이 수립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나라 안의 각종 정보와 군자금을 임정에 보고·전달하였다.

활명수와 신문광고

위 표지석 문구 중 '1919년 4월 13일'은 '1919년 4월 11일'로 고쳐져야 한다.

한성부 서소문 차동(지금의 서울 중구 순화동 5)에 위치했던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동화약품 자리에 세워진 서울연통부 기념비

동화약방은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24 패스트파이브타워 6~8층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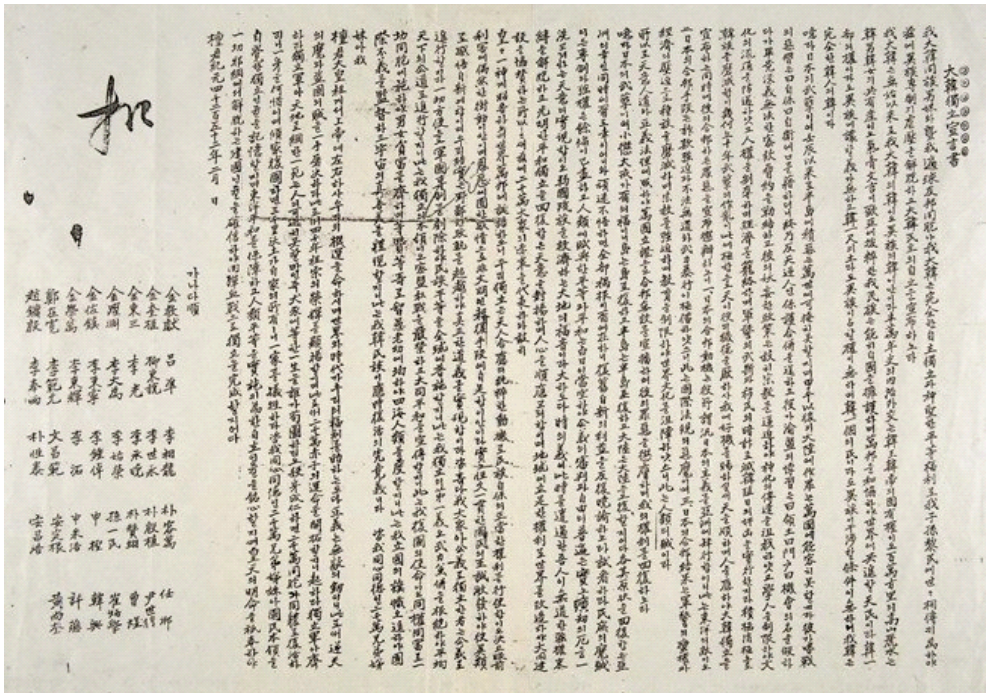
'동화약방'(同和藥房)의 창업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100년 넘는 민족기업으로서의 전통은 어떻게 집약되고 있는 것일까. '동화'(同和)라는 상호는 화합과 대동단결의 뜻이 강렬한데, 이것은 어떤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동화약품의 부채 로고에 그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한다. "종이와 대나무가 서로 합하여 맑은 바람을 일으킨다."(紙竹相合 生氣淸風)

민강 초대 사장의 "민족이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원대한 화합의 정신을 후대 기업인들이 잘 이어간 사례라 할 수 있다. 1897년 '동화약방'이었던 유구한 역사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2. 단일대오를 이룬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은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역사적인 날이다. 신석우의 발안으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내각의 구성과 인선도 마무리 되었다. 1919년 4월 8일 상해로 온 강대현의 「신한민국임시정부안」을 참고하면서도 당시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맞도록 체계와 명단을 수정했다. 조선 내의 민족대표와도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냈으니, 상해 임시정부는 조선 내외에서 인정받는 조선인들을 대표하는 정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완전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다. 3·1운동의 여파로 조선 안팎에서 모두 7개의 임시정부가 등장하는데, 이들과의 합동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정부'(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 내의 '한성임시정부'를 비롯해 '조선민국임시정부', '고려공화국', '간도임시정부', '신한민국정부' 등이 그것이다.[95] 특히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졌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와 1919년 4월 23일에 선포된 한성임시정부와의 통합은 향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단일 대오를 위한 초석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문제였다.



1919년 2월 1일 만주 길림에서 발표된 무오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소장)

먼저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 논의부터 살펴보자. 1919년 2월 1일 중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길림성에서는 만주와 러시아의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맞춰 조국의 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조선 최초의 독립선언으로서,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2·8독립선언이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고, 조선 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기 정확히 한 달 전의 일이다. 무오독립선언의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의 독립선언을 준비해 온 독립지사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오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김교헌,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좌진, 김학만, 여 준, 유동열, 이 광, 이대위, 이동녕, 이동휘, 이범윤, 이봉우, 이상룡,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이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손일민, 신규식(신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 방, 윤세복, 조용은, 조욱,

정재관, 최병학, 한흥, 허혁, 황상규 등. 이 중 함경북도 경원 출신으로 시베리아에 망명했던 독립운동가 문창범이 조선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독자적인 임시정부 조직에 앞장서게 된다. 문창범은 미주 지역의 안창호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했고, 3·1운동의 선두에 섰던 손병희를 대통령에 선임하는 등 조직화에 나섰던 것이다. 바로 이 조직이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다.

1860년 9월,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두고 협약한 '북경조약'으로 인해 조선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경계로 접경하게 된다.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인들은 만주의 간도와 연해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인 수의 증가만 살펴보더라도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들어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1898년에는 2만 3천 명에 불과했던 한인 수는 1921년 말에는 9만 5천 명으로 불어났다. 러일전쟁의 패배에 반기를 든 일부 군벌들이 동부 시베리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1905년, 한인사회는 혼란에 빠진 시베리아 일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화를 선언한다. 한족회(韓族會)를 구성해서 자위책을 타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 지역 조선인들은 한인 자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907년 대한교육청년회와 공진회(共進會), 대한교육청년연합회가 조직되었고, 1909년에는 공공회(公共會)가 발족된다. 그리고 1910년 6월 연해주에 망명한 의병을 중심으로 13도의군(十三道義軍)이 조직되었다.

1910년 8월, 치욕의 경술국치 소식이 전해졌다. 이상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성명회(聲鳴會)를 조직하여,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선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한국국민위원회 명의로 8,624명의 연명을 붙여 각국 정부에 발송한다. 이범윤은 의병을 동원한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9월, 러시아는 성명회 간부와 13도의군을 검거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설과 이범윤 등은 이르쿠츠크로 유배되기도 한다.

1911년 5월, 유배에서 풀려난 이상설은 이동휘와 합동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본부를 둔 '권업회'(勸業會)를 조직한다. 같은 해 미국에서 돌아온 정재관 등은 △ 시베리아 16개 △ 만주 8개 등의 지방회를 조직하였다. 특히, 의병을 중심으로 한 군대 조직은 괄목할 만했는데, 1914년 29,365명의 의병이 1만 3천 자루의 총을

가지고 시베리아 훈련 중이었다. 사관학교 설립도 추진되었다.

그러던 중에 러시아에서는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난다. 연이어 '11월 혁명'이 발발하여 볼세비키 혁명정부가 들어선다. 러시아는 적군과 백군으로 양분되어 내전을 벌리는 등 한 치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국으로 빨려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인들은 전로한족대표자회의를 조직하고, 1918년 1월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한족중앙총회의 조직을 결의하게 된다. 바로 이 전로한족대표자회의가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되면서 임시정부가 성립된다.

'대한국민의회'는 의장에 문창범, 부의장에 김철훈, 서기에 오창환을 선출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해 조선 독립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

① 대한국민의회는 조국독립의 달성을 기약하며 세계민족자결주의에 기인하여 한국 민족의 정당한 자주독립을 주장함.

② 한일합방조약은 일본의 강압적 수단으로 성립한 것이고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니므로 그 존속을 부인하며 일본의 통치 철폐를 주장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각료들

③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평화회의에 대표를 보내어 우리의 독립운동과 정부 건설의 승인을 요구하며 국제연맹에의 참가를 주장함.

④ 한국 독립운동의 실정을 세계에 선전하며 정부 건설의 사실을 각 국 정부에 통지하여 우리의 주권을 주장함.

⑤ 이상의 목적이 인도와 정의의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면 일본에 대하여 혈전 포고를 주장함.[96]

대한국민의회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총 망라하여 칠팔십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별도의 행정부를 조직하기에 이르는데, 대통령으로 손병희, 부통령으로 박영효, 국무총리로 이승만, 군무총장으로 이동휘, 내무총장으로 안창호 등을 추대한다. 각국의 영사관에 조선 독립 선언과 같은 대한국민의회의 성립을 통보했고, 조선 내 진입전을 준비하기 위해 군대의 창설을 도모했으며, 이를 위해 독립군과 군자금을 모집했다. 이로써 대한국민의회는 의회와 행정부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임시정부를 표방하게 된다. 그러나 한 달 뒤인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독자적인 조직체를 갖추며 건립된다.

1919년 4월 15일, 대한국민의회를 대표하여 원세훈이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된다. 그는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주요 골자는 상해 임시의정원과 대한국민회의의 병합과 임시정부의 위치를 러시아령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이에 5월 13일, 임시의정원은 각지에 흩어진 의회의 통일을 결의했으며 7월 11일에는 다음과 같이 통합 가능성을 열어 둔다.

①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두되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의정원과 대한국민의회를 합병하여 의회를 조직하되 러시아령 측에서 강력히 주장할 때는 러시아령에 둘 수 있다[97]

1919년 11월 3일, 이동휘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은 일단락된다. 대한국민의회 해산 결의는 이보다 앞선 8월 30일에 있었다.

한성임시정부 터 표석

한편 국내에서도 3·1운동의 후속 조치로 임시정부 건립 논의가 활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성임시정부'로 결집되는데, 타 지역의 임시정부와 비교되는 '한성임시정부'의 특성은 우선 국민대회를 거쳐 조선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과 의회나 행정부 등의 구성이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와 통합되면서 완전한 대한민국임시정부로의 발걸음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는 전국 13도 대표 국민회의가 개최된다. 총 24명으로 조직되었으며, 「국민대회취지서」와 「임시정부선포문」, 「결의사항」, 「약법」 등을 발표하면서 임시정부 수립의 당위와 필연성을 국민에게 호소한다. 그 역사적 장소는 서울 종로 서린동 봉춘관(奉春館)이었다.

> 3·1민주혁명을 바탕으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본대회는 민의에 기(基)하여 임시정부를 조직, 약법(約法)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한다.[98]

이 대회에서는 당시 미국에 머물던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임명하고,[99] 국무총리총재 이동휘, 외무총장 박용만, 내무총장 이동녕, 군무총장 노백린,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국총판 안창호, 참모부총장 유동열 등 정부각료 12명도 동시에 임명했다. 몇 달 뒤 이 명단은 상해임시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의회, 한성임시정부의 합동에서 내각인선의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박찬승은 '한성임시정부'의 내각 인선이 갖는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국외(만주, 러시아, 미주, 상하이 등)에서 활동한 인물로 구성된 망명정부다.

둘째, 기독교인과 대종교인이 일부 있지만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셋째, 출신 지역 비중을 생각할 때 대체로 당시 국외 활동가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짜여 특별한 편향은 보이지 않는다.[100]

이와 더불어 헌법적 성격의 약법도 발표되었다. 약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체(國體)는 민주제를 채택, ② 정체(政體)는 대의제를 채택, ③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및 세계평화에의 공헌, ④ 정부의 권한은 일체의 내정과 일체의 외교, ⑤ 국민의 의무는 납세 및 병역, ⑥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 적용할 것.

이날의 국민대회는 시민, 학생들과 함께 '공화국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시위를 하면서도 취지서와 선포문을 서울 곳곳에 뿌렸다. 서울 곳곳에서 만세 합창이 벌어졌다. 「임시정부선포문」은 현석철이 목각으로 6,000장을 인쇄했다. 임시정부령 제1, 2호를 만든 학생 이춘균은 장채극, 전옥결, 이철 등에게 부탁해 등사판으로 1,500장을 인쇄했다. 3·1운동을 계승한 이런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 당시 미국 최대 통신사인 UP통신은 전 세계로 타전하면서 조선의 국민대화와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알렸다.[101]

과연 예의 국민대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1919년 4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4월 2일, 홍면희와 이규갑 등은 인천만국공원에서 각 방면의 인사를 모아 회의를 열게 된다. 기독교계의 박용희, 장부오, 유교계의 김규, 불교계의 이종욱 등 약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이들은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갖고 임시정부 조직을 선포하기로 뜻을 모은다. 그리고 상해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한남수에게 상해로의 출발을 명한다. 그는 4월 8일에 출발했고, 16일에야 도착했으며, 21일에야 임시정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는 즉시 "인삼의 시세가 좋지 않으니 사지 말라"고 전보를 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알린다.[102]

국민대회가 끝난 뒤 5월, 이승만은 한성임시정부 집정관총재 자격으로 미국의 워싱턴에 집정관총재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한성임시

정부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했다. 그런 과정에서 1919년 9월 6일, 상해에서는 임시정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임시정부와의 통합이 논의된다. 그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거의 완전한 조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한성임시정부의 것을 채택하기로 한다.

마침내 1919년 11월 3일. 상해 임시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한성임시정부와의 합동이 완결되어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 선포된다. 4월 11일 태어난 상해 임시정부는 각국에 흩어져 산재하는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헌법을 제정한다. 새 내각과 의정원 구성까지 마쳤다. 《독립신문》 1920년 1월 8일 기사는 그해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안창호가 했던 연설을 전한다.

>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한 사람의 황제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천만 국민 모두가 황제입니다. (중략) 황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주권자인 것입니다.[103]

3·1운동의 불꽃은 새로운 국가의 수립으로 옮겨갔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비로소 탄생한 것이다.

독립운동의 거인, 백범을 기리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에는 백범 김구(金九, 1876~1949) 선생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다. 백범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투사였고, 대한민국 건국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몸을 바친 정치가였으며, 민족의 계몽을 위해 매진한 교육자였다. 그는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추구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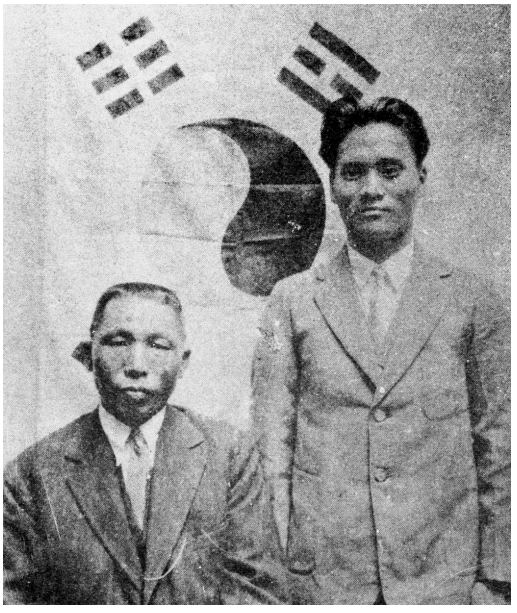
김구 선생의 본명은 김창수(金昌洙)이며 호는 백범(白凡)이다. 19세에 팔봉접주(八峰接主)가 되어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해주성을 공격했는데, 이 사건으로 1895년 신천 안태훈(安泰勳)의 집에 은거하면서 그의 아들인 중근(重根)과도 함께 지냈다. 을미사변 직후에는 안악 치하포(鴟河浦)에서 변복한 일본인을 처단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경하여 상동교회 지사들의 조약반대 전국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동녕(李東寧)·이준(李儁)·전덕기(全德基) 등과 을사조약의 철회를 주장하는 상소를 결의하고 대한문 앞에서 읍소하면서 종로에서 가두연설에 나서기도 하였다.

1918년 여운형을 당수로 하여 조직된 신한청년당에 참여하였다가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되었고, 1923년 내무총

백범 광장의 김구 선생 동상

장, 1924년 국무총리 대리, 1926년 12월 국무령(國務領)에 취임하였다. 이듬해 헌법을 제정, 임시정부를 위원제로 고치면서 국무위원이 되었다. 1929년 재중국 거류민단 단장을 역임하였고 1930년 이동녕·이시영(李始榮) 등과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하였다.

1932년에는 이봉창(李奉昌) 의거와 윤봉길(尹奉吉) 의거를 주도하여 크게 이름을 떨쳤다. 1933년 장개석을 만나 한·중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중국 뤄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를 광복군 무관양성소로 사용하도록 합의를 본 것은 주목받을 성과였으며,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1934년 임시정부 국무령에 재임되었고, 1940년 3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지청천(池靑天), 참모장에 이범석(李範奭)을 임명하여 항일무장부대를 편성하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즈음하여 1941년 12월 대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1932년)

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대일(對日) 선전포고를 하면서 임전태세에 돌입하였다.

1945년 중국 본토와 한반도 수복의 군사훈련을 적극 추진하고 지휘하던 중 시안에서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1945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함께 제1진으로 환국하여 그 해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신탁통치결의가 있자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적극 앞장섰으며, 오직 자주독립의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정계를 영도해 나갔다. 1948년 김규식·김일성·김두봉(金枓奉) 등과 함께 남북협상 4자회담에 임하였으나, 민족통일정부 수립에 실패하고 그 해 5월 5일 서울로 돌아왔다.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그 해 8월 15일과 9월 9일에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세워진 뒤에도 민족분단의 비애를 딛고 민족통일운동을 재야에서 전개하던 가운데, 이듬해 6월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104]

백범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었고, 분단이 아닌 통일조국이었으며, 어떠한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사상과 힘을 기른 국가를 위한 길이었다. 그가 남긴 족적은 민족이 당면 과제와 일치하였다. 그러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백범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제로부터 완전한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으며, 광복 후에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 매진하였다.

백범 광장 내에는 김구의 동상이 서 있는데, 이곳은 원래 이승만의 동상이 있던 곳이다. 이승만의 동상은 1956년 8월 15일에 세워졌는데, 두루마기 차림으로 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후 4·19혁명 당시 성난 군중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의해 같은 해 8월 철거되었다. 이승만 동상이 철거된 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울지 많은 의견을 냈다. 단군 동상이나 4·19혁명 학생들을 기리는 기념탑을 세우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백범 김구의 동상으로 최종 결정되기에 이른다. 1960년 조직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는 백범을 기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성금을 모았다. 김구 선생 생존 당시 만들어졌던 석고 흉상을 바탕으로 조각가 김경승과 민복진은 10미터 높이의 동상을 만들었다. 건립문은 소설가 박종화, 약전은 이은상이 지었으며 글씨는 김충현이 썼다. 좌대와 높이는 각각 6.2미터로 청동의 두루마기를 입고 독립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는 모습이다. 1968년 백범광장을 만들었고, 1년 뒤인 1969년 4월 8일 동상건립기공식을 열었다. 제막식은 그가 태어난 날인 8월 23일이었다. 이날은 영면한 백범의 93회 생일이었다.

한편, 백범광장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울시가 추진한 '남산르네상스 회현 자락 복원사업'에 힘입은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남산 백범광장의 서울성곽 246미터 구간과 일대 4만 4,900평방미터 지형을 복원하였다. 백범광장에서 안중근의사기념관까지 구간을 터널로 잇고 상부에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도로로 끊어진 구간도 새롭게 만들었다.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조병옥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에는 조병옥 선생의 집터가 남아 있다.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충정로역 5번 출구로 나와 서울역 방면으로 가다보면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가 나오는데 본관 한쪽이 그가 기거하던 곳이다. 조병옥은 예의 당당한 풍채에서 나오는 강인함은 물론, 경제학 박사답게 치밀한 논리와 학식을 갖춘 당대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1894년 충남 목천(지금의 천안)에 태어난 조병옥은 어렸을 때는 한학을 공부하다가 케블 목사의 추천으로 공주 영명학교에 편입한다. 이 지역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기도 한데, 3·1운동 발발 직후인 1919년 4월 1일, 유관순은 조인원(조병옥의 부친)과 유중권(유관순의 부친), 유중무 등과 함께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훗날 이 사건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으로 기록된다.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해서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했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조병옥은 미국 유학 중이었다.

조병옥은 영명중학을 거쳐 1909년 평양 숭실중학교에 편입한다. 이 무렵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이승만과 김규식, 신흥우, 백상규 등에게 영향을 받아 미국 유학을

조병옥 선생의 집터가 있었던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꿈꾸게 된다.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14년에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1918년 펜실베이니아주 와이오밍 고교를 졸업하고 1925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취득한다.

미국 유학 시절, 조선의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조병옥은 북미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목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1919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연합회의에 참석했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서재필 주도의 '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하였다.

1925년에 귀국한 조병옥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이사를 비롯해, 비밀독립운동 단체였던 그리스도교 신우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신간회 창립에 참가하여 재정부장, 총무부장을 지내는 등 신간회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일제의 광주학생운동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일제는 학생운동 배후조종 혐의로 한용운 등과 함께 검속하였다. 이때 3년 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37년에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2년 동안 수감되었다. 조선일보사 전무의 이력이나 보인광업회사를 운영한 이력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조병옥의 해방 후 활동도 극적이었다.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가하였고 미군정청 경무부장으로 취임하여 1948년까지 재직했다. 하지만 1947년 제주 4·3민중항쟁의 강경대응으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된 것은 그의 삶에 커다란 멍에로 남아 있다.[105] 안창호와 이승만을 지지하여 한때 이승만의 내각에 참여한 바도 있지만, 영면할 때까지 줄곧 야당 성향을 갖고 있던 그는 1960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등록까지 마쳤지만, 갑자기 발병하여 도미하게 된다. 그는 미국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한 지 23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의 장례는 1960년 2월 25일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106]

중구의 독립운동 유적 · 인물

장충동2가 권기옥 집터

한국인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

1988년,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1-4의 낡은 목조 건물에서 기거하던 여성이 숨을 거두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이자 '공군의 어머니'이며 독립운동가로서 생을 바쳤던 여성으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던 그녀의 이름은 권기옥이다.

권기옥을 수식하는 첫 번째 문장은 '한국인 최초의 여성비행사'일 것이다.[107] 운남육군항공학교 1기생으로 졸업한 그녀는 중국의 공군으로 활동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이다. 1949년에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한국 공군 창설에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수식어는 '독립운동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애국부인회 사교부장을 지낸바 있으며, 평양의 3·1만세시위는 물론 이후 굵직굵직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여성 중 하나였다. 일제강점기를 버티게 해준 긍지의 한국인이었고, "나는 비행기 타는 공부를 하여 폭탄을 안고 일본으로 날아가겠다"는 투철한 의지와 불꽃같은 포부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없었다.

권기옥은 상해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 중국의 운남육군항공학교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제1기생으로 입학하였다. 운남육군항공학교는 중국의 변방에 위치해 있었다. 권기옥이 이곳으로 온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손문이 세운 광둥의 항공학교에는 한 대의 비행기도 없었고, 그나마 보정항공학교와 남원항공학교는 권기옥이 여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했다. 1923년 3월, 권기옥은 임시정부에서 받은 추천서를 들고 작심하여 윈난성의 성장이었던 당계요와 담판을 벌였다. 여자라는 이유로 공군이 되지 못할 까닭이 없고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항일투쟁을 못할 까닭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계요는 그녀의 용기에 탄복한다. 그리고 권기옥의 입학은 허가된다.

1925년 3월, 권기옥은 운남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한다. 1기 교육생이었고, 성적도 남달랐다. 이후 십여 년 동안 중국 공군에서 복무했는데, 1927년 국민당 장개석 총통이 북벌을 일으킬 때 동로항공사령부(冬老航空司令部)에 최용덕과 함께 참여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항공학교 재학 시절 권기옥은 눈에 띄는 학생으로 소문이 났다. 게다가 한국 여학생이고 조선의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일제에게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다. 결국 일제는 한 청년을 매수하여 암살을 지시한다. 이를 안 권기옥은 이영무, 장지일 등과 함께 그 청년을 공동묘지로 유인하여 사살했다고 한다.

권기옥은 언제부터 비행사를 꿈꿨을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초지일관한 삶을 살아온 이력을 보면 바로 나타난다. 권기옥은 1901년 1월 11일, 평남 평양의 몰락한 양반가에서 1남 4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6세가 되던 해인 1917년 5월,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서 미국인 아트스미스(A. Smith)의 곡예비행이 있었는데, 그걸 본 권기옥은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108] 사실 권기옥의 비행사에 대한 포부는 조선 독립을 갈망하는 일념에서 온 것일지 모른다. 훗날 그녀는 "이때 일본으

운남육군항공학교 졸업장과 위임장(국가기록원 소장)

로 폭탄을 몰고 가 천황이 사는 황거를 폭파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한다. 환갑이 되던 해인 1961년《여원》7월호에서 권기옥은 이렇게 밝힌다.

> 어린 마음이었지만 항일투쟁에는 무조건이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죽음도 두렵지 않았지요. 나이가 어리고 여자라는 게 참으로 원통했습니다. 그때 하늘을 날며 왜놈들을 쉽게 쳐부술 수 있는 비행사가 되려고 마음을 다졌지요.[109]

권기옥은 기독교계 숭의여학교 재학 시절 비밀결사인 '송죽회'에 가담했고, 3·1운동 발발 당시 평양 만세시위에 적극 동참했다가 3주간 구금되기도 했다. 출소 후에 권기옥은 더욱 맹렬히 독립운동에 가담한다. 일례로 그녀는 브라스밴드단을 만들어서 평안도와 경상도 지방을 순회하는데 실은 이 밴드가 민중 계몽 운동의 거점이었고 독립운동의 중요한 연락망이었다. 대한애국부인회의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위해서도 일했다. 삼단 같은 머리채를 잘라 팔면서 모금에 동참했던 것이다. 또한 평양 청년회원 김재덕을 숨겨주고, 또 그의 권총까지 운반한 일로 일제에 검속되었지만 '증거 없음'으로 풀려나기도 한다. 임시정부공채를 비밀리에 판매, 1만원을 상해로 보내기도 했다. 이 일로 권기옥은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다. 평남

도경 폭파 사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 임시정부 산하의 당찬 청년단원이었던 문일민, 장덕진을 숭편보통학교 석탄창고에 숨겨두고, 당일 사건 현장까지 폭탄을 운반하기도 했다.[110] 이 일들은 3·1운동 발발 직후부터 1920년 후반까지의 일이다.

권기옥이 참여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평양에는 검거 바람이 불었다. 권기옥은 조만식이 보내준 여비를 풀어 중국인 멸치 배를 얻어 탄다.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가 극에 달하기 직전이었다. 상해에 도착한 권기옥은 곧장 임시정부로 향했고 손정도 목사 집에 머물며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홍도여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3월, 예의 항공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권기옥은 훈련비행 9시간 만에 단독비행을 허가받을 정도로 뛰어났다. 1925년 2월 28일, 그녀는 제1기생으로 졸업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가 된다.[111] 그러나 비행사가 되었어도 당시 사정은 녹록치 않았다. 특히 임시정부의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를 폭파할 것이니 비행기를 사달라는 권기옥의 제안에도 임시정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1925년 가을, 권기옥은 광동의 국민혁명정부에 가담하면서 10여 년을 중국 공군으로 맹활약한다. 1932년 일제가 상해 전투를 일으키자 권기옥은 비행기를 몰고나가 일본군에게 기총소사를 한다. 이 전투로 권기옥은 무공훈장을 받게 된다.

1928년 2월 29일 그녀는 이상화 시인의 형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상정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충칭에서 육군참모학교 교관으로 근무했고,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온 1939년에는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부인들을 설득하여 임시정부 산하의 여성 조직인 대한애국부인회를 재건한다. 이때 권기옥은 임국영(林國英)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으며 사교부장을 맡는다. 1943년에는 중국 공군에서 활동하던 최용덕, 손기종 등과 함께 한국 비행대 편성과 작전계획을 구상한다. 1945년 3월 임시정부 군무부가 임시의정원에 제출한《한국 광복군 건군 및 작전계획》중 미국과 중국에서 비행기를 지원 받아 한국인 비행사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하지만 일제의 패망으로 그 작전은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1949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권기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약하

1935년 중국 공군에서 선전 비행을 준비하는 권기옥(왼쪽에서 두 번째)

면서 한국 공군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한다. 이때 얻은 별명이 '공군의 어머니'이다. 1957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연감》을 발행했고, 1975년에는 전 재산을 장학사업에 기탁했다. 말년에는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91의 4의 낡은 목조 건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88년 4월 19일 88세의 일기로 사망한다.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에 안장된다. 권기옥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로서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도 수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3. 의열투쟁의 현장, 중구

의열투쟁의 출발과 형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한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목도한 많은 한국인들은 일제의 간섭과 식민화에 완강히 거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하였다. 그 중 가장 격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많은 민중의 지지와 호응을 받은 투쟁은 의열(義烈)투쟁이라 할 수 있다. 1919년 3월에 폭발한 거족적인 만세시위가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비폭력적인 투쟁이었다면, 을사늑약 이후 본격화한 의열투쟁은 참여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가장 결연한 투쟁 방식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열투쟁의 초기 모습은 일제를 규탄하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일제에 협력한 매국 친일 관료를 공격하는 등의 형태와 무장을 하고 의병항쟁과 독립전쟁에 나서는 형태로 나타났다. 일제 타도와 민족의 독립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일제기관 파괴, 일제 요인 암살, 친일파 및 밀정·부일배 처단을 주된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군사적·사회적·경제적 기반에 타격을 가하고 붕괴를 촉진하고 동시에 민족 성원들의

옥고를 치른 후 석방된 의열단원들이 1920년에 찍은 기념사진

항일 투지와 독립의지를 고취하고 선양하기 위함이었다.[112]

의열단(義烈團)은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는 아나키스트 성격의 무장독립운동 단체로 1919년 11월 9일 설립됐다. 이들은 프랑스 조계지역인 중국 상하이에서 무력항쟁으로 일본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통치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했다. 이들이 상하이에서 활동한 이유는 프랑스와 일본의 대립으로 인해, 프랑스 경찰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창단 직후 의열단은 처단 대상으로 ① 조선총독 이하 고관, ② 군부 수뇌, ③ 대만총독, ④ 매국적(賣國賊), ⑤ 친일파 거두, ⑥ 적 밀정, ⑦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등 이른바 '칠가살(七可殺)'을 선정하였다. 또한 파괴 대상으로는 ① 조선총독부, ② 북로군정서주식회사, ③ 매일신보사, ④ 각 경찰서, ⑤ 기타 왜적의 주요기관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암살과 파괴 대상은 의열단이 처음 범주화한 것으로서, 식민지 지배의 핵심기관인 정치·경제·언론·폭압기구를 파괴하여 식민통치를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표적들에 대하여

의열단은 단체 차원의 기획과 집단적 실행, 단체기획과 개인적 실행, 개인 차원의 기획과 개인적 실행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거사를 실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는 전업적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농민·노동자·광부·점원·학생·교사·유학자·종교인·면서기, 심지어 경찰요원까지 다양한 계층·신분 배경의 인물들이 참여했다.[113]

의열단은 비폭력투쟁인 3·1운동이 일본의 폭력으로 실패한 것을 보았으므로 광복을 위해 무력을 수단으로 적 기관 파괴와 제거를 위해 파괴 활동을 벌였다. 의열투쟁의 무대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특히 서울과 서북지방 일대, 일본에서는 동경의 왕궁과 경시청 앞 등에서, 중국에서는 상해·북경·천진 등 관내의 큰 도시와 만주의 주요 도시들이 주무대가 되었다. 일제의 정치·군사기관이 밀집해 있거나 경찰력이 대거 포진해 있는 곳에 의열투쟁의 맹폭이 가해진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3·1운동 직후에는 국내외 연계에 의해 국내를 중심무대로 하여 전개되다가 국외로도 투쟁공간이 점점 확장되어, 1920년대에는 국내외로 무대를 넓히게 되면서 국외 거점 단체들이 주도를 했고, 1930년대에는 해외지역 중심의 전개양상이 확연해졌다. 그러다가 일제 말에는 다시 국내로 그 무대가 이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는 임시정부와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거사도 적지 않았지만, 3·1운동 직후부터 적어도 30년대 초반까지는 임시정부의 주도·지원·개입에 의해 행해진 거사가 많았다.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뒷받침해 주었다.[114]

의열투쟁의 역사적 의미

의열투쟁의 거사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계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좌절된 경우나, 실행은 되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거사였지만 파괴력은 미미했고 그 효력이 기대에 못 미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결과였으며, 비록 실패한 거사들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심리적 효과는 매우 컸다. 자기희생을 감수한 의거라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반일정서와 항일의지가 더욱 고취되는 효과가 발해졌고, 독립운동의 다른 부문들에 대해 자극제도 되었다. 따라서 의열투쟁이나 의열적 행동들은 소기의 목표 달

약산 김원봉의 고향인 밀양에 설립된 의열기념관

성 여부나 성패를 떠나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띠었던 의열투쟁의 행위양식을 단지 형태론적으로만 고찰하여 '테러리즘'으로 규정짓고 격하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발생론적 견지에서 보건대 그것은 전적으로 민족사적·세계사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로부터 비롯된 행위양식이었다.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민족말살을 노리고서 자행된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가 20세기의 역사적 불의의 한 극치였다면, 한국민족은 그 불의에 맞서서 정의의 투쟁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전개한 것이다.

의열투쟁의 주역들은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서 민족 자존의 유구한 전통과 민족동질성을 되살리고 수호하려는 대열의 최선봉에 섬으로써, 민족정기의 보전 및 재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요 인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의열투쟁의 이러한 정향은 해방 후의 군사독재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저항하여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제단에 몸을 바친 열사들의 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었다.[115]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노익장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사) 앞 광장에는 강철의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투사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 그는 당당히 하늘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고 오른손으로 폭탄을 움켜쥐고 있으며 왼발을 내딛어 언제라도 목표를 향해 투척할 자세다. 그는 당시에도 그러한 자세였을 것이다. 군중 속에 묻혀 있었지만 마침내 군중을 찢고 나온 한 마리 범과 같았을 것이다.

3·1운동의 여파가 남아 있던 1919년 9월 2일, 당시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에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다. 비록 폭탄은 빗나갔지만 사이토 마코토 신임 조선총독을 환영 나왔던 일제 관헌과 그 추종자들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그 폭탄을 투척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1855년에 태어나 의거 당시 예순 살이 훌쩍 넘은 노인이었으나, 그 기개와 결의는 물론 실천과 행동력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투철했던 강우규 의사이다.

1855년 7월 14일, 평남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의 한 가난한 농가에 사내아이의 우렁찬 첫울음이 들려왔다. 강우규의 본관은 진주였고 호는 왈우(曰愚)였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누님 집에서 성장했으나, 친형에게서 한학과 한의학을 익히고 그

문화역서울284 앞 광장에 세워진 강우규 의사 동상

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리 부족하지 않은 형편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강우규는 점차 개화사상에 눈을 뜨게 된다. 개신교 장로회에 입교한 후로 집안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1883년에는 함남 홍원으로 이주하였다. 홍원에서 그는 한약방을 경영, 부를 축척했고 한 발 더 나가 사립학교와 교회를 세워 계몽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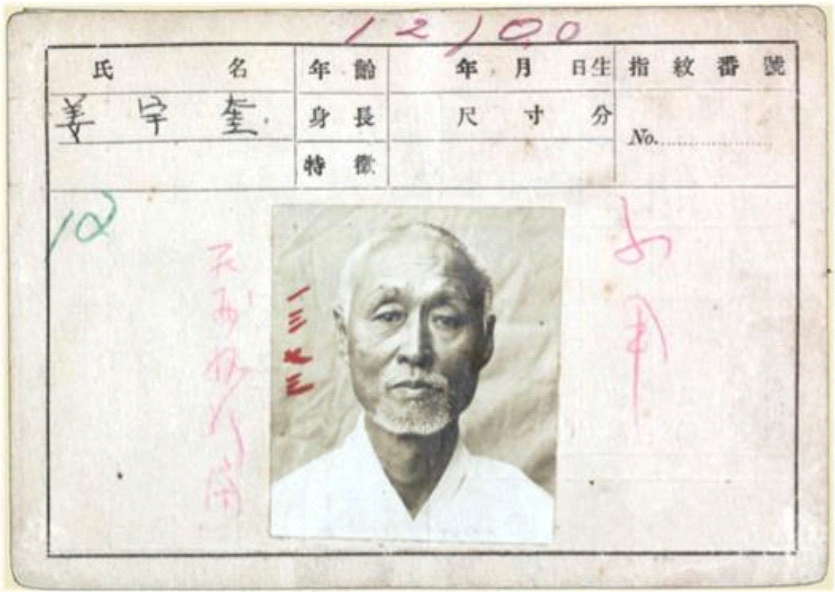
강우규의 투철한 독립운동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1910년 8월의 경술국치는 그 맹렬한 도화선이 된다. 1911년 봄 북간도 화룡현 두도구로 망명한 그는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박은식, 이동휘 등과 독립운동을 모색한다. 특히, 1915년 북만주의 요하현으로 이주했을 때 그는 그 일대를 신흥동(新興洞)이라 명명했고 청소년을 위한 광동학교를 세우는 등 독립의식 고취에 매진한다. 박은식이 조직한 노인동맹단에 가입한 것도 이 무렵이다.

1919년의 무오독립선언, 2·8독립선언을 시작으로 조선 본토에서 3·1운동까지 거세게 일어난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독립선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약해졌

다. 강우규는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를 암살하고 독립의지를 더욱 불태울 결심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강우규가 사이토를 척결하고자 했을 때는 60을 훌쩍 넘긴 노인의 나이였다는 것이다. 일제 군경조차도 일개 노인이 예의 엄청난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다.

우선 강우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러시아 군인으로부터 영국제 폭탄을 구입해 입국한다. 폭탄을 휴대했으나 60이 넘었다는 이유로 검문검색을 피했다. 그리고 거사 후 군경에 잡히기는 했지만, 같은 이유로 이내 풀려났다. 조선의 독립은 젊은 사람만 열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독립을 원했고 이를 위해 행동했다. 강우규는 그러한 조선인의 투철한 상징인 것이다.

1919년 8월 초, 강우규는 안국동 김종호의 집에 머문다. 여기서 신임 총독 암살을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8월 12일에 사이토가 신임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9월 2일에 부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8월 28일, 그는 남대문역 부근 여인숙으로 거처를 옮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주도면밀하게 짜기 시작한다. 매일 역전에 나가 지형지물을 살폈고, 폭탄 투척의 최적지는 물론이고 위지와 방향도 강구했다. 60세



강우규 의사의 수형자기록 카드

강우규 의사 거사 당일의 남대문역 인파

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는 이미 독립투사로 변모했다.

9월 2일, 드디어 거사 당일이 찾아왔다. 중국음식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끝낸 강우규는 계획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오후 5시, 부임식을 마치고 막 관저로 떠나는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진다. 그러나 폭탄은 빗나가서 뒤차에 떨어진다. 이 여파로 일본인 취재기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하고, 미즈노 렌타로(정무총감), 해리슨 부인(뉴욕 시장의 딸), 쿠보(만주 철도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호위 군경과 조선총독부 관리 37명이 중경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정작 암살 대상자였던 사이토는 파편 몇 조각이 혁대에 박혔을 뿐이었다.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남대문 역 주변이었지만, 이내 정신 차린 일본 군경들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질서가 잡혔다.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일본 군경은 수많은 사람을 체포했다. 그중에는 강우규도 있었지만, 얼마 못가 풀려난다. 그는 김종호, 장익규, 임승화의 집을 옮겨 다니면서 다시금 거사를 도모했지만, 악명 높았던 친일경찰 김태석에게 잡히고 만다.

1920년 2월 25일, 경성지방법원은 강우규 의사에게 사형을 언도한다.[116]

강우규 의사는 아들에게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1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117]

한편 사형집행 당시 감상을 묻는 검사에게는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한다.[118]

斷頭臺上 猶在春風
有身無國 豈無感想

단두대 위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2천만 민중아, 분투하라!” 외친 나석주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명동 쪽으로 조금만 걷다보면 외환은행 옆으로 결연한 자세의 동상이 하나 우뚝 서 있다. 오른손은 두루마기를 단단히 들고 있고, 왼손은 미래로 한 발 더 분명히 나아가려는 듯 굳건하다. 그 이목구비는 너무나 간결하고 뚜렷해서 모든 이념과 의지가 담긴 듯하다. 누구라도 그 청동의 상 앞에 서 있으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 동상은 어느 독립투사를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가진 어떤 이념과 의지를 기리고 있는 것일까. 동상 기단에 나타난바 그대로, 동상의 주인은 바로 나석주 의사다. 그는 1926년 12월 28일,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뒷받침한 핵심 기관이었던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고, 폭탄이 불발하자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향하여 건물 내부에 있던 일본인들을 사살하면서 조선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렸던 의열단의 핵심인물이다.

나석주는 1892년 황해도 재령군 북률면 남지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나병헌은 황해도 지방의 부농으로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비옥하고 기름진 토지를 아들과 함께 경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국권을 침탈당하고 동양척식회사를

일제의 경제적 수탈기구의 하나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중심으로 조선의 땅이 일본인들에게 양도되기 시작했다. 결국 나석주 집안은 토지를 강탈당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무렵 나석주가 독립운동에 뛰어드는데, 명신학교를 수학하고 북간도로 망명하기에 이른다. 신흥무관학교에서 항일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등 나석주 의사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쳤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나석주는 군사자금을 마련해 임정에 송금했다. 그의 무용은 아주 유명했는데, 결사대를 조직해 황해도 평산군에서 주재소 일본제국 경찰과 면장을 사살했고, 북쪽 지방 일대를 돌아다니며 요인을 암살했다. 아울러 군자금까지 조달했다. 나석주를 검거하기 위해 병력을 확대하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에 나석주는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을 거쳐 감단군관학교(邯鄲軍官學校)를 졸업하고 중국군대 장교로 복무했다. 백범과 김창숙의 요청으로 동양척식회사 폭파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는 1926년 겨울, 중국인 리중거로 위장해 입국한다.

나석주는 수일을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거사 장소와 시간, 그리고 경비 상황과

을지로입구역 외환은행 본점 인근의 나석주 의사 동상

동선, 폭탄을 투하할 자리, 퇴로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마침내 거사 당일 아침, 나석주는 아침을 든든히 하고, 조선식산은행으로 향했다. 연말이라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그 틈을 타서 정신없는 은행원들 뒤로 폭탄을 투척했다. 하지만 그 폭탄은 불발되고 만다.

나석주는 급히 은행을 빠져나와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갔다. 신문지로 숨겼던 권총으로 1층 수위실의 일본인 기자부터 사살했으며 2층 사무실로 올라가서는 직원들을 향해 난사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 먼저 총소리를 듣고 계단을 올라오는 직원 한 명을 사살했고, 토지 개량부 기술 과장실로 가서 오모리, 아야다 과장을 사살했으며, 옆의 기술과로 들어가 권총을 마구 난사하고 폭탄 하나를 던진 다음 아래층 현관에 있던 일본인 두 명에게 권총을 쐈다. 그러나 이 폭탄도 불발했다. 살육전을 벌이다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지체되었고, 탈출할 때가 됐다고 느낀 나석주는 동척을 나와 거리를 내달렸지만, 마침 출동한 일경들과 마

주치게 되었다.

나석주는 먼저 만난 경기도 경찰 경부 다하타 유이지를 사살하고, 일본제국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일본인들을 사살하며 도주했다. 그러다 체력이 다했다고 느꼈는지 전봇대에 기대어 가슴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제국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고등계 형사로 악명이 높았던 미와의 심문을 받던 중 자신이 나석주임을 밝히고 순국했다.[119]

나석주 의사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일제 군경이 아무리 많아도 결연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경기도 경찰 경부 다하타 유이지를 사살하고 일제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지만 결국 체력이 바닥나고 말았다. 그는 전봇대에 기대어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순국했다. 그의 유해는 고향인 재령군에 묻혔다.

東亞日報
號外
掲載禁止 今日解禁
白晝突發한近來初有의大事件
東拓과殖銀에爆彈을投擲
拳銃을亂射하야一擧에七名狙擊
昨年十二月廿八日午後二時黃金町의一大慘劇
脫出한犯人은街上에서自殺
爲先, 殖銀에一彈!
突發直前의殊常한中國人
第二次로東拓突入
上下層서六名狙擊
出其不意의猛烈한射擊
犯人은載寧出生
共犯은李成忠指目
系統은丙寅義勇隊
前後擧事單身獨行
卅五歲 羅錫疇
東拓現場圖解說明
寫眞說明
被害者의經過
被害者名簿
暗憺한現場과
鐵筒가른警戒
事件發生當時의市內
街頭에서警部射擊
다음은自己胸中
仰天仆地한犯人의最後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자세히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광복의 신호탄, 부민관 폭파 의거

일제 패망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1945년 7월 24일, 부민관(현 서울시의회)에서 시한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의거로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조선인에게 노골적으로 전쟁 참여를 선동하려던 친일파 박춘금의 '아세아 민족분격대회'가 무산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행사장에 참석했던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 조선군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 등을 비롯한 고위 관료와 장성, 친일파들, 난징정부와 만주국 대표 등의 혼쭐을 쑥 빼놓으며 일제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이 임박했음을 만천하에 알린 쾌거였다.

이 부민관 폭탄 의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이들은 20세 안팎의 열혈 청년들이었다. 조문기, 유만수, 우동학, 강윤국 등은 의거 두 달 전인 1945년 5월 '대한애국청년당'(이하 '청년당')을 결성했다. 대한애국청년당의 유일한 목적은 항일투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일제를 향한 조선 청년들의 항거이자 분노의 표현으로서, 이 의거가 일어난 지 불과 20여 일 후에 8·15광복을 맞는다.

당시 친일파 거두였던 박춘금이 7월 24일 저녁 경성부민관에서 '아세아 민족분격대회'를 연다는 보도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패전으

일제강점기의 경성부민관

서울특별시의회

로 기울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음에도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아들과 딸들을 전쟁에 동원해 총알받이로 쓰고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조문기 등은 이 소식을 접하고 비밀회합을 통해 대회장 폭파를 모의한다. 각자의 역할과 행동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청년당'은 특히 유만수를 통해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하도록 한다. 그는 수색변전소 공사장 발파 인부로 침투해서 안전하게 폭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대회 전날 밤이 되자 '청년당'의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무대 밑에 폭탄 두 개를 설치했다.[120]

폭탄은 터졌을까? 그렇다. 폭탄은 터졌다. 민족의 분노와 염원을 담은 폭탄은 결국 엄청난 굉음과 함께 터졌고 행사장을 덮쳤다. 7월 24일 밤 9시 경 박춘금이 시국강연을 위해 연단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이 폭발로 사상자 1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냈다.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회는 무산되고 만다.

이 사건으로 서울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비밀결사였던 건국동맹이 수면 위에 올랐고, 주요 간부 중의 한 사람이었던 조동호가 검거되었다. 박춘금은 조문기와 유만수, 강윤국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은 조선의 편이었다. 마침내 8월 15일 일제는 패망을 선언한다.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들 (왼쪽부터 강윤국, 조문기, 유만수 의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터

반민특위와 못다 이룬 친일청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국민은행 옛 명동 본점 터)는 광복 후 친일청산의 중심에 섰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본부가 있던 자리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앞 한국전력 서울본부와 SK네트웍스 빌딩을 지나면 나오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제일은행 본점 건물로, 해방 직후에는 국민은행 본점으로 쓰였다. 현재는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어 최신식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반민특위는 이 건물 전체를 독립청사로 썼는데,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지위가 그만큼 크고 막중했다는 반증이다. "친일 세력은 해방 이후 3년을 경과하면서도 냉전체제의 성립에 편승하여 여전히 사회의 지배층으로 남아 있었다. 친일청산은 민중들의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이전 친일 청산을 공약했던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었다. 청산의 민족적 당위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121]던 바로 그 이유로 하여 반민특위의 위상과 역할은 시작된다.

반민특위는 1948년 9월 제헌의회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그 근거를 둔다. 1948년 10월 23일 반민특위는 위원장으로 김상덕

을, 부위원장으로 김상돈을 선출한다. 김상덕 위원장은 알려진 것처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화부장을 맡았던 독립운동가다. 1948년 12월 21일에는 반민특위 구성을 완료하기에 이른다. 1949년 1월 5일에는 조사관, 서기관 각 15명으로 구성된 반민특위 중앙사무국이 발족된다.

반민특위는 활동 시 통행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특별조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이러한 내용은 반민특위 신분증과 신임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바다. 1949년 1월 6일, 반민특위 내 특경대를 설치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특별검찰부의 조사위원과 검찰관, 조사관들의 신변보호와 친일파의 구속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반민특위 특별조사원이나 조사관,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

국회의원 가운데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애국의 성심을 가진 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반민특위 조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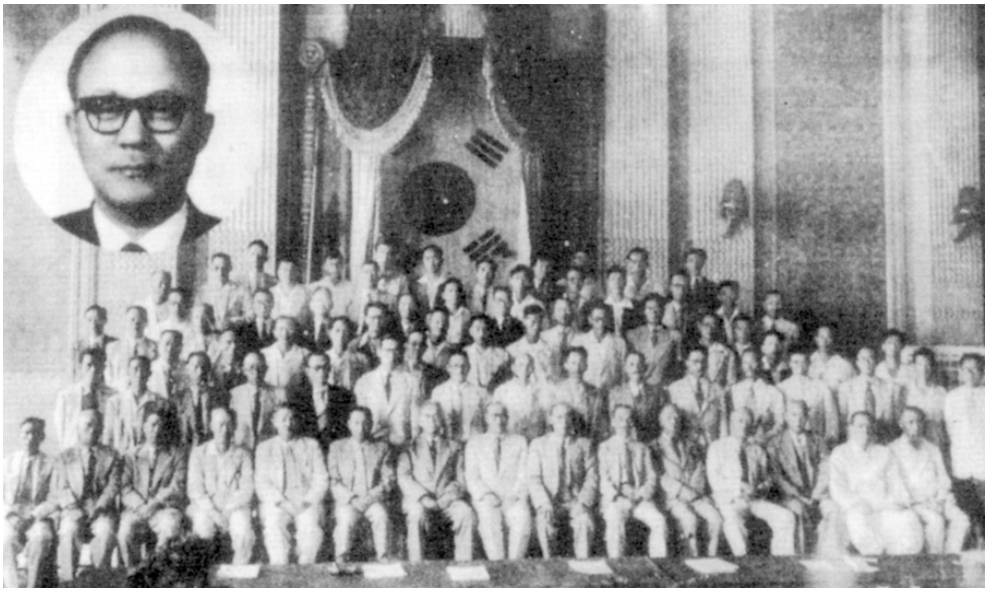
친일 모반의 세평이 없는 자.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엄결 청명하고 결백한 사람, 공평・정직하고 과감한 사람.

▣ 반민특위 특별재판관・특별검찰관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성심 있는 법률가, 애국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122)]

한편 해방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제야 반민특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설치되며, 활동하기 시작한 것일까. 답은 우리의 해방이 우리의 손으로 직접 쟁취한 것이 아닌, 세계열강의 이념과 판단, 논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로 인해 아직도 친일청산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낳게 된다.

첫째,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행정자문과 관료로 다시 채용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기념사진(왼쪽 상단은 김상덕 위원장)

했다. 물론, 해방이 되자 친일파 처벌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미군정은 치안유지를 이유로 조선인들의 숙원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맥아더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정부, 공공단체와 모든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친일파는 자기가 일했던 그 자리에 아무런 처벌 없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예컨대, 경찰의 경우 1946년 10월까지 서울 10개 경찰서장 중 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었고 그나마 나머지 1명도 군수 출신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 악질 고등경찰이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훗날 한국 경찰의 요직을 차지한다.

둘째, 해방 후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이승만이 부족한 국내 정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친일 경력자들과 손을 잡는다. 이승만은 "친일파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은 민심만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를 수립한 후 조치하는 것이 순서"라며, 일단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무조건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역사가 증언하는 대로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했기 때문이다.

셋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이 좌우로 나뉘자 친일파들

은 즉각적인 독립과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한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선전했다. 친일파 청산은 새로운 국가 수립에 있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 반민특위가 설치되기 전인 1947년에 「민족반역자, 모리간상배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임시입법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 통치에 협력한 조선인들을 옹호하며 법안 통과를 보류했던 것이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의회가 발족되고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 101조가 명시한 바에 따라 친일파 처벌법이 제정된다.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초안을 만들었다. 물론 법안 제정에 극렬히 반대하거나 법안을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찬성 103표, 반대 6표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9월 22일 대한민국 법령 제3호로써 공포했다. '반민법'은 총 32개 조항으로 반민족행위자의 범주 및 처벌규정,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특별재판부의 구성 및 수속, 부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제1장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 규정을 담았다.[123)]

1949년이 되자 반민특위는 예비 조사를 통해 선정한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체포한다. △1949년 1월 8일= 박흥식 △1월 10일= 이종형 △1월 13일= 최린(민족대표 33인이었다)과 방의석(거액의 국방헌납을 했다), 김태석(친일 경찰)을 체포한다. △1월 14일= 이승우(창씨개명제 관련 법안을 기초하고 선전했다)와 귀족 이풍한 등을 검거했고, △1월 18일= 이성근(평북 특별고등경찰과장과 충남지사를 지냈다) △1월 25일= 노덕술(친일경찰의 대명사)를 검거한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첫 공판은 1949년 3월 28일 정동 특별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렸다. 모두 3부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단심 합의제였다. 특별재판소의 첫 공판의 주인공들은 이기용과 박흥식이었는데 각각 오전과 오후에 열렸다. 김태석 공판 기록의 한 부분을 보자.

재판관: 왜 경찰로 들어갔는가?

김태석: 전들 조선민족의 한 사람인데 민족정신을 저버릴 수야 있겠습니까. 제가 경찰

반민특위 공판 모습

> 로 들어간 것을 말씀드린다면... 데라우치(寺內)총독암살사건 공판이 있을 때 방청을 갔더니 놈들이 한다는 짓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공연히 만들어서 그런 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찰로 들어가서 흑백(黑白)을 가려야겠다는 비장한 생각으로.[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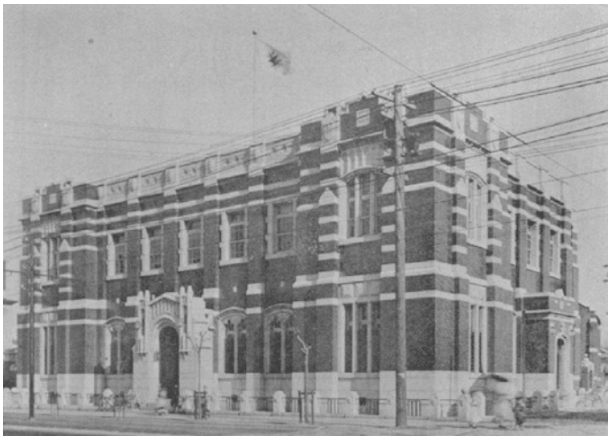
김태석은 '일제에 빌붙어서 경찰이 되었는가'라는 재판관의 질문에 애국심으로 경찰에 들어갔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친다. 물론 좌중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반민특위 활동은 얼마 못가 좌절되고 만다. 친일 전력이 있던 경찰의 대대적인 방해로 조사위원들이 총사퇴를 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승만은 노골적으로 '반민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1948년 9월 3일에 나온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지금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離散)시킬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1948년 10월 1일의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는 ""정권이양 시기이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반민처단법 때문에 경찰관들이 동요한다는데 정권이양이 다 되고 정돈되거든 처단하자"는 논리를 폈다.

반민특위 활동이 정점으로 향해가던 1949년 2월 15일 「반민특위 특경대 폐지와 체포권한을 제한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방향에 대해 담화」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행동이 지나친 바 있어 국가치안에 방해가 된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특별조사위원 2·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고문한다는 말이 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 장관에게 지휘 하에 특경대를 없이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 노골적으로 했다고 밝힌다.

뿐만 아니다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 위원에 대한 암살 시도[125]는 물론이고 반민특위 습격사건도 있었다. 습격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당시 서울시경 사찰과장이었던 최운하와 종로서 사찰주임 조응선이 반민특위에 체포된다. 죄명은 반민특위 반대 대중시위 조직 혐의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한밤중에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40명의 무장경찰들이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장경근 내무차관의 지시와 이승만 대통령의 묵인으로 자행된 것이다. 각 지방의 특위본부에도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승만은 오히려 "자신이 직접 특경대 해산을 명령한 것"이라며 습격자들을 보호한다.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도 반민특위 와해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반민특위 활동을 두고 의회와 싸우던 중에 발생했는데,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갑자기 구속되어버린 것이다. 친일청산을 주장하던 국회의원들을 도리어 '빨갱이'로 몰아간 것이다. 또한 반민특위 습격 후 20일 만인 1949년 6월 26일에 벌어진 백범 김구 암살 사건도 반민특위 와해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반민특위 본부로 사용된 청사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반민특위가 목표로 했던 완전한 친일청산은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1949년 7월 1일 곽상훈 의원 등 21명이 결국 반민법 공소시효를 8월로 끝내는 법 개정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특위 조사위원은 7월 7일 전원 사표를 제출했고, 이어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반민법 제정에 반대했던 이인 전 법무장관이 그 사람이다. 조사위원 10명 중 6명이 바뀌는 수모를 겪은 후, 1949년 10월 4일 반민특위 폐지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기에 이른다.

한편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정부는 국가 주도의 친일청산 작업을 다시 시도한다. 광복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친일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댄 것이다. 2005년 1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 공포된다. 이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 규명, 민족 정통성의 확인, 사회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제시했는데, 「반민족규명법」을 근간으로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는 「반민족규명법」이 처벌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와 논리로 진상을 규명'하여 친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일단락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126] 왜 굳이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일까. 답은 명확하다. 역사란 정확한 사실에 의해 그 진상이 파악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오는 글

“오직 바라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중략)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127]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위와 같이 썼다. 몇 번을 읽

어봐도 그 뜻과 이념이 선명하다. 부유하고 힘센 나라가 아닌 문화대국으로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백범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했던 독립투사의 꿈이 강국도 부국이 아닌 '문화'와 '행복'에 있다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아도 큰 울림을 남긴다.

그러나 백범의 실로 소박해 보이는 이 꿈은 실제로는 그 무엇보다 원대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문화란, 그것을 뒷받침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문화'는 그야말로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더욱 고양할 수 있다. 백범의 말처럼,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과연, 백범의 선견지명은 옳았다.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잠재력이 고양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3·1만세운동은 백한 번째의 역사를 맞이했다. 자주적 독립 국가를 향한 민중의 염원, 그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화산처럼 폭발했던 3·1정신은 백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3·1정신은 살아 있다.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굳건히 하면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기준점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역사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제1의 통치이념으로 정착시켰으며, 이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다.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변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선진 대국으로 문화 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이다. 바로 여기에 3·1운동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3·1운동을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힘이 순수한 에너지로 결집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족적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권이 피탈된 지 9년 만에 우리 민족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이념과 의지를 스스로 깨달았으며, 자주와 자강에 대한 장대한 계획을 민의로부터 기획하고 실천했다. 근대화에 뒤늦은 변방의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러한 자존과 긍지는 세계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 번 폭발한 민족적 열망은 걷잡을 수 없었다. 3개월 동안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

임시정부 시절의 김구와『백범일지』

으며 빈부나 귀천,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었고, 지역적 차이도 거의 없었다. 조선 사람들의 총궐기라는, 절체절명의 어둠을 뚫고 터져나온 조선의 광명이 바로 3·1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역사학자 윤경로는 3·1혁명의 이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3·1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 3·1혁명 이후 왕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니 이후 복벽파(復辟派)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帝國'에서 '民國'으로, '臣民'에서 '民人' 이 나라의 주권자로 우뚝 선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처음으로 여성(女性)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나선 사실 또한 혁명적 변화였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남녀노유가 차이가 있을 까닭이 없었겠으나, 여성들이 대거 현실참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할 때 획기적 국면전환이자, 역사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기생, 해녀, 백정, 광부 등 아직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역사전환의 주체로 떠올랐던 점 또한 혁명적 변화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함으로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떠올랐다는 점 또한 3·1거사의 '혁명성'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천 년 내려오던 봉건왕조의 '제국(帝國)에서 백성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세우는 역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3·1혁명'이라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128]

2019년 삼일절을 맞아 서울중구문화원에서 주관한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여기에 더하여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좌우 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을 3·1운동의 혁명적 가치로 꼽을 수 있다.[129] 확실히 3·1운동은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혁명적 에너지가 결집되고 분출된 결정적 계기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발전을 이루기까지 그 밑바탕이 된 것은 바로 3·1운동의 혁명정신이었던 것이다.

1941년 11월, 상해 임시정부의 이론가이자 사상가였던 조소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대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국가등록문화재 740호로 등록된 이 문서는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을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잘 담아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3·1운동을 일컬어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이민족 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130]였다

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3·1운동이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131]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나아가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도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건국대강」의 지향을 고스란히 담아냈다.[132]

이러한 특성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이념과 의지에서 발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1945년의 광복이 서구열강의 시혜적 선물이 아니라 3·1운동을 통해 분출했던 혁명적 에너지의 결집이자 최종 완성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3·1운동은 독립운동의 정점을 찍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결의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3·1운동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정신이 아닐까. 그러한 의미에서 3·1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원류로서, 그리고 정신과 실천의 최대치로서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후주(後註)

1부 만세전(前): 망국과 항거

1) 김형오,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북이십일 아르테, 2018, 263쪽.
2) 신명호, 『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위즈덤하우스, 23쪽.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2, 탐구당, 168~169쪽.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2, 탐구당, 356쪽.
5) 신명호, 『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위즈덤하우스, 50~51쪽.
6) 위키백과, '통감부'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통감부.
7) 위키백과, '시일야방성대곡'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시일야방성대곡.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한응' 항목 참조. cykorea.aks.ac.kr › Contents › Item 이한응(李漢應)
9) '시일야방성대곡' 논설의 마지막 부분.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한응' 항목 참조.
11) 공훈전사사료관, '이한응' 항목 참조.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x.do
12) 신명호, 『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위즈덤하우스, 497~498쪽.
13) 위키백과, '고종 양위 사건'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고종_양위_사건
14) 위키백과, '의민태자'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의민태자.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준 열사' 항목 참조.
1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군대해산"
17) 위키백과, '군대해산'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군대해산.
1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3, 1979.
19) 장규식 외, 『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독립기념관, 2008, 640~643쪽.
20) 위키백과, '남대문 전투'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남대문 전투.
21) 티칭백과, '대한제국 군대 해산' 항목 참조. http://dic.kumsung.co.kr/
22) 장규식 외, 『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독립기념관, 2008, 640~643쪽.
23) 공훈전사사료관, '남대문 전투' 참조.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x.do
24) 『이화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196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구여관' 항목 참조.
25) 민족문제연구소, 《군대해산의 현장을 찾아서》(답사 자료, 2019년 7월)
2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정미의병" 항목 참조.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십삼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 항목 참조.
28) 위키백과, '통감부'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통감부.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 1975.
30)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신민회"
31) https://news.joins.com/article/5875893 "이회영 6형제, 광복자금 600억 들고 '가문의 이동'"[출처: 《중앙선데이》 2011.07.30.]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회영' 항목 참조.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시영' 항목 참조.
34) 상동교회, 『상동교회 100년사』, 1989[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덕기(全德基)' 항목 참조]
35) 상동교회, 『상동교회 100년사』, 1989[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동교회(尙洞敎會)' 항목 참조]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술국치' 항목 참조.
37) 안중근의사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ahnjunggeun.or.kr/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중근' 항목 참조.
38) 장규식 외 지음, 『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독립기념관, 2008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이재명 의거" 3절 이재명(李在明)의 의거 참조.
3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이재명 의거"/ 14권 한말 순국·의열투쟁 참조.
40) 위키백과, '의친왕' 항목 참조. ko.wikipedia.org › wiki › 의친왕.
41) 나무위키, '의친왕' 항목 참조. https://namu.wiki/w/의친왕.
42) 사단법인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참조. www.daedongdan.or.kr

2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 통상 우리는 경술국치를 8월 29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제국이 일주일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8월 29일 순종 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행정 결재에만 사용하던 옥새(玉璽)가 찍혀 있을 뿐 대한제국의 국새(國璽)가 없고, 순종황제의 서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무위키(https://namu.wiki/w/), 「경술국치」, 1. 개요 참고.

2) 나무위키(https://namu.wiki/w/), 「경술국치」, 4. 한일 병합 조약 전문 참고.

3) 이광수는 선언문 작성 후 상해로 도피한다. 최팔용이 이광수의 신변을 우려하여 도피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4)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일컬어 일명 「무오독립선언서」(戊午獨立宣言書)라고도 한다. 조소앙(趙素昻)이 작성하여 1919년 2월 1일에 발표되었으며, 3·1운동의 전초가 된 독립선언서 발표 사건이다.

5)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77쪽.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약소국동맹회(弱小國同盟會) http://encykorea.aks.ac.kr/

7) 박찬승, 앞의 책, 70쪽.

8) 정병준, 「3·1운동의 기폭제: 여운형이 크레인에게 보낸 편지 및 청원서」, 『역사비평』 119, 역사비평사 2017. 참고.

9) 박찬승, 앞의 책, 57~58쪽.

10)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 민주문화사, 1946. 참고.

11) 한편 작성된 청원서 두 통은 각각 미국과 파리로 보내지는데, 하나는 찰스 크레인에게 부탁해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해에서 발행되는 영문 잡지 《밀러드 리뷰(Millard's Review)》의 주필인 토머스 밀러드에게 부탁해 파리강화회의에 보내게 된다.(박찬승, 앞의 책, 59쪽)

12)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27쪽.

13) 박찬승, 앞의 책, 60쪽.

14) 이만규, 앞의 책, 참고.

15) 정병준, 앞의 글. 참고.

16) 박찬승, 앞의 책, 93~95쪽 참고. "현상윤과 최린의 회고를 정리하면, 중앙학교의 송진우, 현상윤과 출판사 신문관의 최남선은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준비에 자극을 받아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심했고, 최린, 권동진, 오세창, 송병희 역시 이에 자극받아 독립운동을 최종 결심했다고 할 수 있다."(같은 책, 95쪽)

17)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일제는 대한제국을 상대로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18) 1919년 8월 6일 일제는 손병희 등 47인에 대해 '내란죄'를 씌워 고등법원 예심에 회부하였다. 내린죄는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으므로 민족대표의 각오는 비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60쪽 참고.

20) 조한성, 앞의 책, 66쪽. 이와 관련해 조한성은 "거사 이틀 전에 대표적인 천도교 지도자 중

한 명인 권동진이 우쓰스노미야 조선군사령관을 찾아갔다"고 언급한다. 자칫 독립운동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위험천만한 일을 강행한 까닭이, 조선의 독립선언이 바로 일본의 독립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독립선언 후 승인이 이뤄지면 바로 일제 수뇌부와의 협상을 통해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천도교 측의 목표라는 것이다.

21) 손병희가 세운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방면의 인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에 독립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넷째, 미국 대통령의 동정을 얻기 위한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강화회의(평화회의)의 열국 대표자에게 독립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이 원칙을 중심으로 최남선은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잡는다. 박찬승, 앞의 책, 152~153쪽 참고.

22) 현상윤의 회고에 따르면 최남선은 임규(林圭)라는 이의 일본인 처 오자와의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유는 최남선 본인의 집이나 조선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보다는 일본인에게 맡겨두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았다는 것이다. 박찬승, 앞의 책, 157~158쪽.

23) 2월 26일, 천도교가 운영하던 인쇄소인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비밀리에 「3·1독립선언서」의 인쇄 작업에 착수한다. 조서에 따르면, 그는 27일 오후 5~6시 무렵 오세창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선언서를 처음 보았고, 밤 9시 무렵부터 인쇄를 시작해 11시경에 2만 1천 장의 인쇄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이종일은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인물이다.

24) 조한성, 앞의 책, 64쪽.

25) 이 내용은 "다큐 책을 읽다, 1919년 3월 5일, 기억해야 할 이름들"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출처 https://www.kyobostory.co.kr/contents.do?seq=1208)

26) 박찬승, 앞의 책, 190~192쪽 참고.

27) 조한성, 앞의 책, 110쪽 재인용.

28) 조한성, 앞의 책, 88~90쪽 참고.

2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엮음, 『세브란스 독립운동사』, 역사공간, 2019, 75~76쪽.

30) http://oversea.i815.or.kr, 함태경 편 참고.

31) 나무위키(https://namu.wiki/) 이갑성 편 참고.

32) "3·1운동 중심지 승동교회, 수표교교회", 크리스천노컷뉴스, 2019. 3.18일자.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5119772" 참고.

33) "http://kcm.kr/dic_view.php?nid=20087&key=&kword=%BD%C5%BC%AE%B1%B8&page=" 참고.

34) 같은 곳; 수표교교회 홈페이지 "http://spkmc.kr/Page/Index/99" 참고.

35) 출처: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cident.do?page=2

36) 같은 곳. 한편 국외의 만세시위도 촉발됐다. "간도지역에서는 3월 12일 지린성(吉林省) 류

허시엔(柳河縣) 삼원보와 퉁화시엔(通化縣) 금구에서 독립축하회를 열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북간도에서는 3월 13일 용정 서전대야(西甸大野) 일본영사관 옆에 한인 1만여 명이 모여 독립축하식과 시가행진을 벌였다. 백초구, 훈춘, 봉천 등지도 만세시위로 이어졌다. 연해주는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인국민회가 주도하여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우수리스크, 라즈돌리노예, 녹둔도 등지에서 시위운동이 이어졌다. 미국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는 안창호가 한인들에게 피 흘릴 각오를 할 것이며, 미국의 여론을 일으켜 재정 공급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재필 등은 4월 14일부터 16일의 3일간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였다."(같은 곳 참고)

37) 박찬승, 앞의 책, 214쪽 참고.

38) 「국민회보」는 고종의 독살설을 제기하고 이완용 등 6인을 역적으로 지목하였다. (출처: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02)

39) 이상은 학생 최사열이 심문조서에서 묘사한 당시 상황이다. 박찬승 앞의 책, 220~221쪽.

40) 이상은 학생 이양직이 심문조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찬승 앞의 책, 221쪽 참고.

41) 박찬승, 앞의 책, 230~232쪽. 주요 시위만 일별해서 정리했음.

42) 박찬승, 앞의 책, 232~233쪽 참고

43) 「경성부근 16곳에서 이러낫다」, 《매일신보》 1919. 3. 25일자, 염복규 외, 앞의 책, 126쪽 재인용.

44) 박찬승, 앞의 책, 233~238쪽 참고.

45) 내용은 "3·1운동과 배재학당의 영웅들"(http://blog.daum.net/bindosa/16089216)에서 발췌·정리한 것이다

46) 조한성, 앞의 책, 157쪽 재인용.

47) 조한성, 앞의 책, 172~174쪽 참고.

48) 조한성, 앞의 책, 185~186쪽 재인용.

49) 조한성, 앞의 책, 186쪽 참고.

50) 서울역사박물관 지음,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서울역사박물관, 2019, 252쪽 참고.

51) 박찬승, 앞의 책, 214~218쪽 참고.

52) 이하 유관순 열사의 치열한 삶은 "박종선, 「3·1운동과 유관순, 그리고 100, 열린충남. vol.86, 2019년 봄호"를 참고하였음.

53) 네이버 지식백과, 〈한 권으로 끝내는 교과서 위인〉 '유관순' 참고.

54) 위키백과 〈3·1운동〉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55) 류트쉬는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선 뒤 혁명 정권에 복무하길 거부하고 1921년까지 서울에 머물렀다. 〈러 외교관이 본 3·1

운동… “곳곳서 만세시위 불길처럼 타올라”〉, 매일경제신문, 2019. 2. 26일자 기사.

56) 같은 곳.

57) 같은 곳.

58) 염복규 외,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서울역사박물관, 2019. 100쪽 참고.

59) 박찬승, 앞의 책, 211쪽 참고.

60) 박찬승, 위의 책 207쪽 참고.

61) 염복규 외, 앞의 책, 100~102쪽.

62) 출처 :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0200&code =kc_age_40

63) 박찬승, 앞의 책, 210쪽 참고.

64) 박찬승, 같은 곳.

65) 출처: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66) 박찬승, 앞의 책 207쪽 참고.

67) 서영애 · 심지수, 〈일제강점기 광장의 생성과 특성 - 조선은행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v.45 no.4 , 2017년, 11~ 22쪽.

68)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익상(金益相))

69) 출처: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4_2900&ganada=&pageUnit=10

70) 박찬승, 앞의 책, 230~232쪽 참고.

71) 1919년 3월 22일 노동자대회에 대해 본문에서는 박찬승을 참고했으며, 여기서는 정병욱의 글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두 학자의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나 시위의 주동과 실행 주체에 대해서 전자는 ‘학생’으로 후자는 ‘노동자’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72) 경기도 경무부, 1919.3.23 「사찰휘보」 제27회(1919년 京高祕제3483호). 정병욱, [낯선 삼일운동 ③] 3월 22일 서울 봉래정 만세시위, 누가 주역인가?, 웹진 ‘역사랑’ 2020년 6월(통권 6호) 재인용.(출처: http://www.koreanhistory.org/8027)

73)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1919.3.22 「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23보, 조선군사령부, 1919.3.22 「소요사건에 관한 속보続報」제46호. 정병욱, 앞의 글, 재인용.

74) 「독립신문」 제13호, 1919. 3. 24일 발행. 정병욱, 앞의 글, 재인용.

75) 〈노블 일지〉 중 1919년 3월 23일자 일기. 정병욱, 앞의 글, 재인용.

76) 같은 곳.

77) 박찬승, 앞의 책, 152~153쪽 참고.

78) 박찬승, 앞의 책, 153쪽 참고.

79) 박찬승, 앞의 책, 157~158쪽 재인용.

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재환의 역사 팩트체크' 〈유림이 빠진 독립선언서와 유림이 주도한 파리장서〉(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6 참고.
81)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2011, 1쪽 참고.
82) 1917년, 신규식을 비롯한 신채호, 신석우, 조소앙, 신건식, 이상설, 박은식 등 14인의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선언이다. 조소앙이 초고를 작성하였고 신채호 등이 감수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순종의 주권포기는 단지 한 군주의 주권포기일 뿐이므로 무효다. 둘째, 순종이 포기한 주권은 국민에게 상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선언은 조선 내에서 민주공화제를 지향할 수 있는 공화주의 담론의 기반이 되었다. 1918년 11월에 결성한 신한청년당과 1919년 9월에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진다.
83) 여운형, 「자서전2 - 나의 上海 시대」, 『몽양여운형전집』 1, 한울, 1991, 28쪽 참고.
84) 신익희의 비서가 쓴 『해공 신익희』에는 임시정부가 '김신부로 60번지'에서 수립되었다고 나와 있다. 이재호, 앞의 논문, 22쪽 참고.
85) 이재호, 앞의 논문, 9쪽 참고. 1919년 3월 4일, 상해에서 조선의 3·1운동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임시사무실 관련자들은 활동을 시작한다. 3·1운동 소식을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에게 알렸고, 독립선언서를 한문과 영문으로 번역하여 신문에 발표한다. 특히 '펩훼'라는 외국인 신문기자를 조선에 파견하게 되는데,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등 많은 기사와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그가 가져온 자료를 중심으로 《차이나프레스》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재호, 앞의 논문, 11쪽 참고.
86) 신한민국은 3·1운동 직후 평안도 일대에서 추진되던 임시정부이다.
87) 박찬승, 앞의 책, 289쪽 참고.
88) 강대현은 내무총장에 이동녕의 이름 대신 안창호의 이름을 넣는다. 상해 독립운동가들은 안창호가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찬승, 앞의 책, 309쪽.
89) 박찬승, 앞의 책, 293쪽 참고.
90) 박찬승, 앞의 책, 311쪽 참고.
91) 국가정보법령센터, 「대한민국임시헌장」 참조.
92) 박찬승, 앞의 책, 315쪽.
93) 이재호, 앞의 논문, 1쪽 참고.
94) 정용덕,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가성」, 행정포커스. 통권 제138호, 2019년 3+4월, 45쪽.
95) 두산백과 '한성임시정부' 편 참고.
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국민의회 편. 위의 글 재인용.
98)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7075&cid=43124&categoryId=43124
99) 한성임시정부는 최고 권력자의 직위를 '집정관총재'로 명한다. 유림 측이 대통령이라는 표

현을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약법」에서 '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박찬승, 앞의 책, 302쪽.

100) 박찬승, 앞의 책, 303~304쪽 참고.

101) 박찬승, 앞의 책, 301쪽 참고.

102) 박찬승, 앞의 책, 298~299쪽 참고.

103) 박찬승, 앞의 책, 343쪽 재인용.

1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구(金九)' 항목 참고.

105) 2018년 1월 16일자 연합뉴스는 「강북구청, 제주4·3민간인 학살책임 조병옥 흉상 건립 철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병옥은 1947년 삼일절 기념 대회 도중 발생한 민간인 대상 발포 사건으로 시작된 대규모 학살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6109200056)

1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병옥(趙炳玉)' 항목 참고.

107) 이윤옥은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로 권기옥을 꼽는다. "기록상으로 보면 권기옥은 1925년 2월 28일 운남항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4월 20일 중화민국 본부에서 '항공처 부비행사 임명장'을 받았고, 박경원은 일본비행학교를 졸업하고 '3등 비행사 자격증'을 1927년 1월 28일에 딴 것으로 나온다. 이 두 기록만 봐도 권기옥이 박경원보다 앞선다."(이윤옥, 「'권기옥' 애국지사의 푸른 꿈을 찾아」, 『기록인』 2013 Vol.24 3, 42쪽.)

108) 이윤옥, 앞의 글, 39쪽 참고.

109) 이윤옥, 앞의 글, 40쪽 재인용.

110) 위키백과 권기옥편, 참고. 정혜주, 「천황궁 폭파 위해 '날개의 꿈' 꾸다」, [초기 비행사들 ③] 독립운동의 날개꽃 권기옥, 오마이뉴스, 2005. 12. 29일자 기사 참고.

111) 이윤옥, 앞의 글, 40쪽 참고.

112) 위키백과 '의열단' 항목 참고.

113) 우리역사넷 '의열단' 항목 참고.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 levelId=kc_o402400&code=kc_age_40

1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열단' 항목 참고.

1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영범' 항목 참고.

116) 나무위키, 강우규 편 참고.

117) 같은 곳.

118) 같은 곳.

119) 나무위키, '나석주' 항목 참고.

120) 박수현, 「일제강점기 최후의 의열투쟁, '부민관 폭파 의거'와 조문기」, 독립기념관,

2011. 7월호, 16쪽 참고.

121) 이지윤, 「친일 청산의 딜레마」, 서강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8, 181쪽

122) 사료로 보는 반민특위 홈페이지 참고.(출처 : https://contents.kdemo.or.kr/sub01/sub01_04.html)

123) 이지윤, 앞의 논문, 39~41쪽 재인용.

124) 앞의 글, 「1949년 1월, 첫 친일파 구속!」 참고.

125) 악질 경찰로 이름 높았던 서울시경 수사과장 '최난수'와 사찰과 차석 '홍 택희', 그리고 전 수사과장 '노덕술' 등이 모의하여 백민태에게 반민특위 국회의원 들을 암살하게 한 다음 이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사살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이다. 대상자들은 반민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노일환, 김웅진, 김장렬 의원이었다. 이러한 음모는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된 후 발각되었다. 백민태가 검찰에 자수한 것이다.

126) 이지윤, 앞의 논문, 136쪽 참고.

12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883#0DKU

128) 윤경로, 「3·1운동의 '혁명적' 성격과 천도교·기독교의 역할」,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3·1운동과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있어 종교인의 역할』,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9, 17~18쪽 참고.

129) 윤경로, 「3·1운동의 혁명적' 역사성을 읽는다」, 열린충남. vol.86, 2019 년 봄호 참고.

130)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發因)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우리 민족이 3·1헌전(憲典)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이민족전제를 전복하고, 5 천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 한인섭, 「3·1운동과 대한민국, 백년의 꿈」, 행정포커스. 통권 제138호, 2019년 3+4월호, 50쪽 재인용.

131) 한인섭, 같은 곳.

132) 한인섭, 앞의 글, 51쪽 참고.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가 취임선서를 할 때도 모두 '대한민국 30년'을 밝혔으며, 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되어 있고, 1987년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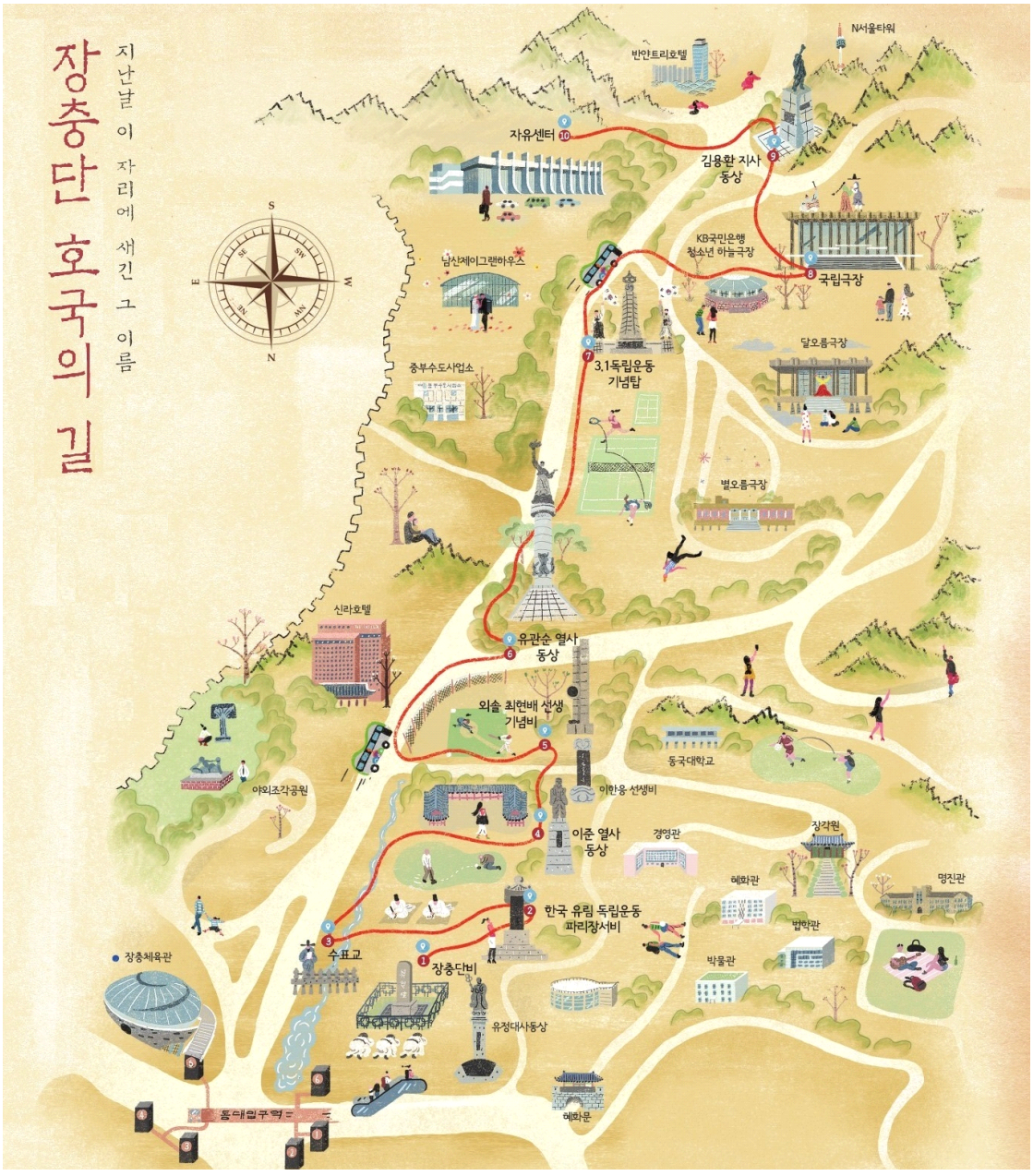
덕수궁 · 정동 지역

2016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대한제국의 길' 프로젝트는 덕수궁과 정동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종합·재생하고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① 1코스 배움과 나눔(성공회성당 – 세실극장 – 영국대사관 등)
② 2코스 옛 덕수궁역(구세군 중앙회관 – 선원전 터 – 구 러시아공사관)
③ 3코스 외교타운(미국대사관 –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 정동교회 – 중명전 등)
④ 4코스 신문화와 계몽(광무전망대 – 배재학당 – 서울시립미술관 등)
⑤ 5코스 대한제국의 중심(환구단 – 서울광장 – 시민광장 등)

서울역 · 명동 · 남산 지역

① 대한제국 시위대 군인들이 군대해산에 반발하여 봉기한 남대문 전투의 현장
② 노동자들이 주도한 봉래정 만세시위지 ③ 남대문역 학생단 만세시위지/강우규 의사 거사 장소
④ 세브란스병원/민족대표의 한 사람이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를 이끈 이갑성 사택
⑤ 남대문교회/ 함태영 전도사 사택 ⑥ 상동교회/전덕기 목사
⑦ 선은전 광장 만세시위지 ⑧ 일제 경제침탈 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의사 거사 장소
⑨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에 진력한 이회영·이시형 집터
⑩ 명동성당/이완용을 응징한 이재명 의사 거사 장소
⑪ 일제 식민통치의 핵심 기관 조선총독부/김익상 의사 거사 장소
⑫ 백범 광장 및 백범 김구 선생 동상 ⑬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장충단 · 남산공원 지역

① 장충단비 ②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③ 수표교 ④ 이준 열사 동상
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비 ⑥ 유관순 열사 동상 ⑦ 3·1독립운동 기념탑
⑧ 국립극장 ⑨ 김용환 지사 동상 ⑩ 자유센터 (출처: 중구청 홈페이지 중구관광 안내)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역사적 현장과 인물을 찾아서

중구향토사자료 제20집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중구문화원장
기 획 중구문화원
집 필 박성현(문학박사, 시인)
감 수 김광시(중구문화원 이사)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제 작 도서출판 상상박물관

ISBN 979-11-954622-5-4 03910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전화 02) 775-3001, 팩스 02) 775-3068
홈페이지 www.junggucc.or.kr